ABSTRACT

CHILDREN'S MISSION THOUGH SATURDAY SCHOOL

BY

HAE SUN KANG

Children miss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learning about missions at a young age is a key to a greater understanding in Christianity. Children mission should not only be up to Saturday school program but the whole church must participate. For this reason, I have studied and researched 'Missions for children through Saturday School'.

This purpose of the research is for the children to grow faith and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It aims to increase the attendance of children at services and for them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G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educate children to have appropriate relationships with non-believers. Lastly, this study enables the children's parents to trust the church and for the church to serve as a form of a center for a child care.

I hope that the research will encourage many churches to have deeper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with children and child missions.

Table of Contents

I. 서 론

어린이 선교는 교회의 한 기관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과제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어른 선교와 훈련에 비해 소홀히 취급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였다. 이제 교회의 관심을 어린이에게도 집중함으로 더 이상 교회의 한 기관으로만 집중될 문제가 아닌 교회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때의 선교와 교육은 장년으로도 연결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되어져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본 연구자가 어린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민하는 중에 토요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전통적으로 교육받아온 각 학년별 공과공부를 넘어서 어린이 선교에 관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토요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책임이 교회와 가정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들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깊이 갖고 교육과 선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어린이 선교를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 선교와 교육에 대한 나갈 방향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1. 상황 분석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뉴저지 주에 위치하고 있다. 뉴저지 주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미국의 주이다. 주의 이름은 영국 해협의 Jersey 섬에서 따왔다. 북쪽으로 New york 주, 동쪽으로 대서양, 남쪽으로 Delaware 주, 서쪽으로 Pennsylvania 주와 접한다.

1) 뉴저지 역사

(1) 역사

북아메리카 동부에서 뉴네덜란드와 뉴스웨덴의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에 뉴저지 주에는 델라웨어 족 인디언들이 차지하고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곤킨어의 방언을 썼으며,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작고 분산된 마을들에서 거주하였다. 인디언들의 반란으로 1660 년까지 영구적

정착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해에 네덜란드인들은 현재 Jersey City 의 일부인 베르헌이란 요새 도시를 세웠는데, 이곳이 뉴저지의 첫 영구적 유럽인 정착지였다. 유럽인들이 도착하면서 교역이 시작되었으며 원주민들은 금속제품 같은 물건들을 위하여 모피 교역을 하였다. 작은 주에 불구하고 뉴저지는 지도력 있는 공업의 주들 안으로 랭킹에 들어와있다. 뉴욕 시와 필라델피아 사이의 근접은 뉴저지 주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뉴저지의 정치적과 종교적 자유가 여러 단체들을 끌어들였다. 청교도, 침례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인들이 1600 년대 후반 동안에 뉴저지에 도착하였다. 백인 정착자들은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로서 일할 흑인들을 수입하였다. 유럽인 정착과 노예의 증가가 인구를 늘리게 되었고,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대지들을 팔고 서부로 이주하는 데 강요되었다. 그들은 처음에 서부 펜실베이니아로 이주하다가, 결국 현재 위스콘신과 오클라호마에 속하는 대지들에 정착하였다.

뉴저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1776 년 7 월 2 일 첫 헌법을 채택하였다. 1804 년 또한 그해에는 뉴저지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주헌법을 통과시켰다. 법령은 남자가 25 세, 여자가 21 세 때에 노예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뉴저지는 거대한 산업이 발달한 첫 주들의 하나였다. 1792 년 만큼 이른 시대부터 Paterson 은 섬유 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후에 도시는 기관차와 실크 제품의 제조업으로 알려졌다. 다른 뉴저지의 도시들도 산업의 이유로 번영하였다. Trenton 은 점토 제품과 철강업의 전문적 도시가 되었다.

브루클린 교를 설계한 존 로블링도 트렌턴에 자신의 회사를 두었다. Camden, Elizabeth, Jersey City, Newark, Passaic 은 1800 년대에 주요 제조업 중심지들이 되었다.

1800 년대의 첫 절반 동안에 교통의 향상들은 뉴저지를 산업적으로 번영시켰다. 새로운 운하들이 뉴저지의 도시들을 필라델피아와 뉴욕 시로 연결하였다. 새로운 철도들은 교통 시스템을 넓혔다. 산업이 번영하면서 수천명의 유럽인들이 뉴저지의 도시들에 공장일을 하러 왔다. 1952 년 뉴저지 턴파이크가 완공되어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고속도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턴파이크는 필라델피아와 뉴욕 시의 메트로폴리탄 지역들을 잇는다. Garden State 고속도로가 1955 년에 완료되어 뉴저지 해안을 따라서 달리고 있다.

(2) 인 구

2000 년 미국 인구 조사국에 의하면 뉴저지 주에는 8,414,350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90 년 인구 조사국에 조사된 7,730,188 명에서 인구가 9 퍼센트로 증가되었다. 2000 년 인구 조사국으로 봐서 뉴저지는 50 개 주들 중에 9 번째로 많은 인구로 랭킹에 있다. 뉴저지 주의 4 분의 3 이 New york- Norden New Jersey- Long Island Metropolitan 지역에 살고 있다.[1]

인구로 봐서 이 Metropolitan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크다. Newark 는 대략 274,000 명의 인구와 함께 뉴저지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75,000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한 주의 다른 도시들은 Jersey City, Paterson,Elizabeth,

---

[1] http//blog.daum.net

Trenton 과 Camden 이다. 이들은 처음에 대부분이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왔다. 후에 이탈리아와 동유럽에서 수많은 수의 이민들이 들어왔다.

1910 년으로 와서 뉴저지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외부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나라들에서 태어난 부모들을 가졌다. 산업의 번영과 함께 도시 인구들이 늘어나고, 농촌 인구들이 줄어들었다. 1900 년으로 와서 더 많은 뉴저지 주민들이 시골 지역보다 도시들에 살고 있었다. 1900 년과 1930 년 사이에 뉴저지의 인구는 두배보다 많았다. 1900 년대 중반에 주의 인구가 많은 시골 지역들로 착실하게 퍼졌다.

인구의 퍼짐은 주택과 상공업 지대의 건설을 포함하였다. 상공업의 번영이 수많은 화학, 전자, 식품 가공, 회사들의 연구들 사이에 빠르게 수많이 일어났다. 뉴저지 주의 가장 큰 인구 집단들은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영국 계통의 주민들이다. 주 인구의 14%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히스패닉은 주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아시아인들은 주의 6 %이다.

뉴저지에는 한인이 많이 산다. 공식적 통계는 6 만명 가량이지만 불법 체류자를 합하면 실제는 8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특히 뉴저지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버건 카운티는 거의 한안 동네라고 보면 된다. 밀도는 Los Angeles 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인구 수나 그 넓이는 절대로 Los Angeles 에 뒤지지 않는 미국 최대의 코리아 타운이다. 뉴저지 버건 카운티 안에 있는 Palisades Park 의 공립학교에는 한인 어린이들이 50%가 넘을 정도로 Paliasdes Park 의 한인 인구 비율은 미국 최고이다. 2010 년 기준 Palisades

Park 인구의 51.5%가 한인이다. 한인이 많은만큼 한인 시의원, 경찰 등도 있으며 시 의회가 한인 사회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2) 교회 주변 환경

임마누엘 장로 교회는 뉴저지 Palisades Park 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한인 상권은 1980 년 전후로 한인 상권이 들어왔다. 현재 Palisades Park 의 한인 거주자는 2 만명의 주민 중 70%에 해당한다. Palisades Park 의 상공 회의소에 따르면 Palisades Park 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 수는 500 여개로 이 중 90% 이상이 한인이 소유하거나 한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물은 100 여개로 4 분의 3 에 달한다.

이와같이 뉴저지의 Palisades Park 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사는 도시이다. 그 중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한인타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교회는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레오니아 한인들이 주로 교인이다. 이렇듯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15 년 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3)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배경

임마누엘 장로 교회는 1999 년 9 월에 394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에서 우종현 목사 ,윤호남집사, 윤호선집사, 이춘실권사, 유창현집사, 유성기 성도 가정이 첫 예배를 드렸다. 임마누엘 장로 교회는

'선교는 나의 일터다'라는 선교 표어 아래 선교에 힘을 다하고 있으며 ‘기도 말씀 찬양으로 일어나는 교회'라는 교회 표어를 갖고 있다.

임마누엘 장로 교회는 미국 장로교(PCUSA)에 소속 되어 있기도 하다. 4 명의 목사와 1 명의 전도사가 교인을 섬기고 있다. 또 2 명의 시무장로과 2 명의 협동장로, 7 명의 안수집사 ,24 명의 권사 30 명의 서리집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2012 년 박요한 목사가 취임하며 청년 사역이 활성화되게 되었고, 2013 년 김영제목사가 합류하며 중 고등부의 사역이 힘을 더하게 되었다. 현재 청년 30 명 출석, 중 고등부 25 명 정도의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부흥되고 있다. 특히 임마누엘장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다니고 싶은 교회, 보내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다.

2017 년도에는 각 성도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됨을 실천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위해 각 예배와 셀 모임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셀 모임을 통해 성도 각자와 가정에 영적 성장에 촛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가장 큰 강점은 열린 교회라는데 있다. 영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생각이 열려 있고 무엇보다 실제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교회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이민 생활에 지친 많은 영혼들이 언제든지 기도하며 모임과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임마누엘 장로교회 특징은 주일학교 부서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교인들 연령 대가 고루 있다는 데 있다. 어떤 교회는 젊은이만 많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노인들만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장년들의 연령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거의 부부가 함께 교회 출석함으로 가정마다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목회적 배경

임마누엘 장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일어서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6 년을 이끌어 왔다. 실천 사항으로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셀 모임의 적극적 참여,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우고 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맡게된 연구자는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환경과 관심 면에서 제일 뒤쳐지는 상황이었다.

2016 년 1 월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맡게된 연구자는 교회학교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장년 출석 인원이 90 명에서 100 명 정도인데 비하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포함 10 명 밖에 되지 않았다. 약 10%에 해당되는 상태이며 거의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교회 건물의 가장 작은 방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몇 년간에는 유아 유치부 교사가 유년 초등 주일학교까지 담당함으로 심각한 교사 부족의 상황에 이르렀던 상황이었다.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 고민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어린이들 자체의 신앙을 위해 연구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주일학교의 변화를 프로젝트로 쓰면서 연구하게 되었다.

2017 년도엔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힘차게 시작했다. 주일학교의 구조와 예배의 변화가 느껴지고 활동이 활발해 짐으로 전체 교회의 분위기까지도 밝아짐을 기대하게 된다. 특히 2017 년도에는 장년부에서 새롭게 도미니카 선교를 시작했다. 우종현목사와 황진배장로가 먼저 선교지 방문이 있었다. 이 곳의 학교의 학생(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과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학생들과의 교류를 갖게 되었다.

2. 프로젝트

1) 목적

지나온 200 년이란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요,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교회학교가 점차 퇴색되어가고 학생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한인교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세계교회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엘머 타운즈는 어린이 선교, 주일학교의 쇠퇴이유에 대해 지적하기를 전도가 도외시되고 주일학교의 시설부족, 양(숫자)만 강조된 사역과 부적절한 행정과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다.[2]

어린이 선교와 교육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자못 큼에도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관심은 어린이 보다는 장년에 치중되어

---

[2] Elmer L.Towns , *교회성장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연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95.

있다. 어린이 교육과 선교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관심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들의 특징 자체가 그러하다. 가정에서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 속에 성장하고 있듯이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들이다. [3]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어린이는 교회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보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그 교육과 선교가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부분 어린이에게 보다는 장년에 집중되고 있다. 그 만큼 주일학교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안팎의 힘겨운 도전과 걸림돌을 이기고 나갈 가능성은 희박해 진다하겠다.

주일학교의 정체현상과 그 원인에 대하여 여러가지를 들 수 있지만 교회의 교육적 과제에 대한 목회자의 무관심, 총회 선교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회들이 해외 선교만을 중시하여 힘쓰고 국내 선교인 주일학교 등은 무관심하고 주일학교와 교회교육을 비전문가에게 맡겨버린 것, 교수와 학습방법의 낙후성으로 교육도구와 교수방법들이 낙후된 것 등으로 보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관심을 들고 있다.[4]

주일학교에 대한 무관심과 교회 안에서 중심 구조가 어린이 보다는 장년에 집중이 되면서 어린이 선교의 길을 제한하게 되고, 더 이상 어린이 선교로 인하여 어린이의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교회 안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절로 흥밋거리가 있는 교회 밖으로

---

[3] 조정제, *21세기 주일학교를 부흥시킨다* (서울: 은혜출판사, 1999), 31.

[4] 최윤식, *유년주일학교 혁명* (서울: 규장, 2001), 104.

자꾸만 나가게 되고, 발전된 아이들의 호기심을 끄는 것들, 게임이나 인터넷, 문화적인 것들로 아이들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어린이들은 점점 더 교회와 선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의 중심 구조를 장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나눠줘야 함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 바라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향후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주일학교 교육에 달려있음을 실감하며 특히 주일학교(유치•유년부, 초등부를 중심)를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뉴저지 임마누엘 장로 교회에 출석하는 11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이해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시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인 안정과 성장을 꾀한다. 특히 음악을 통한 예배와 교육의 활성화를 가짐으로써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한다. 주일 하루만으로 부족한 어린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토요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며 좀더 구체적으로 어린이 영적 신앙을 세워가는 시도를 하기를 원한다. 교회 전체의 성장 부흥으로 확대되어짐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1) 어린이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선교자적 자질을 갖추고 복음 전파자로 양성되는 것이다.[5]

(2) 신앙적으로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3) 어린이 예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장년부의 예배와 똑같이 살아있는 예배, 직접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어린이 성경 공부와 교제, 전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6]

(5) 어린이가 교회와 가정안에서 한 인격으로 인정되고 존중되어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서 어른과 동등한 존재로 됨을 목적으로 한다.

(6) 불신자 전도의 목적이 있다.

(7) 교회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8) 바쁜 부모들을 위해 아이 돌봄의 효과가 있다.

(9) 어린이들의 정서 교육에 유익이 따른다.

2) 목표

(1) 의식의 변화

교회 안에서 차세대 주인 공인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그들을 섬길수 있도록 어른 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회는 비참하다. 빈부 격차가

---

[5] 김종준, *나는유년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다* (서울: 규장, 2000), 88.

[6]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 이야기* (경기도: 도서출판 NCD, 2004), 24.

심해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있다. [7] 도시에는 절박한 가정을 돕기 위해 24 시간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인격과 영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안에서 조차도 아이들의 독창성과 능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교육 방침이 검증도 거치지 않고 교사에 의해 아이들에게 시행되기도 한다. 시대가 갈수록 어린이들의 영적인 고갈은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와 사회 전반에까지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학교 의 교육과 예배, 특히 어린이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교회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대에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조직과 제도라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발전과 성장을 해왔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개개인의 신앙 양육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교육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이자, 생활 가운데 누리는 가장 신성한 특권이며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8]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이 뿌리 깊이 잡혀 있어야 하는 예배가 예전보다는 흥미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져 감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

[7] 김동호, *교사 바이블* (서울: 규장문학사, 2002), 38.

[8] 박은규, *예배의 재구성*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93), 160.

주일학교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현상이 하나의 유산처럼 우리에게 정착되어 버리고 말았다.[9]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교회학교가 교회의 본질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학교는 지식 전수 과정으로서 공과공부에 치우쳐 있던지 친교와 놀이, 오락 위주로 균형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10]

따라서 교회학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 예배의 의미를 살려야 하고 어린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들도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린이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얻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참된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 신앙 발달과 성숙을 이루며 인간적 성숙의 장이 되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11]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해서도 안된다. 가정 교육과 교회 학교 교육이 조화롭게 이뤄질때 어린이들의 신앙이 균형있게 잘 자라날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한 시간 정도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그 한 시간도 찬양 시간, 분반

[9]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12.

[10] 김종석,*교회학교 성장과 교육 시스템*(서울:삼원출판사,2008), 87.

[11] 옥한흠 외 7 인, *제자훈련, 영적부흥과 갱신의 길*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1999), 124.

시간으로 나누어지기에 말씀의 성령 경험이 예배하는 가운데 어린이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좀 더 여유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 교육과 찬양 교육으로 예배의 참여를 높이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배의 연계성을 고려할때 토요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토요학교의 활성화로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을 바라보게 된다.[12]

세상에는 어린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이 필요하다. 단순한 생존 보장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어른에게 있는 것이다.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는 관습의 껍질에 싸인 어른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다.[13]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에서 맘껏 뛰어놀며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없이 주변의 것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전문적 지식보다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

[12] 김청봉,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학교의 미래* (경기도:이레, 2004), 88.

[13] John Fox, *시 치료*, 최소영,조은상 역 (서울: 아시아, 2013), 34.

그래서 어린이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위해 교육을 맡은 학교만이 아니라 세상또한 어린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14] 이렇듯이 어린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가. 가정에서의 의식 변화

부모는 교사다. 그것이 성서적인 교육이다. 서구의 경우 교회가 문 닫기 전에 가정이 먼저 해체되었다. 부모가 교사로 나서야 한다. 부모가 프로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부모를 교육 시켜야 한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살 길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부모는 가정에 시간을 돌려 주어야 한다.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할때 교회와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나. 교회에서의 의식 변화

그 어느때보다 전문적인 교회학교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통한 의식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교회학교의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해서는 전도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

다. 어린이 자신의 의식 변화

기존의 지루한 주일학교 교육은 더 이상 어린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15] 교육의 창조성이 필요하다.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14] Dr. S. K. Paul , ed., The Complete Poems of Rabindranath Tagores' Gitanjali : *Texts and Critical Evaluation* (New Delhi , India : Sarup & Sons, 2006), 372.

[15] 김인환, *기다려지는 주일학교 만들기* (서울: 기독신문사, 2002), 79.

학생들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또한 어린이의 영성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게 읽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가야한다. 이런 의식 변화는 자연스레 예배가 살고 전도가 실천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2) 행동의 변화

현대에 와서는 놀이와 탐험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놀이임을 잘 알고 있다. 놀이는 어린이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뿐 아니라 어린이 영혼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16] 놀이는 곧 유년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흥미와 놀이를 겸한 학습을 요구하게 되었다. 교회라는 특별한 조직 속에서 어린이들의 정서 욕구 충족과 인격과 신앙교육에 이르는 프로그램 계발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가 교회학교 교육, 한글 교육과 함께하여 토요한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한 주에 한 시간 뿐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토요학교를 개설하게 되었고 토요학교를 통하여 신앙과 지식적 교육이라는 여러가지 유익을 갖게 되었다. 또 토요학교를 통해서 주일과의 연계적 사역으로 이끌어

---

[16] Johann Christoph Arnold , *Their Name Is Today,* 원마루 역 (서울; 포이에마출판, 2014), 35.

가고자 한다. 한글 쓰기, 읽기(성경)와 합창단 조직(찬양)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활성화를 꾀한다.

[토요학교]

가. 한글 성경교육

토요학교를 통해 한국어 성경을 읽고 쓰기를 배울 것이다. 또한 한국 문화와 더불어 한국 전통의 예절, 특히 어른에 대한 공경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 일대일 멘토십 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쉽게 마음 문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때론 신앙 상담을 제공한다.

다. 전도 교육

기독교 복음을 익힐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받은 교육을 세상에 나아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리더십 선교 교육

라. 음악회계획

찬양대 조직은 주일 예배때 찬양으로 연결된다. 예배때 특송도 가능하다.

(3) 구조의 변화

대부분의 교회학교에서는 예배와 공과공부를 나누는 구조의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구조나 조직이 엉성한 교회가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구조면에서 어떤 목표아래 새롭게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주일학교 내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었기에 어떤 구조적 시도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상황이었다. 교회 형편과 어린이들의 영적 기준에 맞춘 프로그램의 계발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신앙면에서 성장하여 선교자적 영적 자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되었다. 이 또한 교회 전체의 부흥과 맞물려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선 어린이 주일학교의 예배의 정립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이 예배내용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는 시도가 필요했다.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주일학교 전체를 이끌고 갈만한 구조와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사역자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들과 교사,특히 장년들까지 교회 전체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다.모든 시도와 도입은 순차적으로 되었고 이에 따른 작은 부흥의 불씨가 또 다른 구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주일학교 예배가 형식 위주로 이루어져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잃어 버리기도 한다. 반대로 흥미 위주의 교회학교 운영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때가 있다.[17]

그래서 어린이들이 경험해야할 예배 체험이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예배, 교육, 친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학교는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들의 관심과

---

[17] 강준민, *예배자* (서울: 두란노, 2010), 36.

흥미를 예배를 통해 신앙으로 열매 맺을수 있는 균형있는 구조와 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예배 구조가 예배-교육-친교 공통체로서의 구조로 바꾸어지기를 계획한다.

다른 구조적 변화의 핵심은 가정에서의 영적회복을 들 수 있다. “식탁나눔운동”을 통해 가정에서도 어린이들과의 영적 소통을 열기를 희망한다. 교회 안에서도 좀 더 넓은 차원의 어린이 교육의 시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구조를 계획한다. 실제적인 물질 지원으로 어린이들이 제약없이 활동하고 전도,선교하는 구조적 변화를 꾀한다.

교회학교는 모든 프로그램이 예배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활동' 중심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예배 중심의 교회 커리큘럼을 갖고자 하며 교회 모든 활동의 촛점을 선교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기를 원한다.

II. 성서 속의 자녀교육

성서에는 "어린아이" , "작은 자" , 그리고 "자녀"라는 말이 2 천 번 이상 나타난다.[18] 또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한다.[19] 성서에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20] 말씀하실때 나오는 "만민"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말씀 속에도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21] 즉 어른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

[18] R. Hervert, *자녀*, 최은희 역(서울: 로고스, 1983), 15.

[19] 잠언 22:6.

[20] 마가복음 16:16.

[21] 로마서 3:23.

어린이들 또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진 상태로써 구원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구약의 이해는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의 가르침들을 통해 이스라엘로서의 자기 동질성을 수립할 수 있었다. 신명기 신학의 어린이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성서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계약의 원형을 어린이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한다.[22]

계약은 단지 암송으로만 아니라 재해석의 형식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모든 어린 남자 아이는 태어난지 8 일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다. 이런 의식은 결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져 왔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 12 세가 되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었다.[23]

성서 속에서의 어린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는가를 인물을 통해 연구하고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의 시대 속에서의 어린이들의 삶을 살펴보기로 한다.

1.구약성서에 나타난 어린이

---

[22] R .Goldman, Readiness for Religion, *유아의 종교교육* 제 XI 권, 주선애 역 (1979.5),155-59.

[23] 정웅섭,*기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7), 39.

히브리인들의 격심한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그들의 민족공동체를 잃지 않고 유지해 올 수 있는 원동력은 출애굽 사건과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인들은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민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신명기 6:4~9 절 말씀을 평생 암송하고 이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쉬지 않고 가르친다.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24]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 두 번 쉐마를 암송한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가르친다.

1) 사랑의 교육: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히브리어 성경과 꾸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일한 아들이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이다. 아브라함은 100 세이고 사라는 90 세일때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어린시절의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겠다.

[24] 신명기 6:4~9

아브라함의 고향이던 수메르의 문헌 가운데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신들의 집단 이기구(igigu)[25] 는 고대 아모리어 이름 (altamoritischer Name)[26]이다. 수메르 전통에서 설명되며 그 뜻은 "군주의 씨"(곧 에리두 엥키신의 씨 또는 후손)라 할 수 있다. 수메르인과 아카드인 및 그들의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 등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종교 신념이나 의식을 보면 초기 수메르인의 신들은 공동체의 삶을 중심으로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와 그 이후 시기의 주요관심사는 들판. 물. 가축의 풍요였다. 이 기간 동안 신의 외적인 표현은 그를 상징하는 현상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신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이때 신의 중요한 임무는 풍요한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신전은 종교 중심지 로서의 기능이며 왕의 통제 하에 식량을 재분배하는 중심지 기능도 했다. 이 신전들 가운데 대부분은 매우 검소했지만 바빌로니아에 있는 '에사길라'라고 하는 마르두크 신전 같은 몇몇 신전은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다. 이 신전에서 집행되던 종교의식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날에만 신상을 신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시민들 앞에서 시가 행렬을 벌였다.

이런 종교적, 문화적 ,시대적 배경 아래서 이삭은 태어나게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삭은 부모로부터 독립되기 시작하는 젖 뗄 무렵부터 이삭의 환경은 갈등의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5] Nakata, ASJ I. Kuk won chang (New York: 1979), 67.

[26] W.von Soden (Iraq 28, 1966), 144.

이삭보다 13 년이나 차이가 나던 이스마엘의 희롱은 이삭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삭의 성품은 건강한 자아로 자라기보다는 병리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27]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감이 형성되어야 할 청년의 시기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삭은 이 사건으로 자기위주이고 심한 편애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 부모에서 자란 자식으로 평생 깊은 상처 속에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머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이삭은 부모의 사랑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된다. 그가 받은 사랑과 믿음의 교육은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게 된다.

그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28]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말을 듣자 그는 다시 말이 없었다.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여 단단히 나무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29] 할 때에는 이삭은 아무런 반항이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린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컸음을 보여 준다.

[27] 존 칼빈, *구약성서주석 2* (서울:성서교재간행사,1985), 22.
[28] 창세기 22;7,8.

[29] 창세기 22:9,10.

그는 아버지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 있기에 나를 번제로 드리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항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내 아버지” 라고 부르는 이삭의 음성은 애처로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었음이 분명하다.[30] 이삭의 놀라운 신앙의 힘은 결국 자신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절대적 사건으로 획을 긋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 꿈의 교육 : 요셉

요셉은 야곱의 열 한번째 아들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 있을 시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15 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다. 그가 91 세의 노년에 얻게 된 아들이었다.[31] 그때 야곱은 첫째 아내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 10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다. 특히 언니 레아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한명도 낳지 못했다. 남편의 사랑도 아들 없는 허전함은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15 년이 다 되어서 요셉을 낳게 된다.

라헬은 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하고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30]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1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1990), 373.
[31] Ibid,599.

지었다. 요셉은 히브리말로 '씻다(없애다)라는 뜻과 '더하다'는 뜻의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라헬은 물론 야곱도 다른 아들보다 당시 막내인 요셉을 끔찍하게 아꼈다.(그러나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오래 받지는 못했다. 요셉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요셉은 91 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주었다고 하고 있다.[32] 채색옷은 소매없는 긴 가운 같은 모양이다. 그는 각별한 부모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형제들 에게서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자라게 된다. 그러던 중 요셉은 꿈을 꾸게 된다. 첫번째 꿈에서 요셉은 자신과 형들이 각자 곡식 단을 하나씩 묶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묶은 단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자 형들이 묶은 단들이 둘러서서 그의 단 앞에 몸을 굽혔다.

두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 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몸을 굽혔다.[33] 그 이상하면서도 강렬한 꿈은 결국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크게 꾸중을 듣게 되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정말 너에게 나아가서 땅에 몸을 굽힐 것이란 말이냐?" 하지만 야곱은 이 일에 관해 계속 생각했다.[34]

---

[32] 창세기 37:3.

[33] 창 37:6,7,8.

[34] 창세기 37:6,8,10,11.

이 사건 속에서 부모는 자식의 특별한 꿈에 대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요셉을 바라 보았다. 부모의 '꿈'의 교육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35] 그꿈은 결국 요셉의 전 인생을 붙드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던 요셉은 17 세쯤에 먼 곳으로 보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요셉의 형들은 북쪽의 세겜 근처에서 가축 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요셉을 보내게 된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을 뿐 아니라 순종하여 세겜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 당시는 한 개인을 죽이고 납치되어 노예가 되기도 하는 사회였다. 여기서 요셉의 순종을 보게된다.[36]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쉽게 동질감을 갖고 의기 투합하게 된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당도했을 때 멀리서 채색옷을 입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형들은 질투심에 불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한다. 결국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처넣은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이십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긴다. 이처럼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비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동시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고난을 고난을 당하게 된다.[37]

[35]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1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606.
[36] Ibid, 608.

[37] David Seamands, *좌절된 꿈의 치유,* 이갑만 역 (서울: 두란노출판사, 2015), 37.

요셉의 가장 큰 내적 갈등은 '꿈에 대한 이해'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먼저 자신에게 상처 준 형제에 대해 용서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혼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요셉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상처를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었다. 고통의 원인을 밝히기 힘들때 인간은 보통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일쑤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꿈은 과연 헛 것이었던가?" 라며 좌절하기도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한으로 변하기도 한다.

환경 속에서 커다란 슬픔이 오면 비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38] 이렇듯 요셉은 연단의 큰 시험 속에서 형들에 대한 용서와 더욱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어린 요셉의 견디기 힘든 훈련이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의 교육'이라고 생각 한다.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젼을 그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에서 10 대는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인생 전체의 항로를 결정짓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오늘날 어린이들은 꿈이 무엇인지 ,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탓에 눈앞의 성적에만 관심을

[38] Johann Christoph Arnold, *왜 용서해야 하는가* (서울: 포이에마, 2015), 188.

가질 뿐,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인생에 분명한 좌표를 찾아 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39]

균형 잡힌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미래의 꿈을 펼친 사람들은 마음 속에 상상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 상상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꿈 꾼대로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일으킨다. 그 욕구는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 결국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40]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젼은 극한 현실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요셉의 꿈과 믿음은 애굽에 팔려 가서도 그를 지켜 주었고, 모함을 받을 때도 그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게 하였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참고 인내하며 지낼 수 있었다. 그의 꿈에 대한 소망과 열정은 어디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였다. 요셉은 드디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3) 용기의 교육 :모세

[39] 권성수, *고통의 은총* (서울: 토기장이출판사, 2011), 45.

[40] 임재성, *미래자서전으로 꿈을 디자인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7.

성서에 여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기록될 당시의 사회 구조나 사고방식에는 여성의 입지가 현대 사회만큼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서 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들이 있었다. 비록 그 여성들의 업적이 무대 뒤에 숨겨져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해도 그 여인들의 신앙은 성서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가를 알려준다. 그 중 요게벳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어머니이다.

이 위대한 인물 뒤에 존재하는 더 위대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서에 짧은 몇 구절만이 쓰여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에 숨어 있는 그 긴박하고 절실했던 삶의 순간들이나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던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나안에 든 흉년과 총리대신이 되었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다. 그러자 왕이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41]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담당하는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리고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 정신을 분쇄하려고 했다.

[41] 출애굽기 1:10.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하기에 실패하자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그것은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는 출생할때에 죽이라는 명령이었다. 사단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애굽 왕에게 사단이 역사하여 이스라엘을 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42]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아학살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남자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명령이었다.

히브리 남자 아이에 대한 학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왔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경건한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했다.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기를 희생시키지 않기로 하고 이 아이를 비밀리에 숨겨서 키우기로 하였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들의 아기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물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봉헌하였다.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 위한 지도자의 사명을 성취할 아이의 어머니로서 요게벳은 아주 신실한 믿음과 용기를 소유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보존하려고 세운 계획이 그녀의 생애에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가져온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

[42]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2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64.

성취하는 데 필요하다면 생명을 불사하고도 자신의 몫을 감당하리라는 결심과 결단력을 가진 용감한 여성이었다.[43]

태어난 갓난아이는 정말 아름답고 준수하였다.[44]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숨겼다.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아이를 3 개월 동안 감추어 두고 길렀다.[45] 아이는 숨기어진 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더는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우렁차졌고 매일매일 커가는 아이를 더는 숨겨놓고 안전히 키울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또 한 번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결정은 처음에 내렸던 결정보다 더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요게벳은 커다란 갈대로 바구니 같은 상자를 만들고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뭇진을 칠했다.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띄우기로 하였던 것이다.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강가에 띄운 요게벳은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의 위대하고 자비하신 섭리의 손길에 맡겼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들이었던 것이다. [46]

---

[43]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1985), 22.

[44] 출애굽기 2:2.

[45] 히브리서 11:23.

[46]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2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69.

강에 모세를 보낸 그녀는 감히 그곳에 머물러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만일 그렇게하면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게벳은 누이 미리암을 불러 그 바구니를 지키고 있게 하였다. 엄마에게 미리 지시를 받은 순종심 많은 미리암은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체 하면서 자기의 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게 되었다. 공주는 그 상자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47]

공주의 명령으로 건져진 갈대상자 속에 있는 아기는 공주로 하여금 동정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순간 공주는 그 아기를 구하기로 하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하게 된다. 그때 동태를 살피던 미리암은 공주에게 다가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라고 말하게 된다. 그의 제안은 허락되었다. 미리암은 이 기쁜 소식을 급히 어머니에게 알렸고 삯을 받으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아들을 교육하도록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요게벳은 오래지 않아 모세를 왕실에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이유는 요게벳의 기도를 더 열렬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시간을 아끼어 다른 아이보다 더욱 부지런히 더 주의깊게 교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

[47]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1985), 22.

노력했으리라 본다.[48] 그녀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우상의 세상에서 보존되고 이스라엘 민족감을 잃지않기를 교육하였던 것이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보여주고 어려서부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듯 모세는 유년시절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신앙교육과 히브리 사상을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고 궁전의 호화로움과 방탕함과 우상속에서도 그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은 자녀에게 준 어머니의 교육을 알게한다. 자녀란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성품을 교육하도록 부모들에게 위탁된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시민적,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모세를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했고 그리하여 그는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애굽의 법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은 모두 사제 계급의 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세자로서 국교의 비법을 전수하여야 했다.

모세는 성실하고 모범적 학생이었지만 거짓 신을 예배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그가

[48] 호시 이시로, *용기를 주는 자녀교육법*, 김현희 역 (서울: 이너북출판사, 2016), 95-110.

히브리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의 의를 끊겠다는 공주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49]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히브리 신앙 교육으로 그의 정체성을 잃지않게 된다. 그리고 후에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된다.[50]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보여주었던 그의 투철했던 신앙심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기도로 교육한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결과였던 것이다. 유랑민이며 노예였던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4) 성전 교육 : 사무엘

사무엘은 일명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한나의 신앙적 기도로 얻은 인물이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자식이 없어 마음 고생을 많이했다. 그러던 중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단이었다.[51]

이렇게 해서 한나가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았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사무엘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 사무엘은 젖을 뗄때까지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사랑을

---

49 홍민기, *자녀교육에 왕도가 있다* (서울: 규장, 2006), 177.

50 성기문, *모세의 고별설교* (서울: 솔로몬, 2008), 68.

51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8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65.

받으면서 자랐다. 어머니 한나다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는 사무엘상 2 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52]

이 한나의 기도는 겨우 젖을 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서너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면서 드렸던 기도이다. 이 기도문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과 민족의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찬양이 포함된 유명한 기도찬양이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놓고 1 년에 한 번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입을 수 있도록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

사무엘은 젖을 갓 뗀 아이었지만 울지도 않고 어머니가 지어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앞치마처럼 생긴 옷이다. 제사장들의 옷은 화려했지만 세마포는 아무 무늬가 없는 가늘게 짠 삼베를 말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모 아래 태어나 잘 양육 받았고 특별히 그 모친 한나의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로 자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결심하고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53]

---

[52] 사무엘상 2:1-10.
[53] Ibid,73.

그 어머니의 '성전 교육'은 평생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 일생을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한나를 그런 어머니가 되도록 섭리하셨다.[54] 하나님은 미리 한나를 붙들어서 그를 성전에서 은혜를 입게하시고, 성전에서 바쳐진 하나님의 나실인의 삶에 대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려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게 된 것이다. 성전에 대한 각별한 교육은 사무엘이 어리지만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55] 어머니 한나의 '성전 교육'은 결국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지게 되었고, 그 교육을 받아드림으로 사무엘은 성전에서의 생활을 잘 견디며 자라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일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5) 노동과 협력의 교육 :다윗

다윗은 구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섬김, 신앙, 인격, 왕으로서의 통치, 일반적인 활동, 실수와 회개 등, 모든 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인물이다. 다윗은 "사랑 받은 자"라는 뜻이며,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로

[54] Ibid,74.

[55] 김재헌, *신앙명문가의 자녀교육* (경기도: 비전북출판, 2011), 20.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부인으로 알려진다.[56] 그의 아버지 이새는 훌륭한 가문의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으로 양육 받으면서 자랐다. 특히 어린 소년 다윗은 혈색이 좋고 눈이 빼어나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새의 집은 양을 많이 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어린 소년 다윗이 주로 하고 있었다.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이다.

다윗의 어린시절의 교육은 '노동'과 '협력'에 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부모의 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평도 없이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해 냈다. 습격해 온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건져내는 등 자기 일에 얼마나 충실했다. 또 성서를 통하여 볼때 어린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57] 이런 행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자기 할 일을 해냈다고 하겠다.

흔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교만와 자기우위, 기쁨 결여에서 온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었다. 그는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형제의 막내로서 응석받이로 자랄 수도 있었으나 다윗의 부모는

[56] 시편 86:16

[57] 사무엘 상 17:34, 35.

자식들에게 '노동과 형제들끼리의 협력'의 교육을 철저히 시킨 것으로 사려된다.[58]

그런 교육이 목동 다윗에게 성실함과 용기, 담대함과 같은 후의 왕이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들을 어릴때부터 훈련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별히 다윗은 음악적 재능도 있어서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왕의 악귀를 쫓을 정도로 음악적,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런 음악적인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겠지만 양치기를 하면서 습득한 것으로 보여진다.[59]

블렛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군은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60] 이때 아버지의 명으로 전쟁에 나간 세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온 다윗이 이를 보고, 골리앗을 맞아 싸워 골리앗을 죽이자, 이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처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 다윗의 성품을 발견하게된다. 어리지만 형들을 찾아나서는 용감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응하게 된다.

---

58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8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280.
59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1985), 79.

60 Ibid, 128.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가득했다. 감히 인간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61] 또 32 절을 보면 "내가 가리이다" "내가 싸우리다"고 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한 사람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순교적 용기다.[62] 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둘째,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셋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었다.[63]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승리를 통해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려서 목동시절의 '노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그를 강하게 크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노동에 대한 훈련과 노동의 대가를 가르친 부모의 교육은 다윗으로하여금 목동으로서의 책임과 성실을 가르쳐 준 산 실습이 되었다. 또 형제간의 '협력과 우애' 교육은 결국 그가 전쟁터에 적장과 싸워 이기게

---

[61] 사무엘 상 17:26

[62] 사무엘 상 17:32.

[63]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8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281.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어진다. 이렇듯 다윗의 부모의 냉정하리만큼 행해진 자녀교육이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을 길러내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6) 잠언과 어린이 양육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대로 성장하며, 행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64]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위한 근원을 성경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있으나 가정이 아닌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독교 가정이 원하는 것이다. 잠언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서이다.

구약의 지혜문서에 속하는 잠언은 지혜로운 행동과 미련한 행동에 대해 대조적인 화법으로 말하고 있어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지혜로운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재판[65]에 대해 대부분 부모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으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교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어린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부모들의 맞벌이 생활과 어린이들의 활동영역이 가정보다는 다른 공동체에

[64] J.MacArther,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 마영례 역 (서울:디모데, 2001), 8.

[65] 어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며 싸우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판결을 받고자 오는데, 솔로몬은 고심 끝에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는 판결을 내리자 한 여인이 아이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다른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여인이 진정 아이를 낳은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내린 이야기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때문에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기독교 교육은 적은 편이며, 이로 인한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란 개인의 인격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지는 기능을 말하는데, 생존 능력이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출생 당시부터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비로소 성장 발달이 가능해진다. 즉 가정은 교육 필연적 존재인 인간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며, 사회를 적응하고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획된 경험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신뢰성을 배우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토대로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종교적인 터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66]

잠언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이유도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적용시킬 수 있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대화법, 풍부한 감성을 갖게 하 는 책읽기, 머리를 쓰도록 가르치는 것, 체벌이 아닌 반성을 통한 성장, 학습을 병행한 놀이 등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교육법을 보여주고 있다.[67]

---

[66]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67] 권윤현, *잠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서울: 키메이커, 2014), 68.

그러므로 잠언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68],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 해 줄 수 있다. 어린이들은 활동성을 갖고 있는데, 자유로이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며,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위의 어른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69]

한가지로 끊임 없는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특성을 통해 하나님의 실재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기심을 어른들이 잘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생각을 잘못 인식하여 어른의 그릇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호기심이 경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어린이들의 직접 경험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그 경험을 지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들이 자라고 배우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70]

---

68 김정우, *성서의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0.

69 Ibid , 96.

70 T.Longman,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전의우 역 (서울:IVP,2005), 20.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잠언을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해결점이라 할 수 있겠다.[71]

잠언에서 가장 큰 주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으나, 특히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며, 삶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지침서이자 교훈서라 할 수 있다.[72] 아울러 잠언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knowing what)이 아닌 방법을 아는 것(knowing how) 알게 해 준다.[73] 다시 말해, 경험을 통해 학습자에게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 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잠언에는 교육적인 언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잠언을 통해 지식의 수준을 내면적 가치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실천적인 능력 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잠언 1 장 1~7 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잠언은 학습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현명한 자들에게도 삶을 위한 유익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평생 학습이라 할 수 있겠다. 잠언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로 잠언의 충고를 따라

---

[71] J.L.Seymour, and D.E. Eugene,*Contemporary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 ,오늘의 기독교교육 연구, 맹용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2), 109.

[72] C. F. Melchert, *지혜를 위한 교육*, 송남순・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5.

[73] 김천성, *잠언서에 나타난 유대인의 지혜교육* (서울: 경희대부설교육문제연구, 1998), 83.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해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하며,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잠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배우고 외워서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학이다. Cox 는 우리는 잠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의해서(by means of)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74]

이렇듯 잠언은 단순히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는 지혜가 아닌 일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고 있으며, 성경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실제적인 기독교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잠언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계, 마음, 말, 행동 등의 분야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75]

잠언의 목적은 모든 자녀들이 지혜롭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혜란 생명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 철학이며 땅에서 솟아나는 삶의 진리로, 선한 삶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렇듯 지혜는 기독교 교육이 관여하는 인간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구약의 지혜는 경험에서 우러난 교훈들을

[74] D.Cox, Proverbs: *With an introduction to sapiential books* (Wilmington,Del:M.Glazier,1982), 53.

[75] 장순애, *지혜를 퍼스펙티브로 하는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120 호), 347.

담고있다.[76] 잠언을 통해 우리는 경험과 교훈을 통해 지혜를 습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경험이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특히 잠언의 지혜를 배움으로서 어느 순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직접적인 말 보다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 어느 특정적인 삶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통해 지혜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린이에게 시기적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잠언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지혜교과서라 할 수 있겠다. 이 교과서를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77]

어린이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가정이나 사회(학교, 교회)에서 터득하게 된다. 가정이나 사회란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 작은 집단이나 공동체를 통해 어린이들은 말과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다.[78] 특히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발달특성 중 하나는 사회성으로,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는 형제자매를, 사회에서는 친구라는 나 외의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되며 자기 혼자가 아닌 2~3 명이 함께 모여 놀 수 있는, 즉 집단을 형성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

[76] 전대성, *잠언서를 통한 기독교 자녀교육의 주경 신학적 고찰 및 현대적 적용*,(서울: 총신대학교,2001), 44.

[77] L.J.Sherrill, *the Gift of Power*, 양진우 역 (Nj: The Macmillan Company, 1955), 46.

[78] D.J.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89.

또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시기이기에 잠언의 내용을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풀어서 교육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였다. 즉 잠언을 통하여 아이 때부터 지혜를 알게 하여 성장하면서 정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행할 길을 지혜 속에서 찾도록 하고자 함이다.[79] 지혜를 알게 함을 통해 어린이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게 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삶에 직접적 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성서를 가리키며, 어린이들에게는 성서를 가르쳐야 할 의무를 부모와 선생님이 지켜야 할 것이다. 어릴 때의 교육을 우리는 흔히 조기교육이라 부르는데, 조기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어른이 돼서도 성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듯 잠언을 통해 우리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 나가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잠언을 다룰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면 교육의 가치는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이 어린이들이라면 더욱 적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사실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부모가 아닌 선생님이나 말씀, 교육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79] 잠언 22:6.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잠언을 교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방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80]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잠언을 교육함에 있어 교육방법들을 개발하여 부모의 노력이 더해져서 잠언을 어린이들에게 다가간다면 효과적으로 잠언 교육이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지혜로운 행동은 좋은 것이며, 미련한 행동은 좋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주변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직접 찾을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 잘못된 것을 감싸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도록 교육 한다면 잠언은 어른들만이 아닌 어린이들에게 당연히 먼저 교육시켜야 할 중요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다.

성서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가르치기에 있어 좋은 교재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어린이들에게 교육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훈련,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가정에서 잠언을 교육받는 어린이들이나 교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잠언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함께 겸비함은 물론이요, 이 교육을 다른 공동체(교회, 유치원,학교 등)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할 수 있다. 구약의 어린이를 성서를 통해 볼때 유대 민족보다 더 철저하게 어린이를 중심에 두는 민족은 없다.

그들은 어린이에 대한 종교의식(예배)과 교육이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 제사장,

[80] Elyse M. fitzpatrick, *자녀교육 은혜로 만나다*, 김재권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13), 102.

선지자, 왕들이 율법 교육에 열심을 다했고 가정은 모든 교육 생활의 중심적인 '교육장'이었으며 부모와 교사와 교육의 시행자적 주체로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81] 구약에서는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8 일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믿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의 분별력과 책임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린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 12 세가 되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2. 신약에서의 어린이

1) 예수의 어린시절

예수의 어린 시절은 모든 어린이들의 모델이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예수처럼 자라나야 하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예수처럼 키워야한다. 자녀들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동시에 건강하도록 키워야한다.[82]
성서 전체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은 누가복음 2 장이 유일하다. 여기서보면 예수는 어릴 때 육체도 건강했고 정신도 건강했고 영혼도 건강했다는 것이다. [83] 예수는 어릴 때부터 영육이 조화롭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1] 정웅섭, *기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39.
[82]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23 권*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145.

[83] 누가복음 2 장.

그런데 요즘 시대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유형을 보면 어느 부모는 육체적인 면에 신경을 쓰는데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어느 부모는 정신적인 면에는 관심을 집중한다. 또 어느 부모는 영적인 면에는 신경을 쓰는데 육적이고 정신적인 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부분적이요 미흡한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 영혼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세 측면이 골고루 균형이 잡히도록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을 예수처럼 키우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예수가 12 세가 되던 해의 유월절에 유월절의 관례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84]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3 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 그때부터는 성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성인식을 하기 전 1~2 년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인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배운다. 예수님이 요셉을 따라 예루살렘에 간 이유도 이와같은 맥락이다.[85]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일이 생긴 것이다. 하루 길을 왔는데 그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 온 예루살렘을 헤메다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예수가 거기에 계셨던 것이다. 46 절에 보면 "사흘 후에

[84] *트리니티 말씀대전* (서울:도서출판 목양서원,1990), 43.

[85] 송봉모, *예수-탄생과 어린 시절* (서울: 바오로딸, 2013), 26-28.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도다"고 했다.[86]

예수가 성전에서 내노라하는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사흘 동안 예수를 찾아 헤메는 것도 모르고 예수는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사흘 동안이나 묻고 대답하는 것을 계속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 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달려가서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깐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하셨다. 예수의 행동은 특출난 행동이었으나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또 학생 이라고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수법인 것이다. [87]

그러니까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공부방법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유대인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좋은 열매는 좋은

---

[86] 누가복음 4:46.
[87] 정현모와 최재호, *세상을 길라잡는 유대인* (서울: 새앙뿔, 2009), 93.

나무에서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누가 만드는가? 바로 부모가 만든다. 특히 4 살 이전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의 평생을 결정한다. 여기서 자녀들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2) 에베소서의 어린이 교육

신약시대의 가정교육은 구약에서의 가정교육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달라야했던 조건을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교회의 형성이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존의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부모의 의무로써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게 하였다.

특히 "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88] 말하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것을 아버지에게만 맡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89]

신약성서에서 가정의 교육의 주체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일차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책임이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 구조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교육적 책임이 양편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8 에베소서 6:4.

89 에베소서 6:1,2.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의 영적 교육은 어릴적 부모들의 영성적 바탕에 근본한 영적 교육이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90] 그래서 영적 교육을 위하여 금식하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무를 때도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 영적 교육의 한 부분이며 전체적 으로 보았을 때 한 존재의 전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며 부모의 영성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 진다는 것을 신약성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91]

이러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신약시대에서 더 큰 의미로 확정될 수 있다. 신약에서의 가정은 협의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영적으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쳤고 그 사랑과 관심과 가르침의 깊이는 육체적인 부모와 동급이거나 이상의 것이다.[92]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는 교회이지만 신약성서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원래 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루어졌던 장소는 가정이었다. 역학적으로 기독교교육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교회로의 신앙교육으로 확대 되어졌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90] 박미영, *유대인의 자녀교육* (서울: 국민출판사, 2011), 38.
[91] Richard Templar, *부모잠언, 이재련 역* (서울: 세종서적, 2013), 54.

[92] Iris V Cully,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영적성장을 위한 교육,오성춘, 이기문,류영모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9), 41.

교회공동체가 가정신앙공동체에게, 가정신앙공동체는 교회공동체에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93]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의 교육은 늘 모범이 되어 주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교육을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모든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부모를 찾고 계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듯 믿음의 가정이란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임을 인식할때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한없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94] 성서에서 말하는 어린이 이해는 구약시대의 어린이는 계약의 전수자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 되어졌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인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이에 대한 종교의식(예배)과 교육이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많았다. 신약시대의 어린이 이해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어린이에 대해서는 부족한

[93]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도서출판베다니,1994),94-95.

[94] Connie Neuman,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10가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43.

존재로 생각되어졌지만 예수는 어린이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면서 어린이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과제를 성취하도록 도우며, 성취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자율성과 신뢰감을 심어주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예배환경과 예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린이들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체인 어린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린이 예배를 생각할 수도 없으며 기획하고 실시할 수 없다.

어린이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심리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시기로 각 영역의 발달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발달이 자아의 발달 및 자아 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아 존중감의 발달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다.[95]

어린이는 가장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므로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 깊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

[95] 고재학,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서울: 예담프렌드, 2010), 75.

III. 선교의 역사와 토착화 신학

1. 선교의 의미

선교(mission)는 라틴어 동사 mittere(보내다 또는 파견하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한다. 그리고 그 명사형 missio 는 '내보냄'(sending out)를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ekklesia)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보내는 일을 감당하며,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Donald A. McGavran 는 선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너머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전도와 정의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96]

1) 구약성서에서 본 선교의 개념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 선택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나라에 선전하기 위한 중보자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보적인 그릇으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나라에 파견된 것은 아니다. 고로 구약성서의 선교의 의미는 파견의 뜻이 없다. 반대로 하나님 인식은 이스라엘의 예배생활 또는 경건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알려준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 사이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내적인 경건 생활에 매력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 거룩함에 인도하며 결부시키는 것이다.[97]

Mastin Achard 는 이스라엘의 선교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교도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갖지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신성을 증거하는 중보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

[96]이광순.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18-20.

[97] Walter C. Kaiser,Jr., *Mission in the Old Testment 구약성경과 선교*, 임윤택 역 (서울:CLC,2013), 48.

선택된 백성은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세계의 궁극적인 운명은 모든 나라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에 걸려 있다. 이 선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삶으로서 전 인류를 위해 사는 것이 된다. [98]

그러면 구약성서의 선교사상은 무엇인가? 선교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소명(召命)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는지 모른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신약성서에서 본 선교의 개념

그러나 신약성서에 있어서는 J. Blouw 의 말과 같이 구약에는 없는 새로운 선교 사상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 새로운 것은 구약과는 달리 모든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는 위탁, 즉 원심적인 선교의 위탁은 제자들을 두 사람씩 파송하신 예수의 사역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선교 범위는 처음에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선교 활동 초기에 있어서의 제자들의 소명과 계속해서 이방인의 소명이 있었다.[99]

이 두 가지 사건은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 유대인에 대한 선교활동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활동으로 발전했다.

[98] Mastin achard, *A Light to the Nation (*London: Oliver and Boyd, 1962), 25.

[99] J. Blouw ,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Michigan, Missions,1962), 66.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이방인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행위의 계시다. 이 선교의 위탁은 주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이다.

마태복음의 권위의 수여는 인자의 승천을 통해서 행해졌다. 그리고 이 권위를 받은 인자가 모든 나라에서 제자를 일으키도록 명하셨다. 선교에의 명령은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승천을 전하라는 명령이다. 천지에 그리스도의 주권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 인류를 향하여 증거된 것이다.[100]

이 선교의 위탁은 사복음서에 각각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왕적 권위로, 마가복음은 해방자의 권위로, 누가복음은 용서의 권위로, 요한복음은 아버지에 의한 그리스도의 파견, 즉 선교의 기독론적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 위에 말한 것을 요약한다면, 신약성서의 선교사상은 하나님이 파견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했으며, 선교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 속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의 기독론적 근거에서 성령론적 근거에로 옮겨져야 함을 보여준다.[101]

3) 성령론적 근거에서 본 선교의 의미

바울은 성령의 파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파견의 결과이며 그 계속이라고 강조하셨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

[100] A. P. Beaver, *The Chrstian World Mission A. Reconsderation*, 1957,26

[101] Hubert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이재범 역 (서울:나단, 1988), 93-96.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바울과 요한의 이런 성령과 선교의 일치의 강조는 누가에 의한 사도행전 속에 숨은 존재가 되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으리라는 그 힘의 약속은 사도행전 1 장에 있어서 선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이다. 이것은 주님의 주도 밑에 선교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 선교를 추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도 하나님에 의하여 전개되는 것이다.

오순절이 선교의 발단이 된 것 같이 이방인에의 성령 강림은 선교의 발단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과 선교와의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관련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단 선교의 기독론적 근거와 성령론적 근거를 이해하게 되면 선교의 하나님 중심개념을 이해하게 되며, 삼위 하나님은 선교사업의 유일한 근원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 선교의 목적의 본질적인 것은 아들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이다. 하나님은 단 한번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냈지만, 그렇다고 그 후의 선교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정지하셨거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맡겨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파견하신 것이다.[102]

---

[102] Charles E. Engen ,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임윤택 역 (서울: CLC, 2014), 145.

그러므로 선교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을 선언하는 일이다.[103] 고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임무는 성령에 의하여 이미 세계에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보편적인 주권을 증거하는 데 있다.

4) 선교의 교회론적 의미

선교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라고 할 때, 선교론을 교회의 하부 구조의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선교의 성격은 하나님의 성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론이 교회론의 부수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104]

선교는 하나님의 성격에서 직접 생겨나는 것이므로 교회의 한 부분 이거나 또는 파생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중심 이요 신학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의 표현이다. 선교는 삼위 일체론에 기초를 둘 것이지, 교회론에 기초를 둘 수는 없다. 선교론은 하나님에 관한 선포요 설교이지 결코 교회론의 한 항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론이 기독론과 성령론에서 단절할 수 없음과 같이 선교론과 교회론은 연속되어 있다. 그리고 선교론의 근원은 교회론적이 아니고 신의 존재와 그 뜻 속에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105]

---

103 Ibid, 89.

104 David Bryant,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라*, 안진원 역 (서울:죠이선교회, 1992),32.

105 김성욱, *개혁주의 선교신학* (서울: 이머징북스, 2013), 28.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적인 것처럼 생각하던 과거의 사고의 잘 못을 인식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기쁜 소식의 주체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 필연적으로 낳은 결과이다. 고로 선교는 교회에 병행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자체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한다기 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는 것이 된다. [106]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되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밝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사심 같이 교회도 그런 양식으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2. 선교의 역사

1) 로마제국의 기독교

헬라문명은 B.C. 6-8 세기경에 지중해와 흑해 연안에 거주지를 건설한 후, 지중해 세계의 상업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헬라어는 문화와 상업에 사용되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교활동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준 언어였다. 그것은 로마제국에서 건설한 도로를 통하여 여행하며 전도하기에

---

[106] 전호진,성경에서 본 선교원리와 전략: *복음선교*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1985), 98-99.

매우 용이했으며, 자치권을 부여하여 종교적으로 대단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다.[107]

그러나 헬라나 로마문화보다도 기독교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은 히브리 문화였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아왔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한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예배를 전달하였으며, 메시야가 오신다는 기대와 보편 언어인 헬라어로 된 성경을 전파하였다.

바울의 경우,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 공회를 찾아가서 유대인 동족과 개종자들을 만나고 멧세지를 전하였다. 사도행전에 보면, A.D.30 년에 하나의 유대적 소수파로 시작한 것이 A.D.60 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종교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제자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였는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성전과 유대를 갖고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하여, 얼마되지 않아 그들의 사역은 널리 확산 되었다. 그 멧세지의 내용은 고난의 메시야, 회개의 촉구, 약속된 용서와 회복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분히 유대교적이었다. [108]

그러나 A.D. 70 년 예루살렘성이 함락하면서 교회는 현세적이기 보다는 영적이며, 지역적이기 보다는 우주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대로와 강을 따라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는데, 동쪽으로는

---

[107] 혼다 · 고오지, *선교를 위한 정열*,박정규 역 (서울: 진흥, 1993), 51.

[108] 안승오, *세계선교역사 100 장면* (서울: 평단출판사, 2010), 35.

메케도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북쪽으로는 알마니아, 본도, 비두니아로 퍼져 나갔으며, 후에는 스페인, 아일렌드, 중국, 영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부터 급속한 확장을 보았고, 따라서 기독교는 왕실의 보호와 국가적인 재정지원까지 받으면서 4 세기까지 성장을 지속시켜 나갔다.

64 년 네로황제에 의한 제 1 차 박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고, 도시미안에 의한 제 2 차 박해 때로부터 시작하여 2 세기 동안에는 안디옥교회와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 순교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타고에서 순교당하였다.[109]

그러나 313 년 콘스탄틴이 밀란 칙령을 발표함으로서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으며,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날 교회의 씨가 된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콘스탄틴은 밀란 칙령에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디오클레시안때에 몰수 당했던 교회 재산을 다시 환수 하도록 명하였다.[110]

이 때에 유세비우스에 의한 교회사가 완성되었고, 교회 연합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다. 콘스탄틴에 의한 기독교의 평화는 양적으로는 급성장을 가져 왔지만 선교에 대한 수고는 거의 필요치 않아도 되는 인식이 박히기 시작했다. 교권은 정치 세력과 결혼하여 영적인

---

[109] Paul Johnson, *기독교의 역사* (서울: 김영사, 2013), 78.

[110] Hubert Kane, *세계선교역사*, 신서균 이영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0.

면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기독교는 정권이 견고해지면서 감독은 교권뿐 아니라 법적 권한까지도 갖게 되었다.

2) 유럽의 기독교화

6 세기에서 8 세기 사이에 아일랜드는 야만족들의 침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빛을 발하였다. 아일랜드의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패트릭 시대부터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복음화에 힘썼으며, 스코틀랜드의 픽트족, 영국의 앵글족과 색슨족, 네덜란드의 프리시안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영국의 기독교의 기원은 모호한 상태이나 6 세기가 되어서야 기독교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콜럼바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는 다수의 교회와 수도원을 설립하였다.[111] 이 수도원은 200 여년간 존속하여 영국도서와 유럽 각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콜럼바의 후계자 아이단과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 파송된 어거스틴, 윌프리드에 의해 영국의 회심은 완성되었다.

이후 영국은 200 년동안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정을 보였다.[112]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아일랜드의 윌리브로드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의 보니페이스가 독일에서, 안스카가 스칸디나비아에서, 안스카의 제자인

---

[111] Paul Johson, *2 천년동안의 정신이 된 기독교*, 김주한 역 (서울: 살림, 2005), 56.

[112] Alister McGrath, *기독교의 역사*, 박규태 역 (서울: 포이에마, 2016), 35.

림버트가 덴마크에서 각각 어려움을 무릎쓰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설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나갔다. 노르웨이, 스웨덴, 불가리아, 러시아, 폴란드등의 국가에서는 선교사에 의한 개종보다는 왕에 의한 개종이 이루어 지기도 했다.

3) 이슬람교와의 대면

기독교교회가 가장 심각한 위협에 봉착한 것은 7 세기에 갑작스럽게 생성되어 확산된 이슬람교의 세력이었다. 이슬람교는 전투적이며 선교적인 종교였다. 632 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죽고 난 후 그의 추종자들은 아라비아의 전투적인 부족을 통일하여 정복과 회심의 선교를 실현하였다. 그들은 다메섹(635 년), 안디옥(636 년), 예루살렘(638 년), 가이샤라(640 년), 알렉산드리아(642 년), 페르샤 제국(650 년), 칼타고(697 년), 스페인(715 년) 등의 나라를 차례로 정복하였다. [113]

이슬람교는 이후 500 년간의 정체기간을 지낸 후 13 세기와 14 세기에 오토만 터키족과 중앙 아시아의 몽고인들이 추종하게 되었고, 15 세기에 오토만 터키족은 그리스와 발칸제국, 콘스탄틴노플을 함락시켰다.

이슬람교도는 어느곳을 가든지 간에 피정복자들에게 코란경과 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다고는 하나, 기독교인들은 비쟌틴 통치하에서 보다도 더 큰 자유를 만끽하였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고전적인 헬라문학을

[113] Jacques Ellul, *이슬람과 기독교,* 이정순 역 (서울: 대장간, 2009), 89.

아랍어로 번역해 주거나, 새로운 통치자들에게 헬라문학을 분여하였다.[114] 그러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다. 개종은 일방적인 것이어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는 갈 수 있어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는 없었는데,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개종한 이스람교인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교에 대한 포교는 급속하게 진행 되었는데,그 이유는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컸지만 영적인 면에서 나약했었기 때문이었고, 사실 권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토착적으로 자리잡지 못하였고, 그 나라 고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존재치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사의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095 년과 1272 년 동안 7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십자군 원정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방교회 측에서의 셀쥬크 터키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소망과, 로마 카톨릭 교회측에서의 콘스탄틴노플을 중심으로 한 54 비쟌틴제국을 지지하고 터키의 침공을 막고자 하는 열정, 로마측에서의 동방과 서방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여 다시한번 기독교의 통합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십자군은 실패했다.[115]

기독교회가 팔레스틴이라는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사실은 자신들의 신앙 자체를 거부한 것이었고, 십자군 원정대들의 극악성으로 이슬람교도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때의 70,000 명이라는

[114] Miroslav Volf, *알라를 말하다*, 백지윤 역 (서울: IVP, 2016), 220.
[115] 시오노 나나미, *십자군 이야기*,송태욱 역(서울:문학동네,2011),37.

엄청안 모슬렘교도를 학살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중동의 이슬람교도들의 마음속에처절한 아픔으로 남아있다. [116]

4) 로마 카톨릭 선교

유럽의 개신교회가 대륙내에서 세력을 견고케 하는 동안 로마 카톨릭교회는 세계의 비기독교 지역에 나아가 정복을 하였다. 로마 카톨릭의 선교발전은 포루투칼과 스페인 제국의 해외확대와 시대를 같이 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왕들은 해외 영역에 신앙을 전파하고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책임졌다. 교회의 임명권은 시민당국에 의해 주여졌으며 그 경비는 나라가 부담하도록 하는 파트로나토(Partonato)의 체제가 생겨났다.

초기에 가장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였던 이들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유럽 외지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선교는 John of Monte Corvin 가 1294 년 중국에 도착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는 북경에 교회를 설립하고 100,000 명의 카톨릭 신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1368 년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선교사들은 축출당하고 기독교는 소멸 되고 말았다. [117]

이후 마테오리치가 북경에 도착하여 250,000 명의 개종자를 얻었으나 도미니크 교단 및 프란시스 교단에서는 예수회가 유교와 타협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1724 년과 1736 년에 기독교회에 대한 박해령으로 중국에서 다시한번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프란시스

[116] Amin Maalouf,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가 전쟁*,김미선 역(서울:아침이슬,2002),189.

[117] 안승오, *세계 선교 역사 100 장면* (서울: 평단, 2010) , 197.

자비엘이 1540 년 예수회의 선교사업을 상륙시켜[118] 혼란한 정치상황과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세기가 바뀌면서 50 만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1614 년 반기독교령이 발표되면서 해외선교사들은 축출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면키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의 나라들과는 달리 필립핀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선교사들은 반야만적인 섬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포함하여 문화기술을 가르쳐 여자들의 노예상태를 해방시켜 주는 등 전인구의 85%의 신자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었다.[119]

5) 개신교 유럽선교의 기원

개신교 선교가 카톨릭보다 더딘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원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고, 후세의 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권위도 책임도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개신교의 상황은 생존의 문제에 시달려야 했으며, 루터교와 개혁파 사이의 상살 전쟁으로 인한 분열이 선교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었다. 또한 카톨릭 국가들의 식민지 확보로 인해 그 방향이 넓었었던 것에 비해 개신교는 그 어느곳에서도 고립을 면키 어려웠다.

---

[118] 나카무라 사토시,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박창수 역 (서울: 홍성사, 2016), 175.

[119] 이찬석, *글로컬 시대의 기독교 신화*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103.

따라서 개신교 선교는 대륙에서 시작하였고, 1664 년 져스티안 폰 벨츠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기틀을 다졌다.[120] 이후 1648 년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덴마크에서는 최초의 선교 기구인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생겨났고, 모라비안 선교회의 등장으로 실질적인 해외선교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덴마크 할레 선교회와 모라비안 선교회가 18 세기 전반에 걸쳐 선교무대의 중심부를 석권한 후 19 세기에 와서 약 15 개의 대륙적 선교회가 발족되었다.[121]

요한 웨슬레는 죠지아 주에서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업을 하다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후, 회심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40 년간의 전도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감리교회의 탄생과 종교적으로 파멸되어가던 영국을 건지고, 근대적 선교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6) 영국과 미국 개신교 선교의 기원

개신교 선교는 윌리암 케리에 의해 시작된다. 그는 이교도의 회심을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조사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선교적 호소를 해 나갔으며,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 이교도 복음 선교를 위한 특별 침례교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를 통하여

[120] J.Herbert Kane, *A Concise History of Christian World Mission 세계 선교 역사*, 이영주 역 (서울:CLC, 1999), 55.

[121] Michael Welker, *종교개혁,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46.

윌리암 케리는 1793 년 가족과 두 동료와 함께 인도로 가서 40 년간을 선교사업에 힘썼고, 그의 노고와 편지를 통하여 많은 선교기관들이 창설되었다.

미국에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밀즈는 기독교 선교의 준비를 위해 윌리암즈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과 뜻이 같은 동료들과 함께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메사추세츠 회중목회자 총회에서 파송되었다. 이곳에서는 현재 개신교 세계 선교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선교재정의 80%를 맡게 되었다.[122]

이 위원회에서는 선교활동을 위해서 고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원시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고대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로 그 영역을 세분화하고 이들 영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7) 19 세기의 개신교 선교확장

18 세기가 지나면서 여러 개신교 국가에서는 이교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앙 아프리카의 미지를 개척하고 죄악스러운 노예 매매제도를 중단케 했으며, 지역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들 선교는 최초에는 초교파적으로 진행되어졌는데, 런던선교회, 미국해외 선교회 등의 회중 위원회 형태의 선교와 제나나 의료선교회, 영국 시리아 선교회 등의 신앙선교회 형태, 특정한 계층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선교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122] 강준만, *미국사 산책*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0), 54.

그러나 성서공회만큼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있는 선교회는 드물다. 이 선교회는 신학적 경향이나 지리적인 위치를 초월하여 성서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전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9 세기의 선교사들은 상당한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선교지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모든 환난을 감수하였고, 아프리카에서의 수많은 질병들과 싸워 이겨났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서 신앙을 증명해 나간것이다.

흔히 19 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걸출한 선교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근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암 케리는 인도와 동암 아시아의 35 개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에도나이럼 져드슨은 버마-영어사전,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어 성경과 중국어 사전을 발간하여 문서 사역의 위대한 장을 열었다.[123]

이들 선교사들은 당시의 수많은 사회폐습 즉, 아편중독, 성전간음, 일부다처제, 노예매매 등을 공격하였고, 학교와 병원, 의과대학, 고아원, 나환자촌 등을 세우고, 구호품과 양식을 제공함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다.

8) 20 세기 개신교 선교 발전

[123] Herbert Kane, *세계선교역사*, 이영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89.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선교사업에 있어서 세가지의 중요한 역할의 운동이 발전하였는데, 신앙선교운동, 상서학원운동, 학생 지원자 운동이 그것이다. 신앙선교운동은 모든 필요한 것의 공급을 주님께만 기대하는 선교형태로써, 신앙선교는 꾸준히 질을 높여왔고, 계속적으로 동적인 성장을 하고, 선교 방법에 대한 창조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성서학원운동은 1880 년대에 시작하였는데, 전도와 성경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외선교지에 보낼 선교사들을 꾸준히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 학생지원자운동은 우리 세대에서 세계복음화를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50 년 동안 20,500 명에 달하는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이 운동이 사라진 후 현재에는 I.V.F.로 계속되고 있다. 이 세기에는 식민지 붕괴로 인하여 기독교 선교에도 그 원인과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었고, 자국민 교회의 지위가 상승하였고, 선교사의 역할이 변화는 결과를 가져왔다.[124]

또한 공산주의의 발흥과 민족주의 태동으로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은 퇴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속출하였지만, 현재 선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단기 해외선교와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선교계획, 국경을 초월한 방송선교와 성경통신 과정이 그것이다. 선교는 이제 서구 선교사들에 의존하는 형태의 것이

[124] David J. Bosch, *변화하는 선교역사*, 김만태 역 (서울: CLC, 2017), 13.

아니다. 제 3 세계의 등장으로 한국, 필립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주축이 된 선교사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9) 이슬람세계 선교

20 세기에 들어와서도 이슬람교는 동부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도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에 가장 어려운 종교이다. 이슬람교에는 기독교와 같은점이 너무도 많이 있다. 즉, 예수의 복음서와 모세율법, 다윗의 시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음과 부활을 부인한다. 누구든지 배교하는 자는 죽게하라고 코란에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는 철저하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종교이기도 하다. 십자군에 의한 아픔의 기억을 아직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전도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실정이지만 오늘날에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선언에 모든 아랍국가가 서명하였으며, 많은 이슬람 청년들이 서구문명을 접하고 있다. 정치적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고, 기독교 방송이 많이 침투하였으며, 성경통신 강좌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났다. [125]

10) 아시아 선교

[125] Karen Amstrong, *이슬람*, 장병옥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2), 89.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대륙이다. 이 지역에는 흰두교와 불교의 탄생지이고, 사도 도마가 순교한 지역이기도 하다. [126]그러나 270 년의 개신교 역사속에서 3% 내외의 신자들만이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아시아의 문명은 5 천년 이상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지긍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와 흰두교등의 종교와의 갈등은 물론, 인도의 계급제도와 같은 사회의 관습과 종교적 관습에 의한 충돌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가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로서 지배국가에 대한 원한이 남아 있고, 당연히 서양의 기독교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필립핀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일본 등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선교 활동인것이 사실이다.

11)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은 1900 년부터 시작되어 50 년동안 60 배로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아프리카 지역이고, 가장 낮은 곳은 서부 아프리카이다. 사실 아프리카 교회는 아시아보다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 검은 아프리카의 인구는 3 억 5 천만명이지만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인구는 1 억 7 천만명이다. [127]

모슬렘은 1 억 정도이며, 나머지는 토속종교인들이다. 이렇듯 아프리카 교회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에

[126] 이용봉,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서울: 비젼사, 2017), 55.
[127] Christopher J.H. Wright,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109.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식민주의가 심각한 장애요인 이었으나 아프리카에서는 달라서 식민통치자들이 선교사업에 여러모로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족형태는 선교에 대단히 유익이 되어 족장이 개종을 하면 부족민들은 당연히 해야 했다. 또한 많은 재정을 교육사업에 투자하였고, 토착종교의 우호적인 면, 아프리카인들의 깊은 종교성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성으로 연결되었다.

기독교는 아프리카에 근대화의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교육을 통한 토착 문화에 대한 유해방지,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제반문제에 기독교의 원리 를 적용하는 노력등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12) 유럽 선교

현재 유럽에는 급속하게 비기독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의 합리주의와 고등비평사상으로 성경의 정확성과 권위가 손상되었고, 유럽의 공산당 정부 출현, 동양에서 발생한 신비주의와 불교나 힌두교에 대한 비상한 관심, 이슬람 인구의유럽이동으로 인한 이슬람사원의 건축 현상들이 늘어가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인구 가운데 1억 6천만명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128]

영국의 경우 전 인구의 60%가 세례를 받았으나 3%만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유럽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의 회심보다는 종교교육에 더 관심이 크다는 사실이다.

---

[128] Ralph D. Winter, *Mission Perspectives*, 한철호,정옥배 변창욱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0), 210.

개신교교회의 다수가 국교회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모두가 교회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부 유럽권의 경우 기독교회는 가장 생동감이 넘친 곳이다. 동부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고, 목회자들은 그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토착화 신학

1) 토착화와 토착성의 문제

교회사는 복음의 토착화의 역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감히 토착화를 성령의 역사(役事)라고 부를 수 있다.[129]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학을 논의하면서 성령을 제외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바르트가 불트만의 신학을 바람(루아하:성령)빠진 신학이라고 조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오류에 속한다. 어차피 신학이 종교 체험과 실재를 인간의 언어와 사유로써 모두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 신학자가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매우 모험적이고 용맹스런 일이기는 하나 기독교적 경험과 현실을 합리주의의 틀 속에 묶어 놓으려는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다.

성령의 역사로서의 토착화는 결코 토착성에 입각한 인위조작적인 사태를 의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다. 토착화의 사건은 도리어 성육신의 사건의 부차적 반복이며, 구원 사건의계속적 시행이다. 따라서 토착화는 성령의 역사로서만

---

[129] 윤성범, *제 3 세대 토착화 신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0), 64.

가능하고 인위조작적인 혼합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성령은 복음을 전유시키는 토착화의 사건의 주체이며 그 동력이다. [130]

그러나 바로 이러한 토착화는 언제나 토착성 속에 함몰되어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 동시에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토착화는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소집단의 사유물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신앙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종교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토착화의 사건과 토착성의 인위조작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특정한 문화와 종교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와 종교와 철학을 동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착화는 개인적 사유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적 경험속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토착성과 토착화의 구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2) 토착화 신학의 과제

토착화가 성령의 역사라면, 토착화 신학은 토착화에 대한 해석학적 시도이다. 흔히 토착화와 토착화 신학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양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토착화는 이미 신약성서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관계는 토착화의 두가지 유형사이에 있던 문제점이었다.

---

[130] 심상태, 윤성범, 변선환., *토착화신학* (서울: 베리타스, 2010), 97.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처럼 헬라인들 가운데에서는 헬라인 처럼 처신하였다. 이와는 달리 토착화 신학은 최근의 특정한 유형의 한국신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토착화 신학은 한국적 상황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민중 신학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31]

토착화 신학은 명백하게 한국적 신학을 목표로 삼는다. 토착화 신학은 한국적 창의성의 발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한국적 창의성을 찾아서 신학적으로 결실하는 것이 토착화신학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적 창의성을 한국인의 윤성범의 '솜씨'에서 발견하려 하였다. 이 솜씨는 예술적으로 말한다면 조화미를 창출하는 기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조화미를 멋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인의 멋은 곡선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곡선은 자유를 상징하고 자유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멋으로 나타난 곡선의 자유는 성령의 역사라고도 한다. 한국인의 솜씨는 두개의 소재 즉 감을 다루는 기교로서 두개의 소재를 무한히 접근시켜 곡선이 되도록 만든다. 이때에 솜씨는 화해도 해방도 아닌 조화미를 창출한다.

이 조화미를 철학적으로 혹은 신유학(Neoconfucianism)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誠)' 이다. 성은 말씀(言)의 성취(成)를 의미하며, 이것은 성육신과 계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된 성의 개념을 기초로하여 성의 해석학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윤성범의 '한국적

[131] 박정세, *기독교 미술의 원형과 토착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사, 2013), 94.

신학(1972)'이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다루었어야 할 문제가 단지 제목설명 정도로 끝나 버린 것이 아쉬울 뿐이다.

한국적 창의성을 '풍류(風流)'에서 찾고자 하는 문화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 문화는 다양한 외래 문화들로 구성되지만, 무교는 그러한 외래 문화들을 수용하고 독창적으로 재정립하는 기층 문화라고 한다. 무교가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풍류도이고 이것이 다시 국가적 내지 군국적 이념으로 발전된 것이 화랑도라고 한다. 풍류도는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포함하고 민중의 구원을 위하여 재해석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적 창의성을 대표한다. 기독교의 복음도 풍류도에 입각하여 수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을 일컬어 풍류 신학이라고 한다.[132]

한국적 창의성의 원천을 솜씨와 풍류에서 보다는 민중의 역사와 종교 속에서 찾으려는 신학적 시도를 민중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한국적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민중의 이해는 넓은 의미에서 토착화 신학의 한 형태임을 말해준다. 다만 이 경우에 사회 정치적 문제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 특이할 뿐이다. 그러니까 민중 신학도 한국적 창의성을 신학적 사유의 기초로 삼는 다는 의미에서 토착화 신학에 속한다. 민중의 한국적 창의성을 찾기 위하여 동학 운동이나 증산교나 혹은 미륵 신앙이나 혹은 탈춤을 연구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나 역시 솜씨와 풍류의 경우

[132] 윤남옥, *해천 윤성범의 토착화 신학* (서울: 크라스천 위클리, 2016), 34.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한국적 창의성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133]

3) 토착화신학과 조화

유불선으로 표시되는 동양종교내지 동양 문화는 한국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신앙 속에서 포괄되고 전개되고 완성되었다. 민족 신앙으로서의 하나님 신앙은 유불선이라는 세가지 종교적 지평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인이 민족신앙으로서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 종교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 신앙이 이미 있었으므로 유불선을 비롯한 외래 종교들이 우리 문화 속에 수용되어 있던 것이다. 기독교 선교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한국적 창의성으로서의 하나님 신앙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는 민족 신앙으로서의 하나님 신앙은 한국인의 자기 이해이지만 바로 이러한 한국인의 자기 이해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복음 선포와 복음의 전유가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로서 의 토착화이며, 이것은 한국인의 천재성이나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론적 주제에 속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적 창의성은 부수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133] 심상태, 몬시뇰, *한국교회의 토착화신학* (서울: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16), 76.

그러니까 한국적 신학으로서의 토착화 신학은 한국적 창의성과 관계되어 있으나 이것은 다시 동양의 문화적 아프리오리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며, 동양적 선천성(先天性,Apriority)은 조화전개적 사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제까지의 서양신학이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및 역리법이라는 분석 종합적 사고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동양 신학 혹은 토착화 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은 동서양 사상의 만남으로부터 출발하고 동서 사상의 포괄적 통합에 비추어 전개하고 동서 사상의 대화로서 성취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결국 분석 종합적 사고와 조화 전개적 사유의 만남과 대화와 통합이 토착화 신학의 가장 긴요한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4. 21세기 선교 상황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과 교회의 선포의 공간이 되는 전 세계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교는 세계상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는 변화하는 세계 상황에 맞추어 계속적인 변화가 요구된다.[134]

따라서 21 세기 세계 선교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세계화 현상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획일적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에서

[134] Karl Muller , *Einleitung In die Missionsgeschichte*, 현대선교 신학, 김영동, 김은수, 박영환 공역 (서울:한들, 1997), 121.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행동 방식을 추구하는 다원화 현상은 종교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레젤(Mike Regele)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 정보화 시대,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 세계화, 그리고 급진적, 종교적, 종교 다원주의의 총체적인 영향력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펼쳐왔던 전통적인 역할을 점령해 버렸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제도화된 교회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135]

그에 대하여 노윤식은 21 세기를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와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sm)의 심각한 복음에의 도전이 있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136]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에 대한 도전이며 문화상대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온전한 접근과 경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복음주의는 에큐메니칼과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과 실 천 방법상의 오류들을 극복하고 선교 목적의 회복을 실천해야 한다.

선교의 목적성이란 종교개혁의 최우선적 가치인 Sola Scripura(오직 성경으로)와 Semper Refomanda(항상 개혁되는) 원칙으로 복음전도와 기독교 선교를 위하여 교파 상호간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

[135] Mike Regele, Mark Schulz, *The Death of the Church* (Nashville: World, 1998), 5 .

[136] 노윤식,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정체성과 과제: *선교 목적성의 회복*, 제 51 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162-6.

Howard A. Snyder 는 서구중심의 신학과 부흥이 제 3 세계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견한다. 그는 선교의 국제화를 예견하면서 복음주의 교회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화를 비롯하여 교파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았다.[137] 온건주의와 상호 수용의 분위기가 21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보수 신학과 개방적 협조가 필요함을 말한다. 그는 세속주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대신 종교적 상대주의의 영향력은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교회의 제자 훈련이 시급한 일이라고 말한다.

1) 다원주의

예수가 선포하셨던 회개나 천국의 긴급한 도래가 1 세기의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21 세기 사회에서도 변화가 없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으로서 이는 지난 20 세기 동안의 선교사역과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었다.[138]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이며,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이며, 지난 이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전해온 메시지이다. 이 복음은 성경의 중심이며, 과거 이천년 동안 성경에 변화가 없었듯이 복음에도 변화가 없었다. 복음의 불변성과는 다르게 21 세기의

[137] Howard A Snyder,Foresight, *21 세기 교회의 전망*,박이경,김기찬 역 (서울:아가페, 1996),69.

[138] 임성빈, *21 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19.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다원주의로서 사물의 영원불변한 요소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다.[139]

이것은 순간적이거나 불연속 같은 것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전에 자신의 주도권이 은연중 전제된 가운데 다른 이들을 관용 하였던 자세에서, 이제는 어떠한 형태의 특권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다원주의(Pluralism)가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신념 혹은 행위의 유형이 없어지게 되었다. 어떤 공인된 교리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교리를 비판하여 시험대에 올려 놓는 비판 정신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가 된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신을 가지고 있으며 각 종교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을 말한다.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이며, 이에 따라 모든 종교는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의 위치가 대상에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 대상을 인식하는 곳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140] 또한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진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념을 참이나 거짓의

[139] Harold Karward, *종교다원주의와 세계종교*, 오강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20.

[140] 안승오,"에큐메니칼 세상 이해", *신학과 목회,* 제 48 집,2017,63.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한다. 종교적 믿음은 사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각자 자기 신앙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141]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로서 오늘날 수용되는 견해이다. 다원주의의 양상은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심각한 도전을 준다. 기독교와 시대정신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겨나고 있다. 기독교의 특징은 절대성인데, 시대정신은 상대적이고 다원적이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은 어느 사회의 가치도 절대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 다양한 가치, 다양한 이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 강요도 용납되지 않는다. 만약 강요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상대에 대한 결례나 인격적 모독을 자초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강요적이고 강제적인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다원주의가 21 세기에는 보다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142]

이것은 종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기독교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자기 동질성을 유지하면 이 시대와 대화성을 상실하고, 이 시대와 함께하기에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특징과 안 맞는 상황이 된다. 물론 21 세기가 되면 종교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종교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사람들은

---

[141] 전호진," 종교다원주의와 선교 변증학" , *복음과 선교*, 제 4 집, 2004, 10.

[142] Lesslie Newbigin, *(the) Gospel ln a Pluralist Society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8), 39-40.

더욱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영적 갈증으로 종교를 찾게 되었다.[143]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종교든지 상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외에도 여러 종교가 있는데 무슨 종교든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선교를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하나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선교도 점차 어려워질 것이고, 오히려 기독교는 이 시대와 상당히 어려운 자기설정 속에서 오히려 숫자가 줄고 가장 위기를 맞는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144]

2) 21 세기 선교지형의 변동

21 세기는 기독교가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중력이 이동하는 시대이며 기독교 인구가 서구에 비하여 비서구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특징은 세계 중심점이 이동되고 있다. 선교학자들은 21 세기에는 선교운동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이러한 예견에 부합하듯 21 세기가 들어서면서, 제 2/3 세계에 복음이 자리잡고 세계 각 나라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선교의 구심점이 제 2/3 세 계에는

---

[143] Bryant L. Myers, *Expiring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상황과 도전*, 한철호 역 (서울: 선교한국, 2004),12.

[144] 김동건,*21 세기 신학의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2-3.

초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일들과 함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145]

선교 운동의 유형이 오랫동안 서방교회 위주에서 전통적인 피선교지 교회들의 선교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선교시대 로부터 세계선교시대로 즉, 제 2/3 세계 교회선교시대로 선교의 중심이 이동 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20 세기 말이 되면 교회의 중심은 세계의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옮겨지며 이것은 북미 교회들에게 위협이라기보다는 150 년간 벌여온 선교의 열매인 것이다. Pasadena, Wheaton, Grand Rapids 로부터 선교의 중심부가 Mexico City, Seoul, Madras, 그리고 Nairobi 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146]

Samuel Kobia 는 '21 세기 에큐메니즘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New Vision and Challenges to Ecumenism in the 21st Century)에서 세계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147] 그에 의하면 기존의 선교를 주도해 온 서구 교회들이 세속주의 현상의 확대로 급격한 쇠퇴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선교를 더 이상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반면, 다른 지역, 과거의 선교지였던 비서구 지역에서는 오히려 교회 부흥과 선교에 대한 열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남반구에 속한 교회들, 특히

---

[145] David J. Hasselgrave, *Today's Choices for Tomorrow's Mission 현대선교의 도전과 전망*, 장로회신학대학 세계선교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121-5.

[146] Ibid, 128.

[147] Samuel Kobia, *The Courage to Hope: A Challenge for Churches in Africa* (South Africa: 2003), 189.

복음적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의 오순절 교회들의 성장은 21 세기의 새로운 교회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였다.[148]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할만한 내용을 Philip Jenkins 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였고, 따라서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면 서구교회를 지칭했다. 그러나 20 세기 말부터 2/3 세계권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반면에, 서구권은 인구 감소와 함께 기독교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기독교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중심의 남반부에 살고 있다. [149]

서구중심의 세계선교는 그 역량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은 선교역사에서 나타났던 경험과 선교회나 선교사들의 현장에서 나타 날 수 있는 학문적 성향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선교현장의 직접적 사역의 결과물들은 과거 피선교지였던 국가들 가운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선교가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 특히 선 교에 열정적인 나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150]

이처럼 기독교 선교는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제 2/3 세계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 2/3 세계 선교지도자들이 신학교, 선교단체, 선교

---

[148] S. Kobia, *New Vision and Challenges to Ecumenism in the 21st Century* (Rolf Koppe, 2004), 75.

[150] Phil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2002), 65.

기관, 선교포럼 등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21 세기 선교를 이끌어 가는 중심에 서 있다.

5. 선교의 전망

세계 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에는 단기 해외 선교계획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다.[151] 이것을 통하여 예비 선교사들은 선교사의 목표와 목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적응력, 기독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인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152]

그리고 비전문적인 선교사(Tentmakers)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직을 통해 생활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선교명령으로서 사회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자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토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피선교지의 자국민 교회들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선교사들이 교회지도자와 더불어 그들의 지도하에서 봉사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 배척을 요구하게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다.

151 한국일, "*21 세기 바람직한 선교*", *말씀과 교회* (서울:2008), 115.

152 박영환, "세계화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신학과 선교 (서울:2002), 156.

IV. 어린이 발달 이론과 영성교육

1.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

파울러의 이론에 따르면 신앙의 성장은 일평생을 통하여 일곱 번의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그는 이 신앙의 단계들을 다음과 같이 6 단계로 구분한다: 미분화된 신앙(0-2 세) , 그리고 그 후의 직관적-투사적 신앙, 신화적-문자적 신앙, 종합적-관습적 신앙, 개인적- 반성적 신앙, 접속적 신앙, 그리고 보편적 신앙의 단계로 구분한다.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은 '신앙' 을 다루는 신학과 '발달이론' 과 관련된 발달심리학이 교류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이는 그의 이론이 교차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153]

신학과 관련하여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과 가장 밀접한 입장은 David Tracy 가 주장한 "수정주의 신학" 모델이라고 하겠다. 이 모델은 기독교 전통과 인간 경험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둘 사이의 비판적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호비판적 방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3] James W. Fowler, *신앙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2.

첫째로, 기독교 전통과 현재의 상황과 도전이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통 신학이 보여주는 입장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보여주는 입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통 신학의 경우 기독교 전통, 적어도 성서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 성서만이 모든 학문적 입장의 규범이요 출발로서 다른 학문은 단지 신학의 목적을 위해서 시녀로 사용될 뿐이다.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에 지나치게 기울어짐으로써 기독교 전통에 대한 소홀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파울러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독교 전통과 현재의 상황은 둘 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이 둘의 관계는 상호 비판적 상호관계(mutually critical correlation)이다. 전통과 상황은 대화적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서가 당시의 상황과의 대화적 관계 가운데서 기록되었다면 오늘의 신학도 현재의 상황과 도전들과 대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신학적 노력은 항상 교회라는 프락시스(실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 신학의 본질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 본분으로 한다. 교회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의미를 재해석하며 개개의 영혼을 돌보고 치유한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뒷받침한다. [154]

---

[154] Tomas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3), 112.

이상의 관점에서 파울러는 한편으로는 Richard Niebuhr 로 대표되는 신학적 전통과 다른 한편으로는 Jean Piaget, Lawrence Kohlberg 와 같은 구조주의 발달심리학자와 사회심리학자 Erik Erikson 에게서 도움을 받으며, 이 두 원천(신학과 심리학)을 상호 비평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현대 심리학은 Browning 의 지적과도 같이 단순히 과학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며 이로 인해 신학과의 관계 정립이 필연적이 되었다. 즉, 현대 심리학은 설명적인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서 해석적 학문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제 심리학은 신앙의 현상에 대해 신학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입장을 갖게 된 것이다. [155]

1) 제 0 단계(영아기와 미분화된 신앙)

이 단계는 태어나서 네 살까지로 원천적 신앙(primal faith), 미분화된 신앙(Undifferentiated faith), 또는 단계 이전의 신앙(prestage)이라고 불리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직 신앙의 단계라고 부르기에는 이르며 오히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덕목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뢰나 불신, 희망과 좌절, 용기와 비겁 등은 비록 신앙과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장차 신앙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뜻이다. 먼저 미분화된 원초적 신앙의 경우 신앙의 방식은 “무의식”이라는 방식을 이용한다. 아직 언어나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의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신앙은 전달되고 체득된다. [156]

---

[155] David G. Myers, *심리학개론*, 신현정과 김비아 역 (서울:시그마프러스, 2009), 89.

[156] David R. Shaffer*, 발달심리학*, 송길연 역 *(*서울: Cengage Learning), 110.

파울러는 이 단계를 설명하면서 정신 분석학의 발견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프로이드처럼 결정적인 시기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으나 후일의 신앙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부여한다. 더구나 이때의 경험은 대부분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되므로 훗날 좀처럼 깨닫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 시기는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제공하는 사람(주로 어머니)과의 상호성의 관계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한다. 만일 주된 돌봄자로부터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불신과 절망과 같은 자질들이 인격의 밑바닥에 자리하게 된다.[157]

2) 제 1 단계(직관적 투사적 신앙, intuitive-projective faith)

네 살부터 일곱 살까지로 이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상력의 사용에 있다. 어린이들은 아직 환상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며 환상의 세계를 실재의 세계로 여기며 주로 자신의 감정을 사용하여 세상을 대한다. 따라서 아직 세상과 자신이 구분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자신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한다. 아직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방식이 아닌 감정적이고도 도덕적인 범주들이 사용된다. 즉, 사랑, 미움, 두려움, 선함, 악함 등의 감정들이 주로 선호된다. 특히 상상력의 사용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이 때 얻은 이미지들은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논리적인 가르침이 어떤 사물에 대한 뼈대와 부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상상력은

[157] Ibid, 36.

그 사물의 전체적 그림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비록 상상력이 그 표현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논리에 의한 지식 못지 않게 오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158]

이들의 신앙은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며 그들의 신앙적 행동, 태도, 본보기 등은 이들의 신앙 형성에 강력하고도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모가 여전히 가장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자기를 의식하는 시기로서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기적이 된다. 이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이기적이 아니라 아직까지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처음으로 성과 죽음을 의식하게 되며 자신이 속한 문화나 가정이 가진 금기사항(타부)도 깨닫게 된다. [159]

3) 제 2 단계(신화적-문자적 신앙, mythic-literal faith)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시기로서 많은 경우 청소년 시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성인들까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도 있다. 이 때 어린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야기나 신앙, 관습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는 소속감이 중요한 욕구이다. 이때는 피아제가 말하는 '구체적 사고'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경험을 순서적인 일렬의 사건으로 정리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

[158] H.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Harper Sanfrancisco: 1975), 35.

[159] 오노데라 아쓰코, *간단 명쾌한 발달심리학*, 전경아 역 (서울: 시그마북스, 2010), 75.

이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상호 공정성을 중시하는 도덕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화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의 사고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문화 인류학과 비교 종교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공동체가 궁극적인 실체를 기술하고 그 실체와의 관계에서 일상의 삶을 정의하는 설화"를 말한다.[160]

4) 제 3 단계(종합적-관습적 신앙, synthetic-conventional faith)

대개의 경우 청소년들의 개인의 경험이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장된다. 가정을 넘어서서 학교, 일터, 또래 집단, 거리, 대중매체 등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온다. 이제 다양한 집단을 경험함으로써 신앙은 정리되며 종합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논리적 사고의 성숙에 있는데,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신학적 개념들이 이해된다.[161]

이러한 사고의 성숙은 관점 채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느낌, 생각, 관점, 기대에 민감해지며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 정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러기에 이 시기의 신앙은 동조의 신앙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은 반성이나 선택, 또는 비판 없이 암시적으로 형성된 신앙이다.

---

[160] 황현주, *영유아 발달* (서울: 양서원, 2017), 102.

[161] 송성숙과 전명기, *청소년 교육론* (서울: 양서원, 2017), 34.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정체로서 이는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다. 어린이와 어른간의 전이적인 단계에서 오는 자기 혼란,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기 역할의 정체(identity)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자기의 경험 영역이 크게 확장됨으로 인해서 여러 환경에서 자신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경험하면서 이로 인해 괴로워 한다.[162] “왜 나는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을 가질까? 왜 나는 자신 있는 모습을 갖지 못할까?” 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이러한 관심에서 주위의 중요한 사람의 기대에 호응하려고 애쓴다. 아직 신앙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나 반성 없이 수용한다.

5) 제 4 단계(개인적-반성적 신앙, individuative-reflective faith)

대개 청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며 이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신앙의 성장에 관한 한 신앙의 거듭남이라 할 수 있다. 이전 단계까지의 신앙이 주위에 의지한 신앙이라면 4 단계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 또는 자주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다. 3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 문제로 인해 몸부림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에도 나타나서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은 반성이 일어나며 자주적인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이 나타난다.[163]

---

[162] D.K.Lapsley, *Character Psychology & Character Education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정창우 역 (서울: 인간사랑, 2008), 76.

[163]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서울: 바다출판사, 2016), 56.

그러나 이제는 남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을 가지려 한다. 청소년기까지의 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신앙이라기 보다는 남에게 또는 자기가 속한 기관에 의존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신앙이요, 주변 사람의 신앙이요, 교회의 신앙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스스로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반성하며 자주적인 결단에 의해 실존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164]

자신의 헌신, 삶의 스타일, 신념, 태도에 대한 책임을 심각히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깊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이 남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요, 자기 신앙의 공백 현상을 느끼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3 단계에 머물러 일평생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아직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단계인 만큼 지나치게 성숙한 사고나 신앙을 요구하는 교육 방법은 초기에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대화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신념, 신앙체계를 형성하려고 하기에 이건(Kieran Egan)은 이 단계를 "철학적 단계"라고 명명한다.[165]

이 단계를 신학화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신앙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신학적 체계를 갖추도록 도전하고 격려해야 한다. 어느 시기보다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상징들을 개념적인

---

[164] 김만형, *SS 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2001), 57.

[165] Kieran Egan, *An Imaginative Approch to Teaching* (Jossey-Bass, 2005), 35.

의미로 바꾸기에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의 단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단순히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그 개념적인 의미를 찾게 됨으로써 상징이 갖는 고유의 특성은 의미를 상실케 된다.

6) 제 5 단계(접속적 신앙, conjunctive faith)

대개 30 대 중반 내지는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 시기는 신앙의 내적인 성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삶의 갈등과 역설들이 포용되기 시작하며 이제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대화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자칫 이를 타협이라고 볼 수 있으나 타협이라기보다는 인정과 포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으며 다른 입장과 가능한 한 대화하려고 애쓴다.[166]

자신의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며,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넘어서서 관심의 폭이 넓어지며 삶의 좌절과 부정적 현실이 받아들여진다. 자신이 속한 집단(부족, 가문, 종교적인 소속, 국가 등)에 제한 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보인다. 성서적 공동체 형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들은 교회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한다. 이들이 갖는 개방성이나 포용성이 교회 자체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167]

---

[166] 김국환,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6), 72.

[167] Friedo Ricken, *종교철학*, 이종진 역 (서울: 하우, 2010), 38.

7) 제 6 단계(보편적 신앙, universal faith)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단계로서 파울러는 이 단계에 관한 설명을 주로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극히 발견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영원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며 온전히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사는 모습을 나타낸다.

파울러는 이 단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Bonhoffer, Martin Luther King, Mother Teresa, Gandi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들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신앙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은 별 의미가 없으며, 위의 예에서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포함된 것처럼 종교적인 차이까지도 중요하지 않다. 대신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선 또는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삶의 불편함(dis-ease)은 죽음에 이르는 병(sickness unto death)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건강에 이르는 병(sickness unto health)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을 말한다.[168]

2. 콜버그의 도덕 발달이론

1) 개념 정의

콜버그 도덕발달이론(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은 Lawrence Kohlberg 가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대학원생이었던 시절,

[168] Pillis Tyson, *정신분석적 발달이론 의 통합*, 박영숙 역 (서울: 산지니, 2013), 67.

스위스 심리학자 Jean Piaget 의 심리이론을 확장해 도덕발달의 설명에 적용한 것이다. 오늘날은 도덕발달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169]

피아제는 도덕적 사고(moral reasoning)와 도덕성(morality)은 단계를 나타내며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콜버그는 도덕성의 단계적 발달 개념을 가져와 도덕적 사고를 여섯 가지의 발달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론화하였다.

그는 개인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를 통해 도덕발달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와 같은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s)를 개발, 이를 피조사자에게 제시 후 면접방식으로 도덕발달 수준을 측정하였다. 도덕발달의 단계는 인식작용(cognitive functioning) 에 근거한 것으로, 단계에 따른 발전은 한 방향(unidirectional)으로 나가며,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의(justice)에 대한 사고는 복잡성 (complexity)이 증가하고 도덕적 시각은 더 그 폭이 넓어(inclusive) 진다. [170]

2) 도덕발달 6 단계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가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덕발달의 6 단계는 3 수준(levels), 6 단계(stages) 구조이고, 각 수준은

---

[169] 김진,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서울: UUP, 2013), 26.

[170] Lawrence Kohlberg,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레인보우북스, 2009), 37.

2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 1 단계는 복종(obedience), 2 단계는 이기심(selfinterest), 3 단계는 사회 규범에 순응(conformity), 4 단계는 법과 질서 (law and order), 5 단계는 인권(human rights), 6 단계 보편적 인간 윤리(universal human ethics)이다.

(1) 도덕적 수준 1(Level 1) - 관습 이전(Pre-Conventional).

이 수준의 도덕발달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성, 즉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습 이전 수준에서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가,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가, 옳고 그름 등을 생각하여 행동한다. 윤리적 행동의 기준은 무엇을 했을 때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인가, 상을 받을 것인가 등 어떤 결과가 내게 돌아올 것인가, 또 누가 규정을 만들고, 자신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하는가를 판단한다. 또 이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힘에 순종하면서 행동한다. 도덕적 사고는 아직 자신(self)에 제한된 것으로 사회 질서나 보편적 가치로 확대되지 않는다. 주로 어린이들이 이러한 수준을 보여준다. 도덕발달의 제 1 단계와 제 2 단계가 여기에 속한다. [171]

가. 제 1 단계 복종과 처벌 지향(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무엇이 도덕적 행동인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처벌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인가 여부에 의존한다.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그 행동은 보다 비도덕적인 것, 즉 해서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에 따른 물리적

[171] Ibid,36 .

결과가 무엇인가가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인가, 옳은 행동인가를 결정한다. 이 단계의 사람이 하는 도덕적 행동이나 노력은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자 애쓰는 것이다. 자신에게 벌을 주거나 칭찬을 하는 사람에 복종하고, 이의 제기를 알지 못한다. 어린이들의 도덕적 사고가 여기에 속한다. 사회 규칙을 만들고, 벌을 주거나 칭찬을 하는, 즉 어른들이 만든 도덕적 질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 제2단계 '이기주의 지향(self-interest orientation).

도덕적 사고의 기준은 무엇이 나를 위해 이익이 되는가이다. 도덕적인 것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을 해주는 행동이 도덕적인 것이다. 사람간의 관계는 好意 교환이고, 정의, 충성, 감사 등의 추상적 차원은 모른다. 다만 서로에게 도움이라는 현실적 인식이다.

(2) 도덕적 수준 2(Level 2) - 관습(Conventional).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가 기준은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이다. 사회 구성원은 사회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규범이 적절한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이다. 개인은 가족, 집단, 국가에 대한 기대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그 후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질서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며, 사회질서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고, 나아가 그것을 만드는 사람 및 집단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도덕적

사고의 발달은 청년과 어른들에서 나타난다. 제 3, 4 단계가 여기에 속한다.[172]

가. 제 3 단계 :서로간의 조화와 순응(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orientation).

사회적 규범이 도덕적 사고의 기준이다. 사람이 성장하여 자신의 역할을 사회로 확장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은 사회가 그러한 행동을 옳다고 보고, 수용하는가이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기대, 요구를 충족시켜 착한 사람, 즉 타인의 존경, 칭찬, 감사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발전시킨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행동이 좋은 행동, 옳은 행동이라는 도덕적 사고이다.

나. 제 4 단계 :권위와 사회 질서의 유지 지향(authority and social order maintaining orientation).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법과 사회질서이다. 권위, 규정, 사회적 질서의 유지 지향성이 지배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란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식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 3 단계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중요했고, 그것이 소속 집단으로부터 승인, 칭찬을 받는 것이었다면, 제 4 단계에서는 이제 사회가 개인의 욕구를 능가한다. 사람들은 사회질서의 유지, 사회의 중심적 생각이 무엇인가로부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인지를 판단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

---

[172] 김진, *콜버그의 도덕발달* (서울: 울산대학교출판부, 2008), 36.

(3) 도덕적 수준(Level 3) - 관습 후기(Post-Conventional).

후기 관습 수준에서는 개인은 도덕적 가치, 원칙을 스스로 정의하고자 노력한다. 생명, 자유, 정의 등의 기본적 인권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고, 이것을 사회의 일반적 시각보다 우위에 둔다. 사회의 규범과 질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면 불복종하고 나아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콜버그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도덕발달의 제 5 와 6 단계가 여기에 속한다.

가. 제 5 단계 사회계약 지향(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 권리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각각에 이들은 고유한 것으로 상호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률도 절대적은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회계약이라고 믿는다.

나. 제 6 단계 보편적 윤리 원칙(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도덕적 행동인가는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에 기초해 판단된다. 비록 법률이라도 정의, 기본적 인권에 합치할 때에만 유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은 불복종 의무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름의 원칙에 기초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콜버그는 이 단계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콜버그는 단계가 높을수록 보다 도덕적 행동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단계가 높을수록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의 발달을 의미한다. 사람의 도덕성은 도덕성 발달단계를 따라 점차

새로운 도덕적 시각을 추가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보다 낮은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드물다고 주장한다.

(4) 측정

콜버그는 도덕발달 수준의 측정을 위해 도덕판단인터뷰(Moral Judgement Interview)를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피조사자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한 후,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왜 그러한 행동이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지를 인터뷰 방식으로 물었다. 몇 가지 딜레마에 대하여 인터뷰하고는 점수를 계산하여 피조사자의 도덕발달 단계를 판단하였다. 딜레마에 대한 대답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고, 콜버그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딜레마를 사용하였다.

콜버그 도덕발달이론 설명에서 흔히 인용되는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도 그 중 하나로, 도덕발달 측정을 위해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인즈 딜레마(Heinz Steals the Drug)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 부인이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약은 라듐의 종류로 같은 도시에 사는 어떤 약제사가 최근 발견한 것이다. 약제사는 그 약은 제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며, 약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10 배의 가격을 요구했다. 약제사는 라듐을 사는데 2 백 달러를 지불하고 그 약의 1 회분에 대해서는 2 천 달러나 약값으로 요구했다. 아픈 부인의 남편인 하인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약 1 천 달러 밖에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 돈 갖고는 기껏해야 약 1 회분 사는데 들어갈 비용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는

약제사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후, 약을 자신에게 보다 싸게 팔고, 나중에 자신이 나머지를 갚으면 안 되겠는가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약사는 안됩니다. 나는 약을 발견했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인즈는 마침내 절망 상태에 빠졌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 약을 훔치기 위해 제약사의 상점을 부수고 침입했다. 하인즈는 아내에게 줄 약을 훔치기 위해 약제실을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라면 왜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이상이 하인즈 딜레마와 도덕발달 측정을 위한 질문이다.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도덕발달 측정에서 제 1 단계에 속하는 답은 하인즈가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하고, 그 이유를 약을 훔치면 감옥에 갈 것이고,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만일 하인즈가 약을 훔쳐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약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2 백 달러이고, 하인즈는 이미 그것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들어주었다면 어떤 것도 훔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이다.

제 6 단계에서는 만일 대답이 약을 훔쳐야 한다고 했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보다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약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그들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다.

도덕발달 단계에 대한 이러한 식의 측정은 응답자가 솔직하고 일관성 있는 인식을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응답자는 자신의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s)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있어서 높은 일관성,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덕발달 측정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콜버그의 도덕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에 착수한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974 년에 개발된 DIT1(Defining Issues Test)이다. Rest et al. (1999)은 이후 DIT1 을 개량해, 버전 DIT2 를 내놓는다. 이것은 초기의 DIT1 을 딜레마와 각 진술문 항목, 점수화 방법, 그리고 일관성 없이 질문에 대답하는 응답 사람들 솎아내는 방법이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개선한 것이었다.

3. 제롬 베리맨의 어린이 영성 교육

1) 어린이 영성교육

인지주의 심리학은 서구와 한국의 어린이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교육 이론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J. Piaget 의 인지발달이론은 R. Goldman, D. Elkind, J. Fowler, Fr. Oser 등과 같은 일련의 인지주의 종교심리학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 종교적 판단, 신학적 개념, 하나님 개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이론형성에 기여해왔다. 예컨대 골드만의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발달이론은, 어린이의 종교발달과정이 삐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의 틀과 일치하는 것에 주목하고,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는 아직 미성숙하므로

어린이의 종교교육은 어린이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게 되어야 하는 것을 핵심 입장으로 취하고 있다. [173]

이와같은 이론적 토대 위에 한국교회는 어린이의 종교적 미성숙성을 암묵적으로 공유해 왔고, 인지-언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적 앎의 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고 교육을 실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어린이교육계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영성(Children's spirituality) 연구는, 어린이가 종교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인지발달심리학의 어린이 종교성에 관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어린이를 영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종교적 사고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가 인지-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곧 종교적 영적 앎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비약이며 어린이의 종교성을 단순히 지적인 차원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은 어린이의 종교성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새로운 관점의 어린이교육을 제시해 주고 있다 [174]

2) 인지주의 어린이교육 비판

[173] Original Vision: *A Study of the Religious Experience of Childhood*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3), 69.

[174] David Hay, Rebecca Nye, and Roger Murphy, *Thinking about Childhood Spirituality:* Review of Research and Current Directions. in Research in Religious Education, 47-71.

어린이 영성연구는 어린이가 종교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발달심리학적 입장의 어린이 종교성에 관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어린이의 영성과 신앙에 접근하는 입장을 의미한다는[175]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1990 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흐름은 Edward Robinson 의 연구(1977 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76]

로빈슨의 연구는 인지중심적 어린이연구의 거센 흐름 속에서 어린이영성 연구를 수면위로 부상시켰던 연구이다. 로빈슨의 연구 이후 어린이영성연구는 David Hay, Rebecca Nye, Robert Coles, Roger Murphy 등으로 계속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영성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 연계하려는 노력들로 발전해 나갔다. 기독교 어린이영성 교육의 이론과 실천모델은 Jerome W. Berryman, Karen Marie Yust, Donald Ratcliff, Scottie May, Sonja M. Steward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련의 어린이 영성연구가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은 인지발달단계와 어린이의 인지성을 어린이 연구의 지반으로 삼고 있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177] 인지발달이론이 인간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거부하고 어린이의 종교성을 이성적 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

[175] 양금희, *기독교 유아 아동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1), 25.

[176] 고세진, *성경고고학의 창시자 에드워드로빈슨* (기독교사상, 2011 년 2 월호), 244-250.

[177] 김희자, *기독교 어린이 교육*(서울:대한에수교장로회총회,2003),56-87.

어린이 영성연구가들은 인지주의 이론의 인지성, 논리성, 언어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이해의 편협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의 구조성과 통제성을 지적하고,어린이교육의 영성적 관점에로의 방향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178]

3) 베리맨의 이론 배경

(1) 어린이 이해

가. 영성적 존재

베리맨은 어린이는 영성적 존재이며 어린이의 영성은 어린이의 인지 언어적 능력보다 시기적으로 우선되는 인간능력의 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다. 어린이 영성은 종교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이해 보다 시기적으로 우선되며 또한 어린이의 영적 경험은 언어 이전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님(the Church God) 과 하나님(God) 의 차이점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어린이는 교회교육을 통해 습득된 교회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소위 이름 없는 권능자 (The Power without name)의 현존에 대한 심오한 경험을 한다고 본다. 어린이가 소속된 종교문화 환경을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즉 교회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근원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린이는 이러한 경험을 표출하고

[178] J. Francis, W. K. Kay, and W.S. Capbell. *Herefordshire*: Gracewing Fowler Wright Books Georgia: Smyth and Helwys Publishing, 1996.

표현하기에는 그들의 언어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지주의적인 공교육에 의하여 이러한 경험을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가 경험하는 근원적 하나님이 곧 교회의 하나님되심을 가르쳐야 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종교적 경험을 표출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실존적 한계를 경험하는 존재

베리맨의 어린이 교육론은, 어린이는 실존적 한계를 경험하는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임상경험을 통해 어린이도 죽음, 질병, 삶의 의미, 자유의 위협 등 실존적 한계에 직면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신비한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가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재 처한 자신의 문제 상황을 넘어서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즉 어린이의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스러운 인식을 통해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평안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실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벗어나 초월의 영역으로 뻗어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초월적인 하나님 경험은 어린이가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어린이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스러운 인식을 통해 어린이의 실

존적 불안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79] 어린이 교육이 어린이가 느끼는 실존적 한계를 간과하고 어린이는 항상 행복하다고 오해하는 것은 어린이의 영적 성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종교교육은 성경이나 교리적 지식의 전달, 기독교적 가치관과 태도 함양 등과 같은 국지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상상력 혹은 상상적 모호성을 지닌 존재 베리맨는 그의 Godly Play 의 부제를 종교 교육의 상상적 접근 이라고 명명할 만큼 상상력을 어린이 영성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 상상력은 인간구조의 모호성으로부터 기인되는 인간(어린이)의 존재방식이다. 인간구조의 모호성은 인간이 영과 흙의 불안정한 혼합체이며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결합체이며 땅과 하늘, 흙과 영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신 역설적 사건임을 주목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상상적 모호성이 극대화된 사건이라고 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상상력 혹은 상상적 모호성에 걸맞게 기획된 사건인 것이며, 그 만큼이나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 존재 자체를 표현한 것이며 인간 본성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이다. 베리맨은

[179] Maria Montessori,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 (서울: 미루나무, 1993), 97.

인간의 상상력이 인간 존재 자체를 표현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80]

> 상상력의 모호성은 우리 존재의 뿌리에 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방식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에덴 이후 인간의 운명이다. … 삶 자체는 상상력에 의한 행위인 창조적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는 역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의 존재 방식인 것이다. 인간의 존재방식인 상상력은 어린이의 삶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며 또한 어린이영성교육의 교수학습과정에 필수적 인식방식이다.
>
> 상상력을 통해 어린이는 무한한 삶의 의미에 열려지게 되고 변화를 창조하고 고정된 기존상태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된다. 상상력은 어린이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양상을 모두 포함하는 통로이며, 그리고 기억 속에 저장된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따라서 그 동안의 어린이교육 이 어린이의 인지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어린이의 상상력을 종교교육 수업활동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과정의 중심으로 승격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인식론; 종교적 앎 (지식)의 독특성

베리맨는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앎 (지식)은 여타의 다른 교육 혹은 다른 분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앎의 양식인 종교적 앎의 양식이 있음을 주목하고, 오늘의 기독교교육이 인지적 앎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종교적 지식 (앎)을 위한 앎의 방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80] Jerome W. Berryman, *가들리 플레이*, 양금희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102-156.

인지발달심리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의 인식론적 오류에 대한 그의 비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린이의 독특한 앎의 방식인 감각적 유추 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앎의 차원에 대한 범주오류 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감각적 유추

베리맨은 오늘날 어린이교육은 주로 인지발달주의에 이론적 토대를 삼고 있음으로 인해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앎의 양식인 감각적 유추(sensorial analogy)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골드만이 주목한 어린이의 사고능력은 소위 의식적 유추(conscious analogy) 라고 지칭되는 인지논리적 사고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내재된 앎의 근본적인 형태인 감각적 유추 능력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의식적 유추가 자연세계와 관련된 차원으로서 측정가능하고 언어적이고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것이라면, 감각적 유추는 의식적 유추와 구별된 또 다른 종류의 앎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앎의 능력의 한 측면이며 종교적 삶과 영적 탐구를 위한 강력한 비언어적 능력인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으로는 보증할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며, 비언어적 차원으로 존재하는 앎의 양식이자, 감각적, 신비적, 초월적, 직관적, 상상적 앎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81]

이렇게 볼 때 감각적 유추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기독교 어린이교육과 깊이 연관되어있는 앎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종교)는 본질적으로

[181] 김승태, *생각의 탄생* (서울: 세인트 원, 2016), 23.

신비함, 신성함, 불가사의함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감각적 유추의 앎의 양식은 인간의 신비와 경외와 감탄의 경험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과 만나도록 조력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이 종교의 신비적, 초월적, 직관적 차원을 담지하고 있는 감각적 유추의 앎의 양식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면, 종교적 앎의 양식과 종교적 경험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베리맨은 언어적, 인지적, 분석적인 형태의 의식적 유추 라는 전통적인 앎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린이들은 또 다른 종류의 인식방식인 감각적 유추라는 종교적 인식능력을 소유 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

나. 앎의 차원과 신앙 인지주의

어린이교육에 대한 베리맨의 인식론적인 비판의 또 다른 관점은 앎의 차원에 대한 범주오류에 관한 것이다. 그는 신앙과 신앙 발달에 대한 이해는 파울러의 전유물이 아님을 단언하면서, 앎의 차원과 관련된 새로운 견지의 신앙이해와 신앙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신앙 교육은 신앙 이라는 독특성에 근거한 앎의 형태를 소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앎의 세 차원을 통한 신앙 이해을 제안하고 있다. [182]

종교교육의 핵심인 신앙은 정신적 앎의 형태를 넘어서서 영적 앎의 형태까지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앙교육은 정신적 차원이나 혹은 감각적 차원을 넘어 서는 영적 세계의 논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적 이론에 대하여 참 거짓을 증명하는 방식인 두 번째 논리로는 신앙 혹은

[182] Robert S. Ellwood, *신비주의와 종교*, 서창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41.

종교를 논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자연세계를 측량하는 방식인 감각의 논리로는 정신과 영에 의한 세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적 논리는 정신과 감각을 사용하고 측정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으나, 신앙교육의 핵심인 영의 실재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신과 이성은 실험가능하고 감각에 의지하는 자연세계를 설명할 수 있 지만,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의미는 영의 영역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어린이에게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종교에 관해 논하는 방식인 신앙발달론적 관점은 어린이를 신앙의 언어로 초대하지 못한다. 즉 정신적 차원, 감각적 차원에 머무른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영의 차원으로 초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는 여타의 자연세계의 언어와 다른, 신앙의 언어 혹은 종교의 언어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 혹은 신앙교육의 앎의 형태는 정신이나 감각의 영역을 위한 앎이 아니라 영적 앎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183]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면서 베리맨은, 삐아제의 인지이론에 의존한 파울러의 신앙이해는 앎의 차원에 있어 범주오류(category mistake) 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 삐아제와 파울러의 형식적 조작단계 즉 변증법적이고 종합적 사고능력의 단계는 리챠드에게 있어서 정신(mind)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인지이론가들의 오류는 물질세계에 관한 과학적 언어로 종교를

---

[183] 김희자, *기독교 어린이 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53.

논하고 있는 것이며, 이성보다 상위의 차원인 신앙을 이성과 과학적 논리로 담론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교수론; 종교교수의 독특성

가. 종교적 언어

베리맨은 종교교육으로 하여금 종교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종교적 언어(religious language)를 사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종교적 언어란 하나님, 자아, 타자, 자연의 전체 연결망(network)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언어로서, 이것은 신비(mystery)의 언어이며 감탄(exclamation)의 언어이며 와우(Wow!)의 언어이다. 종교적 언어는 어린이의 존재와 삶의 귀퉁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종교적 행위들, 상징들, 이야기들, 비유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놀도록 초청하는 언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궁극적 지점에서 소통되는 언어는 과학, 윤리, 법 등 이 세상의 어떤 분야의 언어와도 구별되는 종교적 언어라는 것이다.[184] 어린이는 일상생활 가운데 죽음, 자유의 위협, 의미에 대한 욕구, 외로움 등 실존적 한계를 느끼는 존재이며, 그리고 삶의 최극단의 지점에서 어린이의 실존적 문제의 중심을 관통하게 되는데, 어린이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은 바로 종교적 언어의 세계라고 한다. 종교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린이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

[184] Brother Lawrence, *하나님의 임재연습*, 오현미 역 (서울: 좋은 씨앗, 2008), 39.

습득하게 하고 종교적 언어의 세계에 머물며 그들의 실존적 문제가 만져지고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

나. 어린이에 대한 종교교수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이로 하여금 종교적 언어의 세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침묵, 비유, 이야기, 예배라는 교수방법을 통해 가능해 진다고 본다. 이것은 어린이의 종교경험의 독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베리맨은 아래의 이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교경험의 층은 중간핵심(침묵)과 4 개의 층으로 된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층은 종교적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말이 없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감탄의 층이다. 두 번째 층은 첫 번째 층보다 더 언어적 층으로서 이것은 종교적 경험 그 자체로 깊이 참여시키는 언어인 예배, 성스런 이야기, 비유의 층이다. 세 번째 층은 잠언, 도덕적 표현들, 예식을 통해 경험되며 한층 더 언어적이고 추상적 단계이다. 바깥의 층인 신학은 체계적인 언어적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단계이다.

< 종교 경험의 층 >

결국 동심원이 중앙에 가까울수록 실제적 종교경험에 가깝고 중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종교 경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종교 경험의 층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이는 본질상 종교 경험의 내부의 층, 즉 비언어적인 신비의 층에 거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 베리맨은 어린이는 발달단계상 언어적 능력에 제한되어 있음으로 더 근원적인 내부 층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본질상 종교 경험의 내부의 층, 즉 비언어적인 신비의 층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성인들은 중간핵심(침묵)과 4 개의 층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순환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때때로 언어와 경험의 차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 한계를 지닌 어린이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들이 존재하는 곳, 즉 내부의 층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외부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발달단계상 내부의 층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린이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이 예배, 이야기, 비유,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 형태를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베리맨은 종교경험의 내부의 층, 즉 비언어적인 신비의 층에 거하는 존재인 어린이에게 적합한 신앙교육의 방법은, 보다 더 내부 층에 근거한 종교적 경험으로 이끌 수 있는 침묵, 예배, 성스런 이야기, 비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 놀이

베리맨은 어린이 영성교육 프로그램을 Godly Play 라고 명명할 만큼 놀이는 종교 교육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놀이는 인간 생존 에너지를 상승시킬 만큼 인간 활동의 필수적 요소이자 심오한 재창조의 과정이며 인간의 성숙을 지원하는 생명의 행위이며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놀이가 삶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창조적 놀이는 아니다. 베리맨은 이것을 놀이와 가짜놀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짜놀이는 놀이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됨으로 인해 놀이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목적 이상을 성취하려는 파괴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짜놀이는 가장된 관계성, 파괴, 고갈의 속성을 지니며 자아, 타자, 자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다. 가짜놀이는 공허하며 자신의 생명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며 공격적이며, 가짜놀이자는 물질적인 것을 목표로 영광, 명예, 돈을 위한 행동을 한다. 베리맨은 실제 종교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괴성을 지닌 가짜놀이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교육이 언어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종교교육의 비언어적 영역을 간과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짜놀이의 한 형태가 된다고 한다. 또한 종교교육이 강요, 오락, 조작, 경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강요, 오락, 조작, 경쟁의 형태를 띤 종교 교육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짜놀이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냉소적 표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언어적 파괴성을

번드레한 언어적 놀이로 변장하여 숨기는 것 등은 실제 종교교육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가짜놀이의 행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창조성을 지닌 놀이는 즐겁고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며, 창조성, 언어학습, 사회규칙학습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창조성을 지닌 놀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놀이는, 다음에 소개될 Godly Play 라고 한다. 가들레 플레이는 고차원적인 재창조의 과정으로 들어가 심오한 즐거움과 깊은 정체성을 발견하고, 실존적 문제를 해결 극복하는 생명의 행위가 되어야 하며 창조주와의 소통 가운데 있는 창조적 과정 속에서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케 하는 신적놀이라고 말하고 있다.

(4) 어린이영성교육의 실제: Godly Play

Godly Play 는, 제롬 베리맨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체계 위에 Maria Montessori 와 Sophia Cavalletti 의 교육원리를 바탕으로 상상력과 놀이의 형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경험하도록 창안된 어린이 영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성경을 단순히 객관적 지식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라는 자발적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가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그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생생하게 재현하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은 어린이를 성경의 세계로 초대하여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게 하며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가. 교육환경

Godley Play 에서는, 성경이야기가 생생하고 감각적 통로로 재현되 기 위해서 준비된 교육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물리적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성인은 언어(글씨)로 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인지적, 언어적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체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글씨가 아닌 다른 감각적 자료(교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어린이에게는 온몸으로, 전(全)감각으로 성경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장(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들리 플레이의 장(場)인데, 가들리 플레이의 장은 어린이가 성경의 이야기와 만나고, 그 안에 머물며, 반복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의 생애와 성서의 비유 등과 같은 감각적 자료(교구)들이 준비된 공간이다. 어린이가 가들리 플레이의 장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지방을 넘어오는 행위는 일상의 공간을 떠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 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공간으로 된 성경 안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교육 환경이다. Godley Play 는 성경에 관해 배우고 인지하는 앎이 아니라, 어린이가 성경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조용하고, 느리고, 구별된 환경을 필요로 한다. 깊은 침묵의 안정감 가운데 수업이 진행되며 어린이의 감각, 상상력, 감성을 통로로 감탄과 경이감의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Godley Play 는 비지시적이고 정적이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진다.

나. 교육내용 및 방법

가들리 플레이는 성스러운 이야기, 비유, 예배, 침묵이 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이 된다. 어린이는 이야기 교사를 통해 비유, 성스러운 이야기, 침묵, 예배적 활동을 배우게 된다. 가들리 플레이는 두 명의 교사, 즉 이야기 교사와 문지기 교사가 있다. 이야기 교사는 비유, 성스러운 이야기, 예배 등을 가르칠 때, 개념적 설명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성스러운 언어를 통해 어린이를 상상 속으로 인도한다. 그 다음 어린이는 개인 활동을 통해 교사로부터 배운 내용을 자신의 활동(놀이)으로 재구성하고, 비유, 성스런 이야기, 침묵, 예배적 활동을 재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

V. 포스트모던 시대와 가족변화

1.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가치의 해체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가정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와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가정의 갈등과 이혼의 급증, 가정의 해체로 인한 자녀들의 탈선, 결혼과 출산 기피, 자유 동거의 확산 등등 가정의 존속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185] 이러한 가정의 해체는 오늘날 어린이에게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어린이로 하여금 극도의 개인주의를 낳게 만들었다.

오늘날 어린이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극복되어져야 하며, 이 시기에는 남을 배려하는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남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오늘날의 어린이에게 교회는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도록 할 수 있어야하며, 신앙교육의 형태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교회학교를 필요로 한다.

[185] 김욱동, *포스트모던이즘의 이해* (서울:문학과 지성사,1990),83-98.

아이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윗 문단의 내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싶지만 극도의 개인주의는 오히려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때문에 민족적 주체의식과 뿌리를 알고, 신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교육방법이 신앙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어린이에게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2. 포스트모던의 이해

21 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의 사회는 거센 파도와 같은 새로운 사상의 도전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조이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이후 수백 년을 지배했던 근대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후기근대, 또는 탈근대라고 불리우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된 것이다.[186]

포스트모던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스페인 작가 Federico de Onis 가 예술 분야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약간의 반발 경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187]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수 십년이 지난 1970 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이 때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과 건축 분야를 넘어서 인문과학의 각 분야로 확산되었다.

---

[186]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285.

[187] Frederico de Onis,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 , 1934.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던 풍조는 문예 사조나 철학 사상을 넘어서 대중문화에까지 깊이 침투되었다. 이제는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서구 세계를 통하여 세계 전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188] 특히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형성해 가는 어린이 시기에 주어진 환경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린이의 사고와 감각을 형성해 가며 다음 시대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관점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21 세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후의 시대사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면서 근대주의의 사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상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앞에 '이후'를 의미하는 'Post'라는 라틴어를 삽입함으로써, 근대 3 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산업혁명, 프랑스혁명을 통해 표출된 계몽주의 사상에 종식을 고하는 '이즘'이다.[189]

'Post'라는 접두어는 문자 그대로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시대 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이전의 모더니즘과 완전한 단절이요, 이탈 즉 '탈근대화'라고 보기보다는 모더니즘의 기본입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188] 이문균, *포스트모던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3-24.

[189] 박상진,*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86.

동시에 모더니즘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190]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기본 이념을 축약하고 있는 근대 계몽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즉 데카르트 이후 오늘날까지 서양사상의 주된 흐름을 규정해 온 근대성의 시대정신인 이성적 주체관, 그 같은 주체와 대립되면서 주체의 인식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 실재,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역사의 진행과정이 진보성을 띤다고 하는 첨예한 역사 의식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근대성의 시대정신은 이제 더 이상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부적절하며, 근대성 자체에서 배재된 부작용과 모순을 척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근대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서구사회에서 포스트 분석철학, 신실용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탈근대성의 모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191]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은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데카르트 이후 서구사회의 철학사조들이 추구해 온 지식과 존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증명하는 절대적 근거의 탐색은 이 시대에 있어 더 이상 무의미하다.

---

[190]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56-57.

[191] Michael W. Goheen, *세계관은 이야기다,* 윤종석 역 (서울: IVP, 2014), 48-79.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스트인 푸코는 이성의 중심인 자아에 대한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서양 고대,중세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핵인 이성중심주의가 생성되어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관념의 보편적 타당성을 부정하였다.[192] 푸코에 따르면 이성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한 것은 근대의 특유한 구조화된 강제력인 권력-지식 연계의 생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대성의 중심적 시대정신인 이성 중심주의는 다른 담론체계를 비정상적인 것 또는 열등한 것으로 억압하는 하나의 특수한 담론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바탕으로 형성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는 탈 정전화 또는 탈 중심화, 자아나 주관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 핵심적인 예술장치로서 패러디의 사용, 행위와 참여의 중심, 임의성과 우연성 그리고 유희성, 전통적 계급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 탈장르화의 확산, 자기 반영성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93]

(2)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관점

모더니즘의 극복을 주장하는 철학 사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상 체계이므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는

---

[192] Michel Foucault, *Madness Civilization* (Toronto Canada: 1965), 35.

[193] 곽덕영와 양승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아교육* (서울: 양지사, 2000), 113-14.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볼 때에 모더니즘의 연장선상 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모더니즘과의 단절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어떤 사상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관점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194]

첫째로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이다. 사고하고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확신은 현대 세계를 출현시킨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세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자아에 대한 근본 확신을 문제 삼는다. 자아는 세계를 초월한 주체로서 세계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인식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자아는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중세기에 유지되었던 신의 존재와 권위에 대한 비판이 현대 세계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듯이 자아에 대한 현대의 확신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모던 세계의 출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195]

둘째로 객관적인 세계상의 몰락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이후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상에 대한 관점을 거부한다. 객관적인 세계상을 거부하는 것은 곧 세계에 대한 진리와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따라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세계에

---

[194] 이문균, *포스트모던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73.

[195] ibid,75-77.

대하여 객관주의적인 전망을 가질 수는 없고 다만 해석하는 자로서 세계에 대하여 전망할 수 있을 뿐이다.[196]

객관주의적 관점은 다른 말로 상응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진리란 객관적인 세계와 우리의 주장이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몽주의 이후 현대 세계는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 확대되어 왔던 이론이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그러한 진리에 대한 관점을 거부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상황에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실재, 모든 인간의 관심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단일한 세계란 없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 각기 자신들이 경험한 세계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며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197]

셋째로, 웅대한 이야기를 거절한다. 현대 세계는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의 가능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건설되었다.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의 가능성은 인식의 주체인 자아의 자율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 세계에 깃들여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에 대한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러한 확신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

[196] Michael Alsford, *The Atonement and the Post-Modern Deconstruction of the Self in Atonement Today*, ed. John Goldingay(London : SPCK, 1995), 40.

[197]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79-80.

판정하고 뒷받침해 주는 보편성을 담지한 웅대한 이야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198]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웅대한 이야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현대의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이야기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웅대한 이야기에 대한 불신은 지금까지 표준으로 여겨져 온갖 주장이나 가치가 사실은 지식과 힘의 행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계층이나 집단의 관점이었음을 자각하게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서양, 백인, 남성, 기독교의 관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 동성연애자들의 투쟁,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운동, 환경운동, 포스트 식민주의 등은 직접, 간접으로 웅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넷째, 과학의 일방성 거부이다. 현대 세계가 신뢰하는 웅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관점은 그 밑바닥에 과학의 일방성에 대한 거부의 뜻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Lyotard 의 분석에 의하면 일사 분란한 통일성 있는 탐구의 시대는 끝나버렸으며 2 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웅대한 이야기는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학의 파탄은 연구의 목표를 바꾸어 놓았다.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과학적인 지식의 탐구에 참여함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

[198] Margaret Archer, *The Treaty of Postmodernism in Christian Theology*,73.

삼기 보다는 연구 수행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199] 연구를 지원하는 재정 후원자나 단체가 갖고 있는 일차적인 목적은 지식의 확대나 인류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증대시키려는 데 있다. 이제 사람들은 진리를 문제삼기보다 그것이 무엇에 유용한가를 문제 삼는다. "그것이 잘 팔리겠는가? 효율성과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200]

다섯째로 진리의 부정이다. 진리의 부정이란 표현은 앞에서 네 가지로 정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현대는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세계를 건설하였다.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확신, 객관적 세계상에 대한 확신, 인간은 그 대상에 상응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해 낼 수 있다는 인간의 정신과 언어의 능력에 대한 확산, 그리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정밀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합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 등은 모두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뒷받침하고 확대해 나가는 근거가 되었다.[201]

위에서 논의했듯이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자아에 대한 확신, 객관적 세계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리를 표현해 내는 언어의 능력에 대한 확신 등을 근원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진리의 객관성과 가능성, 그리고 진리의

[199] Jean-Francoia Lyotard, *포스트모던의 조건*, 이세진 역 (서울: 민음사, 1992), 37.

[200] ibid,80-82.

[201] Stanley J.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Eefdmans, 1996), 167-74.

객관적 표현 가능성은 근거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는 진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포스트 진리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202]

이처럼 진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게 된 것은 철학적인 성찰을 통한 논리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구 세계가 겪은 현대 문명의 어두운 면에 대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나치즘의 경험이 진리에 대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도를 갈라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나치즘은 모더니즘의 관점을 철저히 이어받은 체계요, 모더니즘이 산출한 체계였음을 지적하면서 서구 사람들은 나치즘을 겪은 다음 현대 세계가 추구하고 발전시킨 결과에 대하여 회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지식 혹은 진리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나치즘을 비롯하여 현대 문명이 직면한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경험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로 하여금 진리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의 상대성을 넘어서 진리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도 없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203]

3. 포스트모더니즘과 어린이

1) 현대 사회 속의 어린이

---

[202]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12-130.

[203] John D. Caputo,*포스트모던 시대의 철학과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59.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은 생활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 동안은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종적 관계에서 학교 중심의 횡적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으로 변화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점이다. 어린 시기의 사회성 발달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식에 의하여 소속감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형성하게 된다.[204]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은 자아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부모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이웃 성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며 이런 자아 개념을 기초로 타인을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인식하게 된다.[205]

아동기의 어린이가 자기 것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자기만 최고라는 여기는 점을 보고 이기적인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직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어린이들의 성향을

---

[204] 오인탁, *기독교교육학개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202.

[205] I.V.Cully, *Children in the Church,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 교육,* 서광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72.

타인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206]

이 시기의 어린이들의 발달 과제는 또래 어린이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행동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또래 어린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발달 특징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기 어린이들에게 그들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들에게 같은 또래의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기 아이들은 가르침과 칭찬을 통해서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어 갖고 양보하는 것을 배울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는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며 타인을 수용하고 용납하도록 이끌면서 바람직한 교육을 해야할 것이다.

특별히 아동기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속감의 증대이다. 즉 이들은 한 개인의 차원으로서의 자신이 아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행동하며 그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207]

---

[206] 박지영, *아동기 어린이의 발달특징에 근거한 교회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전주: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교육학 박사논문, 2006),26-27.

[207] Francis P. McHugh and Samuel M. Natale ed. Things Old and New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33), 405-15.

이 시기의 교육 형태는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웨스터호프는 아동기의 신앙의 형태를 귀속적 신앙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면 마음으로부터 소속된 자답게 참여하고 있다고 느낌과 동시에 그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닮아감으로써 신앙을 형성해 간다고 보았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 주어서 아이들의 신앙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208]

2)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N 세대

현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세대별로 보았을 때에 현재의 아동은 N 세대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이들은 Net 로 연결된 세대이다. 이들은 컴퓨터, 비디오 게임, CD-RO 과 같은 디지털 비디오를 가지고 오락, 학습, 의사소통, 쇼핑, 친교를 하며 사는 세대이다. 이 전 세대인 X 세대보다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숙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다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세대이다. [209]

(1) N 세대의 등장

N 세대는 77 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 인지능력이 생길 때부터 컴퓨터와 친숙한 세대를 말한다. 정보화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N 세대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

[208] John H. Westerhoff,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 김일환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99.

[209] 김도일, *현대 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사상* (서울: 동연출판사, 2010), 134.

Net Generation 이나 Digital Kids 등으로 불리우는 N 세대는 X 세대와 흡사한 점이 많지만 N 세대와 X 세대의 제일 확실한 차이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술력이다. X 세대 역시 컴퓨터 중심의 문화세대인 점은 틀림없으나, N 세대에 비해 사이버공간 활용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N 세대는 '접속'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세대인 만큼 PC 와 휴대폰이 필수품이다. 이 두 가지는 N 세대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 세계 어디든 마음 먹은대로 오가며 정보를 주고받는 N 세대는 오직 인간성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포괄성, 학력보다 실력을 중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이라면 즉시로 친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채 X 세대와 달리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컴퓨터를 조립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른다.[210]

(2) N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N Generation, N-genders, Net Generation, Digital Kids 등으로 사용되는 N Generation 은 컴퓨터, 비디오게임, CD-ROM 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를 가지고 오락, 학습, 의사소통, 쇼핑, 친교 등 거의 모든 것을 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놀고, 공부하며, 작업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 세대가 오늘날 우리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0] 신상언, *N 세대를 위한 열가지 교육전략* (서울: 낮은울타리 미디어 사업본부, 1998), 107-110.

과거엔 신문이나 TV 를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젠 광대한 네트 워크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211]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채팅 및 인터넷에의 중독, 사이버섹스, 폭력, 음란물에의 노출, 가상과 현실세계간의 혼돈, 권위나 기존제도의 부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N 세대는 이처럼 현실도피나 혼돈적 이상 등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미래 지향적이며, 실력 중시, 강한 탐구심 등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의 부정적 의미만 확대 경고할 게 아니라 변화의 세기를 가치있게 주도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3) N 세대의 특징

디지털 문화와 함께 자라는 세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외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집단으로, 강한 독립성과 감성적이며 지적 개방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외모나 피부색깔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표현, 확실한 소신, 혁신적 태도, 탐구정신, 즉각적인 반응, 공동 관심사에 대한 민감성, 디지털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과 신뢰의 자세, 인터넷을 통해 또래 집단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통용하는 상징을 쓰고 글만이 아닌 모든 사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익숙하게 쓰고 있다. 문어체와

---

[211] Peter V. Zima, *모던 포스트모던*,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0), 78-94.

구어체의 구분이 없으며 은어 사용, 약어 사용한다. 즉 이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대, 굉장한 호기심을 가진 세대, 자신감과 자립심이 가득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3)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린이에게 끼친 영향

(1) 감성주의

모던사회의 이성중심 문화가 퇴보하고 느낌이 주를 이루는 영상 문화의 발달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은 감성중심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영상기술의 발달,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 나아가 영상매체의 발달은 요즘 어린이들에게 들은 것, 읽은 것에서 보는 문화쪽으로 아예 그 취향을 굳혀가고 있다. [212]

결국 말초 신경만을 자극하게 되는 감성주의는 충격의 일상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21 세기가 개인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인간은 마음 먹은 대로 즐기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가 이성적인 감동보다는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날로 번져가는 마약과 성 개방 풍토, 번지 점프와 같은 초극단의 스포츠가 유행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자극적이면서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옳고 그름의 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본능적인 쾌락의 추구는 매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212] Ivy Beckwith, *포스트모던시대의 어린이사역*, 최형걸 역 (경기도: 도서출판대서, 2010), 36.

(2) 해체주의-무너지는 가정

미국에서 지난 1940 년대 결혼한 가정의 이혼률이 14%에 불과하던 것이 60 년대 말에서 70 년대 초에 결혼한 가정의 이혼률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이제 는 3 분의 2 에 달하는 가정이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이혼에 확대됨에 따라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젊은세대 가운데에서 독신을 원하는 수가 늘고 있다. 또 부모들의 실패한 결혼으로 인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213]

미국의 어린이의 3 분의 1 이 결손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중 20%는 편모와 미혼모, 25%는 의모나 의부와 함께 지내고 있다. 이들 결손 가정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정상 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린이들보다 배 이상 높으며 특히, 미혼모 자녀의 경우 30 배가 넘는다는 것이 미 경찰당국의 통계라고 한다.

포스트모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와 컴퓨터 멀티미디어 혁명은 한 가족끼리도 서로 다른 방에 갇히게 해 전과 같이 끈끈한 애정과 따뜻한 사랑에 찬시 선을 나누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21 세기를 살아갈 어린이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214]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과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영상매체의 발달에 의한 감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

[213] 김무현,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 직장 문화 구하기* (서울: 말씀과만남, 2007), 57.

[214] ibid,110-112.

사고인 해체주의에 의한 가정의 파괴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서로 어우러져 가는 것들을 배워가야 할 때인 어린이의 시기에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가정의 파괴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이들을 내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에 공통의 관심과 연결고리를 가진 공동체 속에서의 교육은 현 시대의 어린이에게 매우 절실하다.

4. 오늘날 가족 변화 - 포스트모던 가족

1) 포스트모던 가족의 개념

하나의 가족모형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근대 핵가족에 반해 포스트모던의 가족모형은 다원주의적이고 탈제도화를 지향한다. 또한 성별 분업과 가부장주의에 근거한 근대 핵가족의 가족 관계를 지양하고 자유롭고 평등화된 개별가족 성원간의 느슨한 연대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의 억압적 가족 관계에서 탈피하는 것을 지지한다. [215]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가족모형의 가치는 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대한 탈 규제화와 취약 가족 성원의 인권보장, 탈 성별 분업적 가족정책으로 요약되는 20 세기 후반부의 서구 가족법 및 가족정책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관해 논의할 때 서구에서 학자 Hoffmann-Nowotny, H radil, Luescher, Shorter, Stacey 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215] 박숙자, *가족과 성의 사회학* (경기도: 나남출판사, 2007), 185.

가족과 관련한 포스트모던의 논쟁이 “가족생활의 다양성”이라는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216]

특히 “급진적 다양성(radical plurality)”이라는 특징은 포스트모던의 중심적 사고를 이루고 있다. 서구 산업 국가에서 포스트모던에 관한 연구는 이미 30 여년 전에 문학, 건축, 예술, 사회 및 정치 분야에서 활발히 다루어져온 분야이다.

포스트모던의 개념이 현대 사회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중할 것인가에 대한 가족 분야에서의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처음 시도한 Shorter 는 “근대가족의 형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가족의 포스트모던화 현상을 첫째가 부모의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 상실이고 둘째는 부부관계의 불안정화, 셋째는 둥지로서의 가정의 해체로 들고 있다.[217]

Shorter 는 또 다른 그의 연구에서 인간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설명하는 중심 사고로서 “관계(relation)”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가족에 관련된 인구학적 변화를 포스트모던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218]

---

[216] ibid,38.

[217] David Elkins, *변화하는 가족*, 이동원과 김모란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99), 54.

[218] Edward Shorter, *근대 가족의 형성*, 1999.

"지난 300 여년간에 걸친 가족의 변화는 오랜 역사적 과도기를 거쳐왔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 첫번째 과도기는 18 세기 또는 그 이전의 '전통가족'에서 19 세기와 20 세기 초의 '근대가족' 으로의 변화이다. 두번째 과도기는 1960 년대 이후로 '근대가족'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기이다. 1975 년에 처음으로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해 기술했을 때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었으며, 개념들이 미발달된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 포스트모던 가족은 너무도 자명한 현실이 되었다".

Hradil 도 포스트모던 연구를 전통과 근대 그리고 포스트모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포스트모던'을 파악하려면 우선 '모던'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흐라딜은 모던이 정신적으로는 르네상스와 더불어 16 세기에 시작되었고, 정치적으로는 18 세기 계몽주의를 통해 계승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된 것은 독일의 경우 산업사회가 형성되는 19 세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인문과학에서와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포스트모던개념이 애매모호한 것, 실증적으로 내용이 없는 것 또는 규범적인 면에서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219]

Stacey 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방의 포스트모던한 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으나 포스트모던 가족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Cheal 은 사회학의 입장에서 포스트모던한 접근 방법을 시도했는데, 특히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Vester 와 Wilk 가 포스트모던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Luescher 는 포스트모던에 관한

[219] Z. Hradil, *Recent Advances in Adsorption Process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ecurity* (New York: Springer, 2007), 74.

구상을 연구의 측면에서 보다는 논의의 측면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적용 범위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이해하는 이미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던에 관한 구상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포스트모던의 개념을 시대를 진단하는 복잡한 "해석틀" 내지는 " 설명틀"(Post moderneals Deutungs muster)로 보고 있는 것이다. [220]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포스트모던은 전시대, 즉 전통이나 근대와의 대비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뤼셔의 주장대로 포스트모던은 시대를 진단하는 설명틀, 혹은 해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그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며 반영이라고 볼 경우 포스트모던은 그 시대의 가족, 즉 가족 형태, 가족 관계 및 가족생활 그리고 이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포스트모던은 그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양성' 특히 '급진적 다양성'은 포스트모던의 일반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1] 물론 해석틀로서의 포스트모던이 오늘날의 가족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는가는 앞으로 가족이론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2) 포스트모던 가족론 등장의 배경

(1) 동거 및 독신가구의 증가

[220] 아즈마 히로키, *포스트모던*, 윤기호 역(서울:문학동네,2015),148.

[221] Peter V Zima, *Deconstruction and Critical Theory* (London: Continuum, 1994), 112.

동거율의 급격한 증가는 결과적으로 포스트모던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하는 가족 형태가 1960 년도에 1%에서 1983 년에는 21%로 증가했다. 1983 년에 실시한 미국 설문조사에서는 20 세에서 29 세 사이의 미혼 여성 중 42%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하고 있거나 동거한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68 년에서 1977 년 기간 중 20 세에서 24 세 미혼 남녀의 결혼율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전적으로 동거율이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동거율의 증가는 서구 산업 국가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거의 목적이 개인적인 자기실현을 위한 것이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동거만으로도 자기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구 선진국에서의 동거의 형태는 전형적인 포스트모던의 논리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혼외 동거생활의 증가와 미혼 남녀들의 단독 가구 증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혼은 다만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될 때 비로소 일종의 강요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222]

서구 시민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대가족'의 전형적 형태는 부부를 중심으로 두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전적 가족 형태는 이미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독신가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독일의 경우 독신가구의 비율은 1950 년에서 1990 년 사이에 19.4%에서 35%로 증가했다. 노르웨이는 1982 년

[222]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서울: 푸른 역사, 2012), 56.

기준 40.7%, 스웨덴은 1985 년 기준 36.1%, 미국은 1989 년 기준 24.5%, 그리고 일본은 1990 년 기준 21%가 독신가구로 나타났다.[223]

(2) 결혼 연령의 증가

지난 30 여년간에 걸쳐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졌는데 쇼터는 이를 포스트모던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1969 년에서 1971 년 사이의 결혼 코호트를 볼 때 결혼 연령이 높았었는데, 이는 구조적 요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던의 가치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찍 결혼하는 것은 근대가족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 결혼을 늦게 결정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가족의 논리, 즉 '관계(relation)'의 논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근대가족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클 때는 일찍 결혼하게 되며, 청소년들의 친분관계도 이른 시기에 발전되는데 포스트모던 가족에 있어서는 성 및 이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친분관계 체계는 피임약이나 가족계획 방법 같은 요인으로 인해 근대가족에서 보다 더 일찍 발전하게 된다.

또한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성도 포스트모던에 있어서는 가족생활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은 이후에 자녀를 원할 때 고려해 보는 일이 되었다. [224]

---

[223] 우에노 치즈코, *근대 가족의 성립과 종언*, 권윤경 역 (서울: 이미지문화연구소, 2009), 42.

[224] 박숙자, *가족과 성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사, 1995), 86.

(3) 출생율의 감소 및 무자녀가족의 증가

독일에서의 출생율 추이를 보면 1965 년 여성 천명 당 2507 명, 1986 년에는 1349 명으로 20 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세대 간의 행동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을 제도로서 생각한다면 사람은 세대 간의 연결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가지게 된다. 이때 가족생활은 가족의 전통 및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의식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자녀를 가지지 않게 된다면 중요한 체제의 유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근대의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던의 논리는 자녀 출산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자기실현의 산물로 본다. 포스트모던의 논리에서는 여성들의 출산 동기는 점점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페미니즘적 경향의 학자들은 자녀 출산이나 신체적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볼 경우, 한 자녀의 출산만으로도 충분하며 이것은 포스트모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오늘날 서구 여성들의 자녀를 가지는 동기가 근대에서 제시되었던 당연한 어머니되기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경험이라는 개인주의화된 측면에서 상당히 포스트모던적 이라고 할 수 있다.[225]

다른 특징이 이혼율의 증가이다. 1960 년대 이후 이혼율의 상당한 증가도 가족 생활에 있어서 포스트모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혼증가와 함께

[225] 김경일, *여성의 근대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 역사, 2004), 16-19.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편부모 가족, 재혼 가족 그리고 계부, 계모 가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를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증가한 데 기인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혼율의 증가는 질적인 결혼 생활의 기능 혹은 부부간의 불만족과 같은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워진 점, 이혼법, 양육권 그리고 여성들의 직업기회 증가를 포함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율의 증가를 대체로 가족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주의화, 다원화 그리고 탈 제도화를 수용하는 포스트모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226]

3)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은 비체계화와 불가해성을 특징으로 하며, 하나의 모형으로서 포스트모던 가족을 논하고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반포스트모던적이다. 문학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사회이론의 영역에 도입되면서 오늘날 그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모순적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해 주는 중요한 특징은 근대와의 대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

[226] 차성림, *가족정책론* (서울: 양서원, 2015), 45.

그러나 '근대와의 대비'를 넘어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집약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일정한 분석틀을 요구하므로, 포스트모던 가족이라고 모형화할 수 있는 특징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일반적 가족의 특징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227] 첫째, 외부환경과의 관계. 포스트모던 가족은 외부환경과의 관계가 매우 약한 것이 특징이다. 근대가족과 전통가족을 비교해 보더라도 근대가족은 전통가족에 비해 외부 세계로부터 상당한 단절을 보여주고 있으나, 1960 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던 가족의 외부와의 고립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이며, 가족의 중요성은 물론 세대 간의 응집력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부부간의 성격 및 특질. 근대가족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정신적, 우애적 관계가 중요했으나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요인을 중시한다. 즉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부부가 과거와 같이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지만 성은 성공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전통가족에서는 가족의 이익이 최우선 시 되었고, 근대가족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개인의 행복이 최대화된 반면,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가족 내에서든지 또는 외부에서든지 **'**관계(relation)**'**를 통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27] Ivy Backwith, *Postmodern Children's Ministry* (서울: 대서출판,2016), 53.

1960 년대 이후 대 인간성적 결합의 중심 사고로서 관계라는 개념이 뚜렷이 자리잡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자기실현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자기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는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요소의 강조는 앞으로도 가족 구조의 변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28]

셋째, 부모 자녀간의 상호관계 및 가족 체계의 또 다른 요소. 포스트모던 가족에 있어서 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느슨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도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의 관계는 근대가족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다. 그들은 매우 밀착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가족에 있어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근대 가족에서는 사춘기의 상당한 부분이 가정 내에서 사회화되었던 반면, 1960 년대 이후에는 가정 외부의 사회집단, 즉 또래집단이나 대중 매체에 의해 사회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족 외부에 의한 이러한 사회적 통제는 청소년의 행동에 부모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1) 가족관계의 개인화와 평등화 추구

포스트모던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개인화'이다. 근대 핵가족 또한 근대 이후 진행되어 온 개인주의화 경향의 산물이다. 근대

[228] John M. Gottman , *부부 감정치유*, 최성애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4), 48.

핵가족은 이전과 달리 지역 사회와 친족 공동체와의 관계가 제한된, 이방인이 접근할 수 없는 사적인 소세계, 신성한 장소로서 고립되고 개별화된 단위이다. 하지만 근대 핵가족의 개인주의화는 가족 단위에 고착되고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매우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229]

특히 남성 부양자-여성 가사 전담자의 성별분업은 이러한 유기적 관계의 주요한 기반이다. 남성 가구주가 고립된 핵가족을 외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 됨으로써 남성 가구주를 정점으로 하는 독특한 위계구조가 갖추어지고, 여성과 아이는 이전에 공동체와 맺고 있던 다양한 관계를 접고 가장에게 귀속되게 되며, 이러한 귀속은 사랑으로 치장되지만 사실은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남성 가구주가 독점하고 있는 경제력에 근거한 불평등관계이다

반면 포스트모던 가족에서의 개인화는 바로 이 가족 단위의 유기적 응집력을 깨고 개인주의화가 가족 성원 개인의 수준까지 전면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성원간의 관계가 매우 느슨한 연대에 기초하게 된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성적 요소가 강조됨에 따라 양자간 연대가 매우 가변적이 되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특히 나이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은 점점 더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화 과정의 진행 속에서 부분적으로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에 대한 요구, 그리고 결합과 친밀함과 공동체에 대한 동경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가족, 즉 개별화된 자들의 연합으로서, 핵가족의 유약화인 동시에 증대로서의

[229] Gary Thomas, *부부학교*, 윤용석 역 (서울: CUP) , 54.

가족이 추구된다. 이렇게 가족이 독자적 삶의 영역을 보장받는 개별가족 성원간의 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다면 가족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점점더 협력과 평등을 지향하게 된다. 근대 핵가족에서 보듯이 불평등관계는 그 자체 지배와 종속의 유기적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불평등관계가 더 이상 가족의 유지를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체를 촉진한다. 즉, 개별화와 평등은 가족의 가변성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가족이 유지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 부부는 배우자간의 상호 호혜적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어 가족의 이해, 특히 아동의 이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남편은 더 이상 가장이 아니며 권위에 대한 배타적 소유자도 아니다. 개인화된 관계에서 '차이'는 당연히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차이는 성이나 인종 혹은 연령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개별화된 개인 간의 차이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은 여성과 아동의 억압적 가족 관계에서 탈피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다원화와 탈제도화

가족 관계에서 개인화·평등화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포스트모던 가족모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형화되고 제도화된 가족모형의 거부이다. 가족 구성에 있어서 포스트모던은 가족유형의 다양성으로 드러난다.

Elizabeth Beck-Gernsheim 에 따르면 이혼과 재혼으로부터, 너와 나와 우리의 과거가족과 현재 가족의 아이들로부터 생겨난 협상이족, 교환 가족, 다수가족과 같은 가족들, 결혼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관계, 홀부모, 동성파트너 등 많은 형태가 산업화 시대에 최고의 형식에 도달했던 전통적 가족 이후에 오는 가족 형태의 윤곽이다. [230]

미국의 실리콘 벨리 지역에 대한 스테이시의 연구는 이혼과 재혼 등을 통해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족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같이 전통적인 가족모형에서 벗어나 다원화·탈제도화된 가족유형은 포스트모던 가족모형의 중요한 특징이다.

포스트모던 가족의 구성은 단일화된 유형을 거부하고 유동적이며 다양한 형태가 병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라는 단일한 구성만을 모범적 범주로 강조하며, 제도화를 지향하는 근대 핵가족모형과 뚜렷이 대비된다. 근대 핵가족모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가족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된 부부관계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라는 구조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획일적·일원적 개념이 제도화된다. [231]

포스트모던의 가족모형에서 보았을 때 독신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된 파트너십을 유지 하더라도, 나아가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증명서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

[230] Lee Badgett,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김현경 역 (서울: 민음사, 2016), 132.

[231] 김미숙,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영록사, 2006), 38.

‘독신’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 다수는 실제로는 독신이 아닌 다양한 생활 방식을 영위한다.[232]

(3) 구조-문화-패러다임 관점으로 본 포스트모던 생활 유형

스위스 사회학자 Hoffman-Nowotny 의 거시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포스트모던의 생활 유형을 통해 조금 더 포스트모던 가족에 접근해 보게 되면 가족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 변화를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보는 대부분의 가족 사회학 이론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가 구조적 변화(예를 들면 산업화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종교적 규범의 의미 상실)의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233]

구조와 문화라는 두 가지 차원은 서로 관계를 가지고 긴장 가운데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그리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Hoffman-Novottiny 는 그의 구조-문화-도식 이론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관계를 설명하는, 즉 거시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포스트모던과 생활 유형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 생활형태 및 생활양식의 빠른 변화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문화적 발전과 구조적 발전의 특수한 상호작용으로서 근대성(Modernitaet)의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4) 포스트모던 가족 형태

---

[232] 박주희, *현대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실재* (서울: 구상, 2010), 37.

[233] Anthony Giddens,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서울: 동녘, 2015), 42.

Hoffman-Novottiny 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가족 형태로 보고 있다.[234]

(1) 혼합적 가족 형태 : 거시사회학적 경향으로 볼 때 여성은 점차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게 되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가족의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은 – 부부로 결합되어 있든지 혹은 동거관계에 있든지간에–사회 체계에 있어 혼합적 형태를 나타낸다. 거시사회학적 이론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이러한 가족은 성인 구성원들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Gesellschaft'이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존적인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Gemainshaft'라고 할 수 있다. 즉 Gemainschaft 와 Gesellschaft 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가족 형태는 가까운 장래에 가정을 이루는 가족원들에게 점차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형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하며, 인생주기에 걸친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독신: 모든 제도화된 것이 약화되고 개인주의화가 강화되면서 독신으로서의 생활은 미래 가족 형태에서 더욱 매력적인 대안 형태가 될 것이다. 개인주의 사회에 가장 잘 맞는 생활형태인 독신은 그것이 단기간에 걸친 것이든 장기간 계속되든 양적으로나 중요성 측면에서 앞으로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235]

---

[234] Anthony Giddens,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박노영 역 (서울: 한길사, 1971), 246-250.

[235] 박귀영, *가족과 젠더* (서울: 양서원, 2014), 37.

(3) 시민 가족(또는 근대 핵가족) : 현재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인 핵가족은 미래에도 계속 영향력을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형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형태는 사회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변화에 맞추어 강화 또는 약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며 그렇게 안정된 가족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족 형태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시도와 실패(trialanderror)의 원리'가 반복되는 견고하지 못한 생활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분리동거형태 : 이는 현재 가장 낯선 형태이다. 그러나 호프만-노보트니의 구조-문화-도식을 참고로 할 때 개인주의화된 생활 유형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인다. 이는 각자의 생활공간이 상당히 명확하게 분리되면서도 자율적으로 규칙이 형성되는 생활형태이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분리되면서 함께 사는 이 같은 가족 형태는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근대 또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에 상대적으로 가장 최선의 관계 양식으로 보인다. 분리동거형태는 이미 전문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가 공존하는 혼합적 사회 체계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편부모가족 : 이혼이나 별거와는 상관없이 편부모가족 형태는 양적인 면에서나 전체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 뚜렷이 증가할 것이며, 이 가족 형태는 앞으로 결손 가족이 아닌 독립적인 가족 형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편부모가족은 의심할 바 없이 현재 비중 있는 가족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5) 가족의 다원화, 탈제도화

근대화와 함께 출현한 공적 영역은 핵가족의 모형에 따라 결혼을 제도화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제재하고 싶어 했다. 즉, 공적 영역은 제도적 가족의 구조와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불개입이라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제도적 가족의 구조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19 세기 이래의 시민법에 입각한 서구 각국의 가족법은 가족과 가족 관계에 대해 상당히 정교한 모델을 규정하여 그 규정에 부합하은 이른바 '합법 가족'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고 있었고, '혼인의 해체 불가능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었다. 혼인외의 성관계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통을 범죄시했으며, 법적 혼인관계 밖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했다. [236]

이러한 태도는 복지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복지 프로그램의 커버리지가 아내와 아동 등 남성 가구주의 부양가족에게 확대될 때, 독신 엄마와 그 아이들, 혼인하지 않은 동거가족 등은 배제되었다. 반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공적 영역은 가족의 형성과 해체, 모든 것에서 탈제도화를 인정한다.

가족의 형성과 해체를 한 가지 유형으로 강하게 제도화하고자 노력했던 시민법의 전통이 포기되고 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적 계약과 같은 방식을

[236] 박성렬, *쉽게 정리한 가족법* (서울: 법학사, 2014), 49.

취하게 되었다. 즉, 결혼은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는 두 사람간의 일이며, 사회의 역할은 이러한 계약의 체결과 취소를 등록하고 모니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개념 위에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37]

이같은 변화는 이혼이 더 쉬워지도록 가족법이 바뀌어 왔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 핵가족모형에서는 합법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으로 일일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규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포함되는 사항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이혼을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1960 년대 이후의 개혁은 이혼을 과거와 같은 유책주의, 즉 혼인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벌로 간주하는 내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5. 포스트모던이즘 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예언자적 설교

1) 예언자적 설교에 대한 이해와 정리

예언자적 메세지를 예언자적 설교라는 실제적인 적용으로 연결짓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설교자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해도 진실을 내어 놓기는 쉽지 않다.

과연 '예언자적 설교'란 무엇인가? 흔히들 생각하는 '예언자적 설교'란 현대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설교자가 즉시 예언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단지 예언자가 아니라 옛 보물(전승)과 새 보물(동시대성)을 쓸모있게 만드는 '예언자적 전승의 취급자'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

[237] 이기숙, *현대 가족 관계론* (서울: 파란마음, 2009), 27.

진정한 예언자적 설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단언하고 선포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공적 선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편에는 번영의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초월성'과 '안락한 내재성'을 좋아하는 현상이 신앙에도 나타났고, 오늘날 신조차도 우리 마음에 드는 신들을 찾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런 배경하에 이웃을 희생하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상품 강탈을 보장하는 미국 예외주의(US exceptionalism: 미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 특별함을 부여받았다는 신념- 편집자)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예언자적인 설교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설교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룬 해방과 언약의 내러티브가 옳다는 주장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 예언자적 설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안적 내러티브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지배적 내러티브처럼 대안적 내러티브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내러티브들간의 긴장이 감춰져 있는데 이 긴장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이 예언자적 설교의 고된 작업이 되는 것이다. 설교가 그토록 고된 작업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불안하고 감춰진 긴장 속에서의 위기의 전환이고 의식의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예언자적 설교란 야웨(YHWH), 곧 세계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옛 예언자들은 실로 상상하는 사람들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토라의 통제 아래서 이성에 속박되지 않는 감정으로 언어를 분출해 내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이미지들과 은유들을 사용하되 그것들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달궈진 화덕'(호 7:4-7), '어리석고 지혜없는 비둘기' (호 7:11), '입을 맞출 송아지'(호 13:2), '뒤집지 않은 전병'(호 7:8),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사 5:2,4), '터진 웅덩이'(렘 2:13), '절박한 창녀'(렘 4:30), '통의 한 방울 물'(사 40:15), '두려움을 모르는 벌레'(사 41:14) 등이 주는 긴급한 충격을 감지하게 한다. 이 이미지들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실제 상황을 공감하게 해준다. 예언자들의 상상력을 이미지들과 은유를 통해 피부로 잘 공감하도록 했던 것이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의 위대한 투수 밥 깁슨의 빠른 볼과 유사하다고 말한 것은 적당한 비유라고 볼 수 있다. 이 투수에 대해 해설자들은 말하기를 '불쑥 나타나', '움직이다가', '솟어오르고', '놀라게 하고', '압도한다' 고 표현함은 세상을 참신한 각도로 보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예언적 설교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단순한 과거의 되풀이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와 은유들이 필요하다. (바로 예수의 비유들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예언자적 설교의 한 모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자적 상상의 중심에는 야훼가 계시다는 것이다. 그 분은 기꺼이 자동사의 주어가 되시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등장인물이자

행위자시다. 그래서 야훼는 질적으로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점을 설교자는 항상 중심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와 개인의 역사 속의 상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꿔놓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911 사태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사무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건물의 상실이나 심지어 3 천여명이 죽었다는 사실에 있지않다. 물론 엄청난 손실이지만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깊이 신뢰했던 난공불락의 규약이 깨어져 이제는 우리의 특권이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받은 충격은 옛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받은 충격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실과 슬픔을 거쳐 새로운 가능성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 목회자의 과업을 깨닫게 된다. 회중에게 상상의 대본을 제공하여 상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이 상실을 청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 분개, 징벌이 최종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야훼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그리고 심판 후에도 온통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계시다.

이와 같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도 계속 움직이시는 야훼의 내면 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실감에 빠져있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심판으로 경험하는 것) 상실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는 인간의 과정이 예언자적 설교의 주 관심사이다. 인간의 과정은 상실- 슬픔- 새로운 가능성의 순서를 밟게 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예언시에 담긴 하나님의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언자들의 설교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증언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교회는 상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진지하게 포용하는 유일한 장소임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2) 예언자적 목회에 대한 즉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현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처하시던지 새로운 일을 헬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결의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그에 따른 '결코….하지 않겠다'는 보장과 추방당환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나는 언약의 공식을 모두 포함한다. 언약의 공식은 포로생활을 하는 중에 거듭해서 나온다. 야훼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이다. 이때 예언자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신실함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예언자는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말을 해야한다. 희망의 시적 표현이다. 예언자는 계획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희망은 시적이고 열려있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놓을 만큼 구체적이다. 이런 사역이 예언자의 사역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3 명의 예언자를 통해 이 시대의 목회에 큰 교훈과 모델을 제시함을 알게 되었다.

(1) 에스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향력 있는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예언자다. 따라서 에스겔은 백성의 삶을 성전이라는 프리즘과 성결의 요건에 비추어 바라봤다. 그가 슬퍼하는 상실 중에는 야훼를 성전에서 떠나시게 했던 성전의 오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포로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장면, 야훼께서 돌아오시기에 적합한 장서로 바르게 장식되는 장면을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질서정연한 약속의 땅 한복판에 우뚝 선 성전을 묘사하는 에스겔은 마지막 대목을 그 회복된 도시가 이제는 '여호와삼마'(주께서 거기에 계심)라고 불리다는 말로 끝낸다.

야훼의 부재 가운데 에스겔은 장차 야훼의 임재가 회복되어 도시와 땅의 활기찬 삶이 복원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여느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겔로부터 배우는 바가 있다. 특정한 형태의 희망은 어느 정도 특정한 경험, 신학적 신념, 사회적 관심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성전의 현존이야말로 예언자 에스겔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희망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목회의 본이 되는 제시라고 생각한다.

(2) 예레미야

에스겔이 가문 좋은 도시의 제사장이었다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이었다. 그는 성전이 아닌 토라의 가르침에 전념했던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예레미야서는 언약적 성실성에 관한 위대한 두루마리인 신명기 전승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에스겔서에서는 야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야훼의 거룩함의 회복에 있는 데 비해 예레미야에서는 그 근거가 야훼의 파토스에 있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에 따라 행동하신다. 예레미야서는 성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지만 거기서 말하는 희망에는 분명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과 재건이 포함된다. 언약이 다시 제정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내다보고 있다. 그는 옛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야훼는 새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셨다. 그리하여 언약이 깨지고 다시 맺어지는 과정으로 토라를 강조하는 것이다. 신명기에서 유래한 새 언약은 토라에 기반을 둘 것이며 언약 형식의 되풀이를 허용하는 순종을 낳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 곧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주장이 예레미야가 품은 희망의 핵심에 있는 듯하다. 그 희망이 전적으로 창조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야훼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주장은 창조질서만큼 믿을 만한 것이 된다. 목회에서 말씀의 기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설교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세지인 것이다.

(3) 이사야

이사야가 상상한 희망은 야훼께서 주시는 장래의 새물결, 즉 환희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그날을 예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바벨론에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 즉 야훼께서 권능의 모습으로 돌아와소 가공할 바벨론의 권세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신다는 소식을 가리킨다. 신학적으로 보면 , 야훼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주장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패권을 끝장내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사야서에서 약속의 주제는 전체를 관통한다. 장차 예루살렘은 국제 관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야훼의 토라가 모든 민족에게 교사와 지침이 될것이고 그 결과 전쟁 연습과 대조적으로 평화를 향한 열정이 생길 것이다. 인도적인 사회

행습과 사회 관계를 특징으로 할 새로운 창조세계의 비젼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새로운 창조세계가 도래하면 야훼께서 늘 함께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화해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야의 장차 주어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의 예언 놀랍다. 이런 예언자적 담대함은 목회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절망의 과거에 등을 돌리고 능동적으로 미래에 기댄다는 뜻의 메세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스라엘이 추방당한 상태에서 가졌을 그동안의 고난과 절망을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깨어나라고 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늘 취해 있는 듯한 요즘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외쳐야 할 예언자들의 목소리이리라 생각한다. 절망간을 떨쳐버리라는 촉구, 새로운 것, 말하자면 자유로운 가운데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할 기회를 주목하라는 예언자의 날카로운 외침인 것이다.

에스겔의 제사장적 비젼, 토라에 기반을 둔 예레미야의 소망, 이사야의 도시비젼이 아주 다른 이미지에 기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적 소망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장차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데 있다. 이 불가능한 일이 바로 복음의 실체인 것이다.

예언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청중을 위해 대안적 세계를 추론해 냈다. 그 대안적 세계는 믿음이었다. 속박의 대안이 하나님의 결의로 주어진 상상 속에 있고, 상상력을 동원한 인간의 언설을 통해 주어진 상상 속에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목회는 예언자를 필요로 하며 반드시 있어야한다. 예언자의 설교는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선포이다. 해방을 추구하는 예언자들의

상상은 무모하고 변혁이 있지만 회복을 가져온다. 인간 세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탄식- 불평- 항의 는 찬양- 감사와 함께 반복되는 현실일 뿐이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상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예언자의 소명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실의 눈물이 밤새도록 흐르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울러 아침에 기쁨과 함께 오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희망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야 목회의 과제인 것이다.

3) 나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예언자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 성경의 예언자는 인간의 길흉을 점치는 역술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언자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안에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구약시대의 예언직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지파나 가문에 의해 세습된 왕이나 사제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예언자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직업이나 가문 또는 특정 지파를 초월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 미래만을 예언하는 아니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의 일을 과거와 연관 시켜서 얘기하고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예언의 소재를 삼았다. 심판에 대한 예언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하기도 했던 것을 본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예언적 설교는 어떤 것이며, 사역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마치

구약시대에 예언을 하고 돈을 받기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거짓으로 예언을 한 사람들도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더 신중한 믿음과 사역의 증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예언자의 입을 통해 말로 선포됐지만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도 선포된다고 본다. 주일학교 사역자의 삶또한 중요한 선포 도구일 수 있다. 때론 하나님은 예언자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선포자로 쓰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적 설교란 예수님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의 진리 선포이자 증거자의 삶을 살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은 특히 어른보다 순진하고 단순하다. 진리의 흡수도 빠르고 전파도 빠르다. 그런 이유에서 어린이 선교의 출발점은 복음의 순수성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상실의 경험과 상처가 있다. 또한 소위 ‘어긋난 상태’에 직면했을때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는 예언자적 설교와 안내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결국 어린이 사역도 하나님의 거룩을 목표로하는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예언적 설교와 사역으로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의 실체적 회복을 고민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본받는 말’이 아니라 육신을 입는 말씀처럼 선포되어야 한다. 현대적 합리성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대담하게 진리를 설파하여야만 한다.

그 말은 그 속에 담긴 부르심을 확신하는 언설이다. 그 말은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지평을 요구하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며

위탁된 말 안에 거하시는 실현시키시는 말을 할때 설교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는 '새로운 것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일꾼이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증언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언자의 입은 세상에 새로운 실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두가지 과업을 사역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첫째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다. 마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그 붕괴를 선언한 것과 같다. 그 사명의 둘째 부분은 불가능한 일, 즉 '건설하고 심는' 일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심다'는 '뽑다'와 반대가 되고 '건설하다'는 '파괴하다'와 반대가 된다. 예언자는 그동안 세웠던 일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언설을 통해 그 일을 '행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예언자적 설교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언자적 설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의적으로 세워진 이데올로기, 곧 부인과 절망을 가져오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성행할때 진리로 인한 희망의 선포는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2018 년도에는 매 주 토요일에 토요학교를 열어 어린이들의 신앙과 한국 말과 문화 교육을 하게 되며, 여름에는 7 월 2 일부터 8 월 24 일까지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여름캠프를 통해 매 금요일마다 VBS 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신앙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된다. 복음의 간접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단순한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은 이 세대에 마지막 희망의 젖줄이 될 것이다. 많은 프로그램과 흥미 위주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어린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참된 말씀, 예언자적 말씀 선포는 이 세대에 마땅히 선포되어 전파되어야 할 의무적인 사명일 것이다.

오늘날 문화적 격면의 와중에 교회와 특히 사역자들에게 위탁된 사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실'이라는 영역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두가지 영역를 진지하게 포용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지역교회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이들에게도 존재하는 상실을 놀라운 은혜의 영역으로 움직여가는 힘은 예언자적 발언이 세상의 삶에서 결정적 행위자로 일하시는 야훼께 불가능한 것을 호소하는 대담한 도전으로 발전해 가야하는 것이다.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을 주시고 움직여 가야 한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현해 가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선교의 넓은 주제는 전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대와 지역의 선교와 전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영혼을 다루는 참된 사역의 발동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주의의 선교는 당장의 효과로 보이지만 영혼 구원과 성화라는 연속적인 교육과 양성에는 많은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언자적 생각과 성령 충만과 말씀은 특별한 지침이 있지는 않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통치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언약을 수리하시면서 부르시고, 함께 손 잡고 행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담대하게 외치며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VI. 프로젝트 실행

1. 사이트 팀

교회에서의 어린이 사역은 혼자만이 할 수 있지 않다. 교회에서의 재정 지원과 돕는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근 1 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다. 때론 임마누엘 장로교회 혼자만의 사역이기도 했고 몇 교회가 함께 모여하는 연합 프로그램도 있었다. 2016 년, 2017 년에 계속 된 여름 VBS 와 HOLY-WIN 행사는 100 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모여 연합 집회를 했을 때에는 더욱 특별히 사이트 팀의 협조와 후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또한 앙케이트 조사와 분석, 어린이 세미나와 부모들 세미나,교사들의 모임과 회의 때에도 사이트 팀의 수고가 있었다.

< 사이트 팀 >

이름	나이	직업	사역
			어린이세미나 상담, 어린이앙케이트조사협조,

최한나	21세	NYU 수학교육과 3	여름 VBS, HOLYWIN 행사와교회 장식도움
김기정	22세	NYU 수학과 3	어린이 세미나 상담 어린이앙케이트조사협조 여름 VBS, HOLY-WIN 행사와 교회장식 도움
최정인	24세	BIOLACOLLEGE 생명공학전공	부모들의 자녀교육 상담 도움, 토요학교고급반 교사담당 앙케이트 조사 후 분석 평가
허선자	52세	광고회사 근무 현 건강프로그램 디랙터	토요학교 간식 담당 전도팀 구성과 실행 담당 찬양 지도와 교육 협조 VBS 식사 주문과 간식 준비

이상의 사이트 팀이 프로젝트 구성과 실행에 직접적으로 도와주었다.

2. 프로젝트 실행

1) 토요학교

(1) 한글 성경교육

토요학교를 통해 한국어 성경을 읽고 쓰기를 배웠다. 또한 한국 문화와 더불어 한국 전통의 예절, 특히 어른에 대한 공경을 배우게 되었다.

가. 한글 성경교육

토요학교를 통해 한국어 성경을 읽고 쓰기를 배웠다.

또한 한국 문화와 더불어 한국 전통의 예절, 특히 어른에 대한 공경을 배우게 되었다.

나. 교재 : 쉬운 성경

달	성경 쓰기 / 읽기	찬양
1 월	주기도문 쓰기	430 주와 같이 길가는 것
2 월	십계명 쓰기	478 참 아름다워라
3 월	사도신경 쓰기	435 나의 영원하신 기업
4 월	시 23 편 쓰기	288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5 월	천지창조 쓰기	180 하나님의 나팔 소리
6 월	요한복음 1:1-18 절쓰기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7 월	전도서 11: 9,10 절 쓰기	199 나의 사랑하는 책
8 월	창세기 3:16 절 쓰기	200 달고 오묘한 그 말씀
9 월	신명기 6:4-9 절 쓰기	216 성자의 귀한 몸
10 월	데살로니가전서 5:16-22 절 쓰기	263 이 세상 험하고
11 월	계시록 22:1-5 절 쓰기	268 죄에서자유를 얻게함은
12 월	아가서 8:13-14 절 쓰기	109 고요한 밤

(2) 일대일 멘토십 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쉽게 마음 문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때론 신앙 상담을 제공한다.어린이 세미나 후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적인 면담이 있었다. 매 주일 예배 후 자유 상담이 있으며 개별적 친근감을 가져서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고 영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 고민이나 상담을 했다. 어린이들이 주일에 결석을 하든지 예배에 불참하게 되면 개인별심방을 함으로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3) **전도** 교육

어린이 선교의 목적은 길 잃고 헤매는 어린양(마 18:12-14)의 비유에 나오듯 교회 밖에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주간 중에 이웃에 살고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이들을 집으로 불러모아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 뒤, 가까이 있는 성서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가정 성경반이다. 자녀들이 받은 교육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이 됐다.

가. 노방 전도 프로그램 : '글 없는 책' 전도책자

월	주제	전도 계획
1 월	황금 색 <하나님 나라 >	1 월 28 일 노방 전도
2 월	검은색 < 죄>	2 월 25 일 노방전도
3 월	빨간색 < 예수님의 보혈>	3 월 25 일 노방전도
4 월	흰색 < 구원>	4 월 29 일 노방전도
5 월	초록색 < 성장 >	5 월 27 일 노방전도
6 월	임마누엘 전도지 만들기	6 월 24 일
7 월	짝꿍 전도 대회	7 월 29 일
8 월	여름 성경학교	8 월 1 일~4 일
9 월	어린이 헌신 예배	9 월 30 일
10 월	달란트 잔치	10 월 28 일
11 월	컵타 연주 발표 (추수 감사 주일)	11 월 18 일
12 월	찬양대 발표회	12 월 24 일
	전도 큰 잔치와 환영식	12 월 25 일

나. Holy-Win Program

토요학교와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 2016 년, 2017 년도 10 월 31 일에 교회 연합으로 모였다. Holloween Party 를 교회에서 경건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Holy-Win 이란 이름으로 행사를 가졌던 것이다. 해마다 Holloween Party 때에 많은 사고가 벌어진다. 특히 세상 문화에 속한 이런 풍속은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거룩한 날 행사로 바꾸어 이름도 Holy-win 으로 지었다.

이 행사의 성과는 무엇보다 이 날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3 명의 어린이들이 새로 왔고 Youth 봉사자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던 친구가 나와서 도와주기도 했다. 총 90 명의 어린이들이 교회 연합으로 모였다. 봉사자들과 교사, 사역자들 모두해서 130 명 정도가 모여 예배와 워쉽, 게임,식사, 교제, 얼굴 페인팅, 풍선 아트, 선물 증정등의 프로그램을 가졌다. 각 가정 방문해서 사탕을 받듯이 , 게임을 통해 이기고 완성한 어린이에게 사탕을 선사했다.

믿지않는 친구를 함께 초대도 했고 체육관 안에서 여러 게임을 돌며 선택하는 재미도 있었다. 전도의 프로그램이며 교회 연합이라는 귀한 하나됨도 즐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다. Christmas Party 행사

성탄절 때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관심이 산타클로스에게 향해지는 시기에 구원 받지못한 어린이들에게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진리와

그들의 일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한 번 모임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고 행사를 위해 오랜 기간의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다. 특히 파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전도프로그램이 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탄절 캐럴을 부르고, 연극, 음악 발표, 미술 전시, 저녁 만찬까지 여러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초청에 응한 어린이전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솜사탕 기계로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 먹기도하면서 어린이들의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라. 달란트 잔치

매 주일에 상으로 달란트를 주었다. 달란트는 착한 일에 따라 차별화 되어 나누어 주었다.모든 예배 시에 수시로 상을 주었으며 예배에 늦지않고 오는 것, 예배 준비를 도와준 것, 성경책 나누어주기, 물통에 물 담아주기, 쓰레기 줍기, 의자 정리 도와주기, 칠판 닦아주기, 성경 구절 낭독하기, 기도하기, 설교 잘 듣기,찬양 크게 부르기, 예배 태도 좋기, 테이블 펴고 접기, 식사 나르기, 식사 기도 하기, 친구 물 따라 주기, 친구에게 양보하기, 동생들 도와주기 등 등의 모든 일상의 착한 일들을 칭찬하는 상이었다.

어린이들이 달란트를 꼬박 꼬박 모으며 물건으로 바꾸는 날을 위해 저금하는 습관도 키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예배 때 어린이들의 태도가 무척 진지해지고 순종을 잘해서 사역이 즐거웠었다. 달란트 잔치때마다 200 불 정도의 선물을 진열하고 어린이들이 가진 달란트로 물건을 사는 마트 형태로 운영을 했었다. 매우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다. 3 달에 한 번씩 행했었다.

2) 찬양대 조직

찬양대 조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또한 어린이 찬양대는 주일 예배때 특송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국 동요와 애국가도 가르쳤다.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서를 음악으로 배울수 있도록 지도했다. 어린이들이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토요학교가 아니라면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어 노래와 음율에 익숙한 어린이들이지만 한글을 배움으로 한국 노래와 동요까지도 어렵지 않게 잘 익힐 수 있어서 매우 보람있는 활동이었다.

3) 앙케이트 의식 조사

(1) 앙케이트 조사 1.

어린이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식 조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조사를 2017 년 6 월에 가졌다. 임마누엘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도 되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들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존귀함을 확인하게 되였다

(2) 앙케이트 조사 2

2017 년 7 월에는 2 차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어린이 의식 조사가 있었다. 대상은 임마누엘 교회 장년들 교인이었고 그 내용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린이 신앙을 위한 의식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이었다. 대를 잇는 신앙을 위해 가정과 교회의 관심과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3) 앙케이트 조사 3

2017 년 12 월에는 어린이 선교교육의 연구 질문 4 가지를 통해서 어린이 선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을 구했다. 어린이 선교는 토요학교의 목표이므로 전도와 선교의 의식을 갖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었다. 질문들을 통해 백분율의 통계가 이루어 졌고 표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집계가 되었다.

4) 현장 탐방

< 수정교회 어와나 프로그램 토요학교 방문 >

2017 년 6 월과 7 월에 현장 탐방을 하였다. 어와나는 성경구절과 게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게임을 통해 크리스천으로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어와나는 만 3 세부터 5 학년까지 연령대의 어린이들로 구성됐다. 커비, 스파키, 그리고 티엔티 아이들이 어와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프로그램 이었다.

가. 반 구성

< 커비반 (만 3-5 세) >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놀이, 노래, 만들기 등의 감각 활동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배워갔다. 부모들은 가정에서도 영적인 양육을 할 수 있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스타키반 (K-2nd grade) >

자신감과 사고율이 높은 시기의 아동기 어린이를 위해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며 성경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운영했다. 3 년동안 3 권의 핸드북을 통해 69 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복습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성경에 대한 기본 진리를 배웠다.

< 티 엔티반 (3rd -5th grade) >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등 신앙 생활을 하며 갖게되는 궁금증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배웠다. 4 권의 핸드북은 재미있는 캐렉터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생애 최대의 모험으로 구성되며 310 개의 성경구절을 암송하게 되었다.

나. 카운슬링타임

어와나기를 게양하는 기 게양식으로 어와나 모임을 시작했다. 스파키와 티엔티가 교대로 함께 모여서 성경주제의 동영상을 보거나 말씀을 듣고 문답식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깊이있게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복음과 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모임에 오면 반드시 한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도록 하고 있었다.

다. 북타임

핸드북 시간은 각 팀 별로 모여 개인적으로 어와나 리더와 만나 집에서 암송한 핸드북의 성경구절의 암송을 확인 받았다. 보통 스파키들은 한 주에

최대 3 구절정도를 그리고 티앤티들은 한 주에 7 구절정도를 암송했다. 교사들이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모임에 더 열심히 참석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다. 어린이와 교사가 1 대 1 로 만나 주중에 집에서 암송한 핸드북의 성경구절 암송을 확인 받는 시간이었다.

라. 게임타임

30 분동안 정해진 게임 트랙안에서 게임을 하며 즐거움과 함께 건전한 스포츠맨쉽과 협동심 등을 배우게 되었다. 게임 시간은 어린이들이 교회 어와나 클럽에 오는 이유가 되며 이 시간을 잘 준비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이끌어 내었다. 어린이들이 어와나 클럽에 흥미를 갖게하는 시간이 바로 게임 타임이었다.

5) **세미나** [2017 년 8 월]

(1)교사 세미나 : 교사 헌신과 사명의식의 고취

날짜	일정
9 월 28 일	교사 헌신 예배
10 월 4 일	교사 강습회
10 월 26 일	전문 주일학교 교사 초청 세미나
11 월 1 일	교사들 기도회

11월 25일	저출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세미나
12월 10일	주일학교 관련 책읽고 나눔, 발표

(2) 어린이 세미나

제목: 믿음으로 사는 어린이

목적: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 성도, 교제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하여

일시: 2017년 12월 3일 1시 30분

장소: 임마누엘 장로교회 소성전

대상: 유년부 주일학교 어린이, Junior EM

내용: 성교육, 게임중독, 왕따문제

강사: 정혜성 교수

(3) 부모 세미나

"신앙 계승의 중요성과 자녀 영적 성장을 위한 대안 연구"

제목: 미국 사회 속의 자녀 잘 키우기

목적: 사춘기 어린이들 교육과 세대간의 갈등 고민 해결

대상: 주일학교 어린이 부모님

내용: 신앙으로 자녀 교육하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필요성과 실천

식탁 나눔 운동으로 가정 예배 드리기

강사: 남승분 목사

6) **식탁 나눔 운동** [2017 년 9 월 1 일 ~ 12 월 31 일]

매 달에 첫 주에 한번 "식탁 나눔 운동"을 실시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도 되고 자유롭게 대화식으로 해도 상관 없었다. 하지만 모든 식구가 다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때론 어린이들이 예배 인도자로 리더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의 예배가 한나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토요학교에서 배운 한글과 음악으로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가정에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7) **독서 지도** [2017 년 1 월- 12 월]

가정에서 한글 그림 성경 읽어주기 운동 : 한 주에 한 편씩 부모가 자녀에게 한글 성경을 읽어주며 신앙의 대화를 이끌어 가고자 했다.

VII. 프로젝트 평가

1.의식의 변화 평가

미국은 주 5 일 수업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 5 일만 등교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토요일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져 있었다. 미국은 학교가 창설될 때부터 일요일은 예배의 날이므로 토요일이 휴업일이었다. 따라서 주 5 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국민의식 전환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토요일에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보내며 오후에는 지역사회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생활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휴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휴업일에는 가족과 함께 하거나 사회 시설 등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어린이들의 교육이 학교 중심적 사고가 아닌 가정과 사회가 함께 교육적 역활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조되면서 토요학교에 대한 의식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었다. 학교교육의 위기 의식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공교육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학습 부적응,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인종 차별 등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위상과 역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더욱 새로운 교육적 대안과 요구는 교회내의 토요학교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논문은 현재 뉴저지 임마누엘 장로 교회에 출석하는 20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서적, 신학적, 교육적, 사회적 측면의 이론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서 토요학교 프로젝트를 실행했었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시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고자 하며 어린이 선교에 목적을 두게 되었다.

주일학교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을 해결하고자 토요학교를 열게 되었다. 2017 년 3 월 4 일부터 2017 년도 토요학교 1 학기를 시작했다. 8 명의 등록으로 시작하였고 2017 년 5 월 27 일에 마치게 되었다. 여름 방학이 있었고 2017 년도 9 월에 2 학기를 개학하게 되었다. 첫 날에 11 명의 등록이 15 명이 되고 3 달을 진행했던 토요학교 중간 중간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있음으로 2 학기 마지막 날에 22 명의 학생으로 확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놀라운 성과였다.

1 년동안의 토요학교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수가 세 배가 되었고 매 수업 시간에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토요학교의 부흥은 주일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매 주 어린이의 증가로 주일학교 방이 좁아져서 방을 넓혀야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더욱 어린이 전도로 말미암아 장년들의 수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주일에 교재실이 사람으로 북적되고 활기찬 모습이 생겨서 모두들 식사하며 교회 전 세대가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이것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일어난 토요학교 안에서의 열매요 기적이 된 것이다.

특히 음악을 통한 예배와 교육의 활성화를 가짐으로써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린이 찬양대의 헌금송과 찬송가는 예배의 참여를 통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토요학교에서 음악교육에 드럼반과 기타반 수업은 '2017 년도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교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에서 선교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선교적 삶을 사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 선교교육은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데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될 때 어린이는 자연히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게 되었고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되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의 언어 소통의 문제가 커져서 부모 자녀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 토요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한글을 익히고 배우므로 어린이들이 성경을 한글로 읽고 익히게 되었다. 한글 찬송가를 통해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세대간의 의식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에서의 토요학교 개설은 특히 이민자들 어린이들의 여러 사교육의 발판이 되고 있었다. 토요학교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주일에 한정된 시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었다. 주일 예배만으로 부족한 신앙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을 배우고 아이들의 의식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던 어린이들의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습관을 키워주고자 노력했다. 영적 성장이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도 교사와 부모들의 꾸준한 인내와 돌봄이 필요했었다. 우선 어린이들이 토요학교를 통해 말씀과 찬양,특별 활동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움으로 어린이들 자체의 의식이 영적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토요학교의 부흥은 교회에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고른 연령대 교인들이긴 했으나 영유아부부터 장년까지 모든 부서가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

특히 음악을 통한 예배와 교육의 활성화를 가짐으로써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배가 진지해졌으며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었다. 음악을 통해 감성을 계발하게 되었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었다. 바쁜 이민 사회 속에서 지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자칫 메마르게 될 수도 있는 정서적 필요를 채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 찬양대의 헌금송과 찬송가는 예배의 참여를 통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토요학교를 진행하면서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년 예배에 치중되었던 어른 권위주의를 바로잡게 되었다. 어린이에 대한 진지한 의식의

출발은 어린이들이 선교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확신하는 교회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과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서 선교 교육은 출발했다.[238]

또 다른 변화는 어린이들 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신앙면에서 어린이들에게 무관심했었는데 그 점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의 변화가 토요학교에 대해 냉소적이던 교인들 의식의 전환을 가졌다.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교인들의 토요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바꾸게 되었다. 1 년동안의 토요학교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수가 세 배가 되었고 매 수업 시간에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결과였다.

넓게는 어린이 전도와 선교는 외국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타 문화권을 이해하며 전 세계를 품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부모 중 한 쪽이 한인이 아닌 어린이들이 한글학교에 등록하며 한글을 익혀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곧 어린이들로 하여금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혹 타 문화권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선교 훈련이 되는 것이다.

2. 실행 평가

1) 연구 질문 검토 (Review of Research Question)

지역교회의 주일학교 선교교육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아래의 설문지 조사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38] 마태복음 28:20.

(1)지역교회 어린이 선교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선교교육이란 무엇인가?

(2)지역교회 어린이 선교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3)지역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선교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지역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선교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Population of the Research)

뉴저지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어린이와 부모들을 포함한 장년들 교인이 설문 대상이었다. 토요학교에 관한 이해와 역할을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 토요학교를 통해 전도,선교에 이르는 복음의 확장의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했다.

< 성별분포 >

성별	표집인원	백분율
남	30	38 %
여	49	62 %
총	79	100 %

3) 자료 분석 (Data Analysis)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응답 자료들이 자료 분석이 되었다.

(1) 연구질문 1 : 지역교회 어린이 선교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선교교육이란 무엇인가?

<표 1> 어린이 선교에 대한 이해 질문

질문	인원	백분율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12	19%
시대적요청이며하나님의뜻이다	13	18%
미래의선교적교회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것이다	9	19%
어린이들을그리스도께인도하는것이다	15	50%
전체	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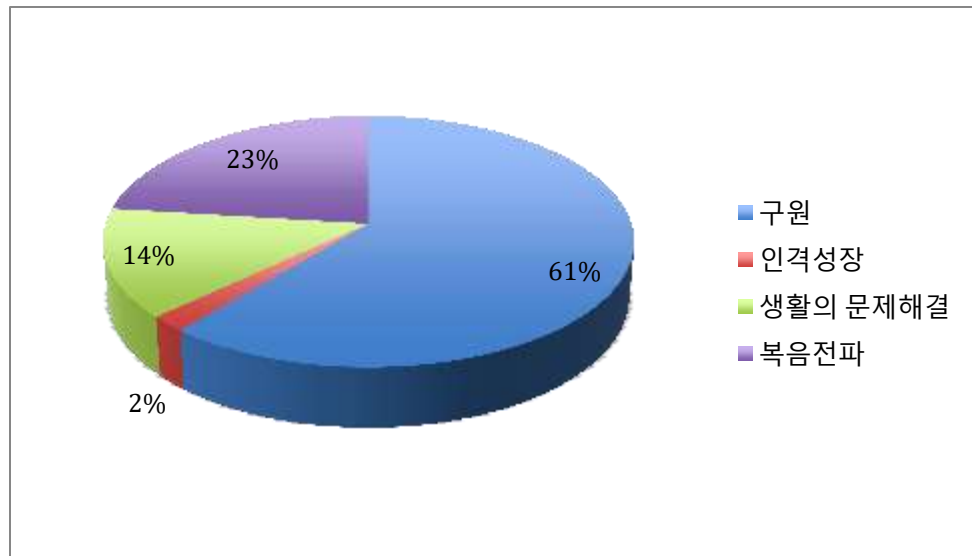
대부분 어린이선교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선교적 필요성 인식은 다소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어린이들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린이 선교교육에 대해 68%가 어린이 선교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8%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어린이 선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집결되었다.

(2) 연구질문 2 : 지역교회 어린이 선교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 표 2-1 > 어린이 선교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원	백분율
구원	49	61%
인격 성장	2	3%
생활의 문제 해결	11	14%

타인에게 복음 전파	17	22%
전체	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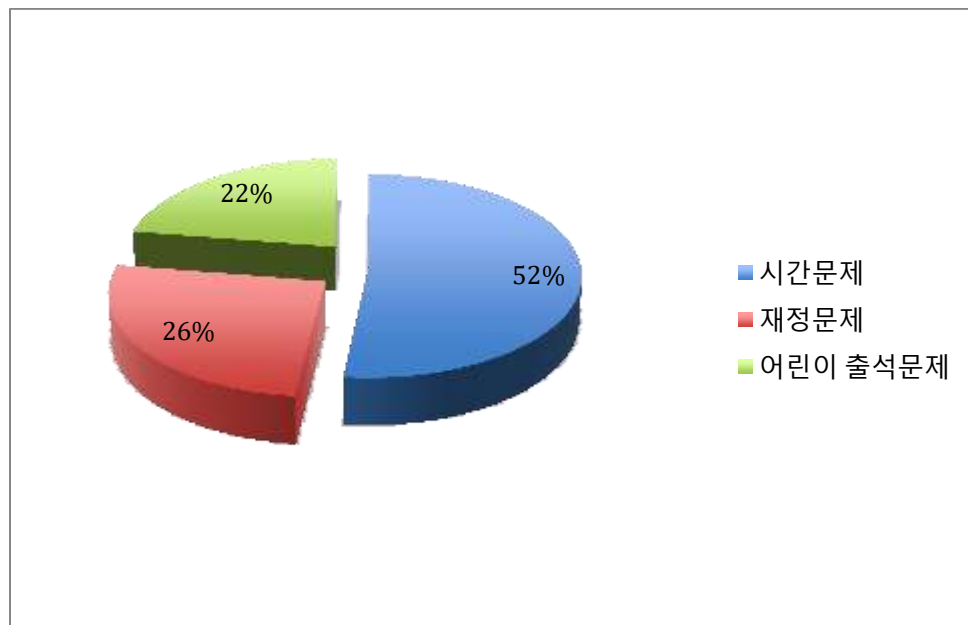
< 표 2-2 >

어린이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린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43%가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문화, 영적 필요에 대해 어린이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질문 3 : 지역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선교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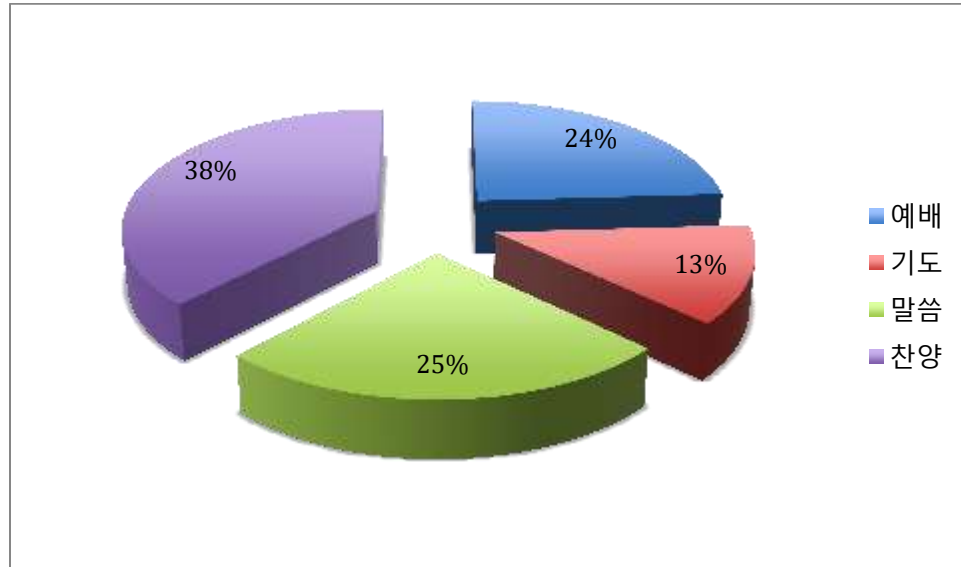
지역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선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지에서 어린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 표 3-1 >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어린이 선교의 문제점

	인원	백분율
어린이에 대한 전문성 부족	36	46%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정적 사고	20	25%
교사의 교육의 질 저하	19	24%
어린이 출석문제	4	5%
전체	79	100%

< 표 3-2 > 어린이 선교교육의 문제점

지역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선교교육의 문제 중 환경문제에 있어서 교육환경은 42%, 시간문제가 30%, 재정문제 15%, 어린이 출석문제가 13%로 집계 되었다.

(4) 연구질문 4 : 지역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선교교육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표 4-1 > 임마누엘장로교회가 우선시하는 선교교육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토요학교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선교교육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찬양이 3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말씀,예배,기도 순으로 집계 되었다. 토요학교에서 시작된 찬양대 조직과 연습을 통해 더 큰 찬양의 운동과 실력이 향상되어 선교적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표 4-2>

	인원	백분율
예배	4	24%

기도	2	13%
말씀	3	25%
찬양	7	38%
전체	16	100%

3. 구조의 변화 평가

처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주일학교 따로 담당교사가 없었다. 유치부를 지도했던 목사 사모님이 10 분 설교하러 오셔서 설교를 마치면 여자청년이 받아서 아이들의 공과공부를 담당했었다. 교실은 교회에서 가장 작고 끝 방에 있었다. 부품과 교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 힘든 과제가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의식의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다. 어른들의 어린이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것은 쉽고 바로 되지는 않았다.

먼저 어린이들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했다. 예배의 내용 중에서 말씀,기도,찬양,헌금 등 각각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를 알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른 교인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 전도팀이 생겼다. “글 없는 책”으로 노방전도를 나가서 오히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이 전도의 운동이 장년들의 전도에 불을 붙게

만들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의 게으름을 깨우는 일도 있었다. 가정에서 식탁나눔운동 때에 어린이들이 기도순서를 맡기도 하고, 설교 때에 자신이 알고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더 흥미있게 가정예배에 참여하며 반응하게 됨으로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의 구조 변화를 갖게 되었다. 가정에서 식사 기도나 잠자리 전의 하루 마무리 기도 때에도 어린이 스스로 기도하게 되었다.

찬양대 조직은 가장 큰 어린이 예배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였다. 찬양대 조직으로 예배가 짜임새가 있게 되었고 예배의 분위기를 더욱 경건케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어린이 찬양대의 찬양과 발표는 부모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태극기를 들고 "나의 살던 고향"과 "애국가" 제창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또 토요학교 내의 특별활동 부서에서 리듬 비트반,문화 미술반, 기타반,체조반 등의 발표로 토요학교의 실제적 교육 효과와 만족을 가져왔다. 이 토요학교 특별활동 교육은 사교육의 감소를 가져오고 되었고, 교회 전도의 큰 역활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변화는 어른들의 의식을 바꾸게 되었다. 어른들이 어린이 자체를 선교사로 보게되는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린이 이름으로 선교비 후원도 하게 되었고 어린이도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의식을 동등하게 갖게 되었다. 세미나를 통해서 더 확실한 의식 구조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남승분목사의 어린이 발달에 따른 교육이론과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과 해소 등의 실질적인 자녀와의 갈등과 대안을 교환할 때 교회와 가정이 함께

어린이 교육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각 연령대의 어린이들의 행동 특징과 반응을 제시하며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며 훈육하는지를 강의했다. 자신의 자녀들의 행동 상황을 서로 주고 받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풀어내고자 고민하며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세미나가 되었다.

이 세미나는 "식탁 나눔 운동"에 큰 활력을 주었고 부모들의 소그룹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교사들의 세미나와 독서 토론 모임은 어린이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준비된 교사들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차에 걸친 앙케이트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앙케이트를 통해 어린이 교육의 취약점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들이 토요학교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한 토요학교 1 년을 마친 후의 의식 변화를 표를 통해 알게 하였다. 어린이들은 처음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기에 매우 궁금해 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들 - 성교육,게임 중독,왕따의 문제와 어린이들 의식의 세미나는 좀 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정혜성교수의 자상한 강의와 복음 제시로 이어지게 되었다.

교회 구조의 변화는 주일학교의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일학교 지원금의 인상이 이뤄졌다. 실제로 보조금도 없이 흐지부지했던 주일학교 부서의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었다. 물질적인 지원이 따르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배실의 확장과 수리를 하게 되었다. 매달 150 불

지원과 전도회별 지원, 개인적 후원까지 이뤄져서 교회 안의 주일학교와 토요학교가 명실공히 자리 내림의 큰 힘이 되었다.

또 다른 교회 안의 의식 변화는 교회의 분위기가 장년부에 치우치는 경향이 점점 연령 전체 부서로 균형있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로 가는 의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는 의식,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가 어른들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짐으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선교의 기본적 의식 구조를 갖게 되었다.

VIII. 목회 유능성 개발

1. 목회상담가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부모와 가정 그리고 주변에 닥치는 위기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죽음, 이혼, 별거, 이사, 괴롭힘, 질병, 아픔, 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의심, 두려움, 상실, 상처, 악몽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어린이는 아무런 위기도 느끼지 못하며 위기를 느낀다고 해도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은 어른 중심의 잘못된 판단이 더욱 어린이들을 위기로 몰아 넣게 된다는 것이다. [239]

이러한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부모의 책임이나 학교로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논문 연구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이 수고한 만큼 대가가 오지는 않더라도 교회의 사역자는 반드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어린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어린이 복음화'는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적 사명인 것이다.[240]

어린 시절 겪은 위기의 충격이 성인이 되고 난 후 그의 정체성과 특히 영적 성숙에 큰 영향을 준다는 많은 목회 상담가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어린이들이

[239] 강문희,장연집,정정옥,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1998), 243.

[240] Andrew D. Lester, *어린이 위기상담과 보살핌*, 신민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54,59.

사건을 쉽게 왜곡하거나 위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앞으로 다가오는 어린이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린이 사역자는 어린이의 외적,내적 고통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린이들이 각자의 위기의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과연 온전한 목회 대상인 교인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교인들에게 속해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도 역시 교인이다. 그들도 목회적으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목회자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목회자들은 기독교 프로그램이나 주일 어린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매일 어린이에게 던져지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을 진지하게 목회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241]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데 있어서 먼저 그들의 고민과 감정,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어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어린이의 언어로 그들과 대화하고 , 목회적으로 돌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강력히 요청되고 있음을 절감했다.

[241] Ibid, 82.

따라서 토요학교를 통한 어린이 섬김은 좀 더 사역적으로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글, 성경, 음악, 미술, 체조 등의 지적배움과 정서적, 영적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신앙을 세우고 삶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242]

어린이 섬김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토요학교는 매우 소중한 기대와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주일 1 시간의 예배만으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육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토요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정서적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육적으로도 놀이와 활동 속에서 사회성을 배워가는 균형있는 발달과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논문 연구를 통해서 어린이 돌봄 목회에 큰 동기와 성과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사역적 돌봄과 상담은 꾸준히 진행되어질 것이며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상담으로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노력이 있을 것이다.

2. 교육자

선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모든 족속과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다. 또한 선교는 교회 교육의 목표이다. 교회 교육 과정은 선교를 통한 하나님 과업 완성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42] 장연섭, *아동기의 스트레스* (서울: 다음세대, 2001), 10.

이를 위해 지역교회는 교회학교를 어린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주님의 선교 과업에 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회 교육을 해야한다. 이런 믿음의 후손을 키우기 위한 선교 교육은 교회의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교사와 사역자들은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누구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선교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선교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힘써야한다는 어린이 선교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얻게 되었다. 이미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할때 모으면 되지만 선교사는 당장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숙련되지 않은 선교사를 단시간에 배출하는 현재의 선교사 양성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입장에서 차세대 선교양성에서 어린이 선교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선교를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양질의 미래 선교사를 준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단기, 장기적인 선교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토요학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양질의 사역자와 교사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선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교육을 고민하며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반 교육자들의 어린이 교육과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연구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어린이 교육자들의 어린이 발달이론을 기초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게되어 몰랐던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이에 따른 교육 이론들을 접하게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론 연구를 통하여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이 신학과 발달심리학이 교류하여 형성된 이론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또한 피아제의 이론을 확대하여 6 단계의 발달단계로 이론화하였다. 어린이들의 도덕발달 6 단계를 통해 발달 학습되어지는 것이 매우 흥미로왔다. 콜버그가 흔히 인용하는 하인즈 딜레마 연구는 구체적으로 도덕발달 단계의 예를 보여주기도 했다. 제롬 베리맨의 어린이 영성교육은 매우 새롭고 신선한 어린이 영성 교육 이론이었다. 베리맨의 연구로 어린이들에 대해 실존적 입장에서 이론을 출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그의 연구 특징이라 생각한다. 또한 상상력과 인식론에서 종교적 인식을 중요시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어린이들이 세상 삶 속에서 받는 유혹과, 여러 중독의 대처방안 등을 가르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린이들이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교회가 힘써 안내를 해야한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현실 속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돕기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이론이 아닌 교재와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지역교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장년들의 선교교육을 위한 교재는 현재 각 선교 단체 별로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어린이 선교 교육을 위한 교재는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교회가 사용할 교재와 프로그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뿌리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나무의 뿌리이며, 교육은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선교를 반드시 해야하고, 선교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사역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시도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당장의 효과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부단한 연구와 계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 세대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 연구에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복음전도자

현대 교회는 그 중심이 장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점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태이다. 예배의 중심도 장년, 교육과 프로그램의 중심도 장년에 있음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어린이 선교과 교회 부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로잭트를 쓰면서 연구자는 어린이를 미래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그 중심의 가치관을 바꾸어 어린이에게도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린이부, 주일학교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교회 전체의 부흥과 전도, 선교에도 작용하게 될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예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다. 꼭 해야만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들에게도 맡기고자 하셨다. [243]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며, 그 사명을 이 시대 교회에게 맡기고 계신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어린이 전도자의 양성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전하다' 또는 '전파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Kerusso'이다.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대 왕국에서 '왕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멧세지를 전달하는 선포자'에 대하여 이 낱말이 쓰여진 것이다. 왕의 메세지를 받은 선포자는 마을의 가장 한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선포자는 자신의 말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맡겨진 왕의 메세지만을 전해야 했다. 진리의 단순함을 나타낸다. 만일 누가 'Kerusso'의 의미로 전하면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244]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의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로마서 3:2, 이사야 53:6)

---

[243] 한치호, *전도하지 않는 교사 주일학교를 떠나라* (서울: 크리스천리더, 2001), 25.

[244] James I. Packer,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28.

2)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디도서 3:5, 갈라디아서 2:16, 잠언 14:12,에베소서 2:8-9)

3)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로마서 5:8, 요한복음 3:16)

4)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요한일서 5:13)

5)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17, 고린도전서 10:13, 요한일서 4:4)

또한 논문을 통하여 구약성서, 신약성서 속에서의 선교에 관한 연구와 성령적 근거에서 본 선교 연구는 성경의 눈을 열어주었고 선교의 중요성을 성경안에서 찾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선교의 역사와 대륙별 , 나라별 선교역사는 현대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하는 시간이 되었다. 각 교회별로 이뤄지는 교회의 선교 사역은 현지에서 토착화 신학으로 이어지면서 나라마다 정착되어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45]

앞으로 복음전파와 선교는 계속될 것이다. 많은 연구와 이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자체로 출발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의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246] 더 더욱 어른들의 어린이 전도에 관한 교재와 프로그램은 찾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프로그램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역의 연구를 계속하기를 원한다. 어린이 영혼 구원과 전도의

---

[245]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홍병룡 역 (서울: 서평출판사, 2010), 57-89.

[246] 양금희, *공관복음서의 어린이에 관한 예수말씀을 통해서 본 어린이 신학의 과제*, 기독교교육총론,제 32 집(2012.11),133.

중요성을 깨닫고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노력은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를 사는 모든 어른들의 과업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남겨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IX. 결론

어린이 선교와 교육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자못 큼에도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한국 교회 관심은 어린이 보다는 장년에 치중되어 있다. 어린이 교육과 선교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관심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들의 특징 자체가 그러하다. 가정에서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 속에 성장하고 있듯이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들이다.[247]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어린이는 교회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보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그 교육과 선교가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부분 어린이에게 보다는 장년에 집중되고 있다. 그 만큼 교회학교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안팎의 힘겨운 도전과 걸림돌을 이기도 나갈 가능성은 희박해 진다하겠다.[248]

---

[247] 조정제, *21 세기 주일학교를 부흥시킨다* (서울:은혜출판사 1999), 31.

[248] ibid, 37.

결국 교회 안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절로 흥밋거리가 있는 교회 밖으로 자꾸만 나가게 되고, 발전된 아이들의 호기심을 끄는 것들, 게임이나 인터넷, 문화적인 것들로 아이들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어린이들은 점점 더 교회와 선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의 중심 구조를 장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나눠줘야 함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어린이들을 먼저 영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함께 교회 안에서의 영성적 훈련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부모들이 바쁘다는 이유와 자녀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 신앙 교육을 뒤로 미루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선교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어린이에 대한 선교의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복음 전도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선교를 목회비젼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며 사역해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 선교는 누구 한 사람이나 한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구하며 이끌어 가야하는 과업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선교는 어린 시절 가치관이 형성되는 점, 어릴 때 일수록 받아들이는 학습 능력이 좋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어린이들을 향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린이 신앙 교육은 현대 시대의 교육과도 발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통용되었던 신앙 교육 방법이 지금 시대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어린이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일생동안 잊지않게 된다. 또 어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 무엇보다 더 어린이들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될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할 수 있는 시기에 필요한 영적 양분을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가 주일학교 교육에 달려있음을 실감하며 특히 주일학교 (유치•유년부, 초등부를 중심)를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구체적인 교육이 절실하다.어린이들은 학교라는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며 지내게 된다. 마치 징검다리와도 같은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현실적인 영적

필요를 전달 해 줄 수 있는 것이다.[249] 이런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를 키워낼 것이다.

어린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정서적인 안정의 효과는 기독교 신앙의 열정을 필요로한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들이 습관이 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지내며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환경에 익숙해져 감 그 자체가 바로 신앙 교육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식사 기도하는 모습과 자기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부모들의 간증은 또 다른 토요학교의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주일학교 재정 지원은 여전했다. 내일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준비하듯이 어린이를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물질적 후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달달이 150 불의 후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토요학교와 전도행사 등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장년들이 모든 어린이를 품고 지역교회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 선교사를 키우고 파송하는 능력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데 있다. 다양한 문화의 발전 속에서도 기독교 문화 속에서의 어린이 선교는 어린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은 선교의 부흥의 역사를 꿈꾸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력을 다하여 어린이들에게 힘을 쏟아 그들로 하여금 발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약과 부흥을 꿈꾸어 본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어린이 선교의 방법들이 많아지고

---

[249] 이재욱, *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서울: 좋은 씨앗, 1999), 217.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어린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계속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APPENDICES

1. 앙케이트 조사

1) 어린이용

[Religious consciousness survey for children]

어린이를 위한 신앙 의식 조사

1. 당신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가?

Do you truly believe in God ?

Yes ( ) No ( )

2.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가?

Do you meet God though worship ?

Yes ( ) No ( )

3. 설교를 들을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Do you hear the words of God when you hear sermons ?

Yes ( ) No ( )

4. 주일 1 시간 예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Do you think that worship is not enough for one hour a week?

Yes ( ) No ( )

5. 토요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Do you think we need a Saturday school?

Yes ( ) No ( )

6.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Have you met God personally?

Yes ( ) No ( )

7. 자신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Do you think you are honorable in the world?

Yes ( ) No ( )

Thank you

2) 어른 용

[가정 안에서의 어린이 신앙 의식 조사]

1.당신은 자녀의 신앙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네 ( )   아니오 ( )

2. 있다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서술 :

3. 주일 1 시간 예배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네 (   )   아니오 (   )

4. 토요학교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네 (   )   아니오 (   )

5. 토요학교에서 하는 한글학교, 음악, 미술 등의 활동 교육에 만족하는가?

네 (   )   아니오 (   )

6.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1 년동안 토요학교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네 (   )   아니오 (   )

7.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서술해 주세요.

8.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서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선교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이 설문지는 지역교회 어린이 선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1. 어린이 선교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2) 어린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3)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

4) 어린이 선교는 꼭 필요하다.

2. 선교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2)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3)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4)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습,문화,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

3. 어린이 선교교육의 문제점

1) 교육환경의 문제이다

2) 시간의 문제이다

3) 재정 문제이다

4) 출석 문제이다

2 선교 교육의 방향

1) 예배 (어린이 선교를 위해 몇 번의 특별예배를 드리는가 쓰시오)

2) 기도 (선교를 위해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쓰시오)

3) 말씀 (성경은 얼마큼 읽고 있나 쓰시오)

4) 찬양 (선교 관련된 찬양 교육을 힘쓰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3. 프로젝트 사진

토요학교 한글 수업 소 풍

토요학교 달란트 시장 토요학교 한국전통 민속놀이

토요학교

음악반 (기타반)

토요학교 (피크닉)

어린이

날 축하 행사 2017

토요학교 비트 드럼반

holy win 행사

여름 VBS 2017

여름 VBS 2017

어린이 찬양대 발표회

Bibliography

1. 외국 서적

Mastin, Achard. *Light to the Nation.* E.T,1962.

Michael, Alsford. *The Atonement and the Post-Modern Deconstruction of the Self in Atonement Today*. ed. John Goldingay. London : SPCK, 1995.

Margaret, Archer. *The Treaty of Postmodernism in Christian Theology*.

A.P, Beaver. *The Chrstian World Mission. Reconsderation*, 1957.

Jerome, W. Berryman. *Godly Play*: *an Imaginat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1991.

J. Blo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Michigan, Missions,1962.

__________. *Critical Evaluation*. New Delhi, India: Sarup & Sons, Books " Georgia: Smyth and Helwys Publishing,1996 .

D. Cox. Proverbs: *With an introduction to sapiential books.* Wilmington,Del M.Glazier,1982.

Kieran, Egan. *An Imaginative Approch to Teaching*. Jossey-Bass,2005.

Michel, Foucault. *Madness Civilization* . Toronto Canada: 1965.

J. Francis, W. K. Kay and W.S. Capbell. *Herefordshire*: Gracewing Fowler Wright Books Georgia: Smyth and Helwys Publishing, 1996.

Stanley, J.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Eefdmans, 1996.

David, Hay, Rebecca Nye, and Roger Murphy. *The Spirit of the Child.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6.

______________________. *Thinking about Childhood Spirituality:* Review of Research and Current Directions. in Research in Religious Education, 2007.

Z. Hradil. *Recent Advances in Adsorption Process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ecurity* , New York: Springer, 2007.

Phil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2002.

S. Kobia. *New Vision and Challenges to Ecumenism in the 21st Century*2008.

Nakata, ASJ I. Kuk won chang. New York: 1979.

Francis, P. McHugh and Samuel M. Natale ed. *Things Old and New*. Lanham: Universty Press of America, 1933.

H.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Harper Sanfrancisco, 1975.

Grant, R Osborn. *Christianity Challenges Postmodern.* New York, 1980.

Dr. S. K. Paul . ed., *The Complete Poems of Rabindranath Tagores' Gitanjali* : Texts and Donald Ratcliff, 2007.

Mike Regele, Mark Schulz. *The Death of the Church* . Nashville:World,1998.

J.L.Seymour and D.E. Eugene. *Contemporary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 London, 2008.

L.J.Sherrill. *the Gift of Power*. Nj:The Macmillan Company,1955.

W.von Soden .Iraq 28, 1966.

O. Stuerd. *A Study of the Religious Experience of Childhood*. New York: The Seabury Press,1983.

Peter, V Zima. *Deconstruction and Critical Theory* . London: Continuum, 1994.

2. 번역 서적

Karen, Amstrong. *이슬람.* 장병옥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2.

Johann, Christoph Arnold. *어린이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원마루 역,서울; 포이에마출판, 2014.

J.MacArther.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 마영례역,서울:디모데,2001.

Lee, Badgett.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김현경 역 ,서울: 민음사, 2016.

Ivy, Backwith. *포스트모던 시대의 어린이 사역.* 최영걸 역, 서울: 대서출판, 2010.

Jerome, W. Berryman. *가들리 플레이.* 양금희 역 ,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David, J. Bosch, *변화하는 선교역사.* 김만태 역, 서울: CLC, 2017.

David, Bryant.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라*. 안진원 역,서울:죠이선교회,1992.

Iris, V Cully.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 교육*. 서광선 역,서울: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3.

________________.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 오성춘,이기문,류영모역,서울:대한
[250]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1989

D. Cappe.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 문희경 역,서울:이레서원, 2001.

John, D. Caputo, *포스트모던 시대의 철학과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David, Elkins. *변화하는 가족*. 이동원과 김모란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99.

Robert S. Ellwood. *신비주의와 종교*. 서창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Charles, E. Engen .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임윤택 역, 서울: CLC, 2014.

D.J. Estes.지혜서와 시편개론.강성열 역,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James, W. Fowler. *신앙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Anthony, Giddens.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박노영 역, 서울: 동녁, 2015.

______________.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서울: 한길사, 1971.

Michael, W. Goheen. *세계관은 이야기다.* 윤종석 역, 서울: IVP, 2014.

John M. Gottman. *부부 감정치유*. 최성애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4.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홍병룡 역, 서울: 서평출판사, 2010.

Tomas,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3.

David, J. Hasselgrave. *현대선교의 도전과전망*.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출판국장로회 신학대학 세계선교원역, 1991.

Jacques, Ellul. *이슬람과 기독교.* 이정순 역, 서울: 대장간, 2009.

R. Hervert. *자녀*, 최은희역,서울:로고스, 1983.

Paul, Johnson. *기독교의 역사* . 김주한 역, 서울: 김영사, 2013.

___________. *2 천년동안의 정신이 된 기독교*. 김주한 역, 서울: 살림, 2005.

Walter C. Kaiser Jr. *구약성경과 선교*. 임윤택 역, 서울:CLC, 2009.

Herbert, Kane. *세계선교역사*. 이영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___________.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이재범 역,서울:나단,1988.

Harold, Karward. *종교다원주의와 세계종교*. 오강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Lawrence, Kohlberg.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 정유석 역, 서울: 레인보우북스,

2009.

D.K. Lapsley.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정창우 역, 서울: 인간사랑, 2008.

Brother Lawrence. *하나님의 임재연습*. 오현미 역, 서울: 좋은 씨앗, 2008.

Andrew, D. Lester. *어린이 위기상담과 보살핌*. 신민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T. Longman.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전의우 역,서울:IVP, 2005.

John, Fox. *시 치료*. 최소영,조은상 역, 서울: 아시아, 2013.

Jean-Francoia, Lyotard. *포스트모던의 조건*. 이세진 역, 서울: 민음사, 1992.

Amin, Maalouf.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가 전쟁*. 김미선 역, 서울:아침이슬, 2002.

Alister, McGrath. *기독교의 역사*. 박규태 역, 서울: 포이에마, 2016.

C. F. Melchert. *지혜를 위한 교육*. 송남순 역, 서울:한국장로교 출판사,2013.

Maria, Montessori.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 서울: 미루나무, 1993.

Karl, Muller. 현대선교 신학.김영동,김은수,박영환 공역, 서울:한들, 1997.

Elyse, M. fitzpatrick. *자녀교육 은혜로 만나다*. 김재권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13.

Bryant, L. Myers. *세계선교의 상황과 도전*. 한철호 역,서울:선교한국, 2004.

David, G. Myers. *심리학개론*. 신현정과 김비아 역, 서울:시그마프러스, 2009.

Nakata,. *ASJ I*.1979. 67 (참조: Kuk won chang).

Connie, Neuman,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10 가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서울: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8.

Frederico, de Oni.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 서울: 시상, 1994.

James, I. Packer.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Friedo, Ricken. *종교철학*. 이종진 역, 서울: 하우, 2010.

David A. Seamands. *좌절된 꿈의 치유*. 이갑만 역, 서울:두란노출판사, 2015.

J.L.Seymour and D.E. Eugene. 오늘의 기독교교육 연구. 맹용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2.

David, R. Shaffer. *발달심리학*, 송길연 역, 서울:Cengage Learning, 2010.

Edward, Shorter. *근대 가족의 형성*. 김우신 역, 서울: 규장, 1999.

Howard, A Snyder. *21 세기교회의전망*. 박이경과 김기찬역,서울:아가페, 1996.

Richard, Templar. *부모잠언.* 이웅조 역, 서울: 세종서적, 2013.

Elmer, L.Towns. *교회성장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연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Gary, Thomas. *부부학교*. 윤용석 역, 서울: CUP.

Pillis, Tyson. *정신분석적 발달이론 의 통합*. 박영숙 역, 서울: 산지니, 2013.

Miroslav, Volf. *알라를 말하다*. 백지윤 역, 서울: IVP, 2016.

Michael, Welker, *종교개혁,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2017.

John, H. Westerhoff.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 김일환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Ralph, D. Winter. *퍼스펙티프*. 한철호,정옥배, 변창욱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3.

Christopher, J.H. Wright.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과 한화룡 역,서울: IVP, 2010.

Peter V. Zima. *모던 포스트모던*.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0.

나카무라 사토시.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박창수 역, 서울: 홍성사, 2016.

아즈마 히로키. *포스트모던*. 윤기호 역, 서울:문학동네, 2015.

오노데라 아쓰코. *간단 명쾌한 발달심리학*. 전경아 역, 서울: 시그마북스, 2010.

우에노 치즈코. *근대 가족의 성립과 종언*. 권윤경 역, 서울: 이미지문화연구소, 2009.

시오노 나나미. *십자군 이야기*. 송태욱 역, 서울:문학동네, 2011.

혼다・고오지, *선교를 위한 정열*, 박정규 역, 서울: 진흥, 1993.

3. 국내 서적

강문희,장연집,정정옥. *아동정신건강*. 서울:정민사,1998.

강병훈. *아프리카를 위로하라*. 서울:도서출판 목양,2016.

강준만. *미국사 산책*. 서울:인물과 사상사, 2010.

고용수와 양금희.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2006

고용수. *21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장로회신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2008.

곽덕영와 양승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아교육*. 서울:양지사,2000.

권성수. *고통의 은총*. 서울:토기장이출판사,2011.

김국환.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한국기독교교육학회,2006.

김도일. *현대 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사상*. 서울:동연출판사,2010.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 이야기*,경기도:도서출판 NCD,2004.

김동건. *21세기 신학의 과제*.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7.

김동호. *교사 바이블*. 서울:규장, 2002.

김만형. *SS혁신 보고서*. 서울:에듀넥스트, 2008.

김무현.*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 직장 문화 구하기*. 서울:말씀과만남, 2007.

김미영.*유아세계시민교육*. 서울:창지사,2017.

김승태.*생각의 탄생*. 서울:세인트 원,2016.

김욱동.*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문학과 지성사,1990.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문화*. 서울:대한기독교서회,2015.

김인환. *기다려지는 주일학교 만들기*. 서울:기독신문사, 2002.

김재헌. *신앙명문가의 자녀교육*. 경기도:비전북출판, 2011.

김종석. *교회학교 성장과 교육 시스템*. 서울:삼원출판사,1993.

김종준. *나는유년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다*. 서울:규장,2000.

김진. *콜버그의 도덕발달.*울산:울산대학교출판부, 2001.

김천성. *잠언서에나타난유대인의지혜교육.*서울:경희대부설교육문제 연구,1998.

김청봉. *우리가 세워야할 교회학교의 미래*. 경기도:이레,2004.

김희자. *기독교 어린이 교육*.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03.

문소정.아시아여성연구.서울:숙명여자대학교, 2008.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2006.

박영환.세계화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신학과 선교"*,대한기독교,2002.

박은규. *예배의 재구성*. 서울:대한 기독교 출판사,1993.

박정세. *기독교 미술의 원형과 토착화*. 서울:연세대학교출판사,2013.

안승오. *세계선교역사 100 장면*. 서울:평단출판사,2010.

양금희. *기독교 유아 아동교육*. 서울:대한기독교서회,2011.

오인탁. *기독교 교육학개론*. 서울:한국 기독교 교육학회,2004.

옥한음 외 7 인. *제자훈련,영적부흥과 갱신의 길*.서울: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1999.

윤남옥. *해천 윤성범의 토착화 신학*. 서울:크라스천 위클리,2016.

윤동철. *모던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립과 갈등*.서울:생명의말씀사, 2010.

이광순과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1993.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2010.

이용봉.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서울:비젼사,2017.

이찬석. *글로컬 시대의 기독교 신화*. 서울:신앙과 지성사,2013.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2004.

임재성. *미래자서전으로 꿈을 디자인하라*. 서울:생명의 말씀사,2011.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서울:바다출판사,2016.

송성숙과 전명기. *청소년 교육론*. 서울:양서원, 2017.

서강식.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교육이론*. 서울:인간사랑,2007.

성기문.*모세의 고별설교*. 서울:솔로몬, 2008.

심상태,윤성범,변선환. *토착화신학*. 서울:베리타스, 2010.

심상태 몬시뇰.*한국교회의토착화신학*.서울: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2016.

신상언. *N세대를 위한 열가지 교육전략*.서울:낮은울타리미디어사업본부,1998.

장연섭.*아동기의 스트레스*. 서울:다음세대,2001.

전대성.*잠언서를 통한 기독교 자녀교육의 주경 신학적 고찰 및 현대적적용*. 서울:총신대학교,2001.

전종희.*인간관계 중심 인성교육*,서울:어가,2017.

정웅섭. *기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87.

정장복.*예배학 개론*. 서울:종로서적,1985.

정정숙.*성경적 가정사역*. 서울:도서출판베다니,1994.

조정석. *21세기 주일학교를 부흥시킨다*. 서울:은혜출판사,1999.

차병주.*덕목별로 정리한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서울:시그마프레스,2016.

최윤식.*유년주일학교 혁명*. 서울:규장,2001.

한치호. *전도하지 않는 교사 주일학교를 떠나라*.서울:크리스천리더, 2001.

홍민기. *자녀교육에 왕도가 있다*. 서울:규장,2006.

황현주. *영유아 발달.* 서울:양서원,2017.

4. 학술지 (논문)

고세진.성경 고고학의 창시자 에드워드로빈슨.*기독교사상,* 2011년 2월호, 제626호.

김희자.*서구의 가족법 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모형, 비판사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78호 2008.

노윤식.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정체성과 과제*:선교목적성의 회복.제51차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발표회.162-6.

안승오. *에큐메니칼 세상 이해*.신학과 목회,제48호,2017.

양금희.*공관복음서의 어린이에 관한 예수말씀을 통해서 본 어린이 신학의 과제*.기독교교육총론,제32집,2012.

서수경.*한국가족관계학회*,한국가족관계학회지.2002년.

장순애. *지혜를 퍼스펙티브로 하는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120호.

전종희.*성경에서 본 선교원리와 전략,*" 복음선교" 한국 복음주의 선교학회 ,1985.

전호진.*종교다원주의와 선교 변증학,*" 복음과 선교" 제4집,2004.

한국일*. 21세기 바람직한 선교,"* 말씀과 교회" ,2008.

박지영.*아동기 어린이의 발달특징에 근거한 교회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전주: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교육학 박사논문, 2006.

5. 주석

*트리니티 말씀대전 편찬위원회.트리니티말씀대전.*도서출판 목양서원,1991.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성서교재간행사,1985.

6. 인터넷

https://news.gb.go.kr

http://kleader.org

http://blog.daum.net